

우리 문화

M A G A Z I N E

우리문화 · 2002년 9월호(통권163호) · 등록번호: 마-02746(1984.7.12)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우 121-715) · 값 3,000원



2002 9

우리 문화

2002 · 9

2002년 9월호(제16권 5호 통권 163호)
 등록 / 마 02746(1984. 7. 12)
 발행처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소 / (우:121-7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화 / 02-704-2311~3
 FAX / 02-704-2377
 인터넷 / www.kccf.or.kr
 발행경 편집인 / 이 수 홍
 사무총장 / 하 만 기
 기획편집 / 컬처플러스(02-2264-9028)
 인쇄제작 / 크리홍보(주)(02-737-5377)
 발행일 / 2002년 9월 1일
 정가 / 3,000원

※「우리문화」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을이에요.
 감기조심하세요.
 허수아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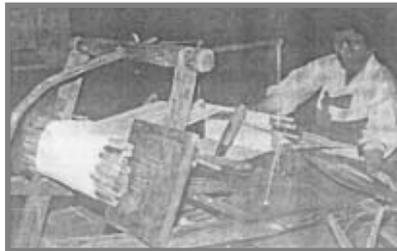
표지 일러스트 정진웅

프리랜스 일러스트레이터.
 한국 출판미술협회 운영위원.
 국제 어린이 도서협의회 회원.
 1988년부터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4 ◆ 특집 · 월드컵과 우리문화



60 ◆ 민속 · 보릿고개를 아시나요?



25 ◆ 고향이 좋다 · '영동'



64 ◆ 음악 · '2002전주세계소리축제'



2 ◆ 날줄씨줄 · 생활속의 태극기	박영배
4 ◆ 특집 · 월드컵과 우리문화	
- 2002 월드컵의 문화적 의의	강신표
- 포스트월드컵 문화정책의 방향	정중헌
- 월드컵 참여 열기 지역축제 정착 방안	이원태
- 지역문화의 자생력과 경쟁력	이종수
- 세계언론이 본 2002 한·일 월드컵의 <문화·관광> 이모저모	편집부
25 ◆ 고향이 좋다 · 난계 박언 선생의 고향 '영동'	강민철
33 ◆ 동정 · 신임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 박문석 문화관광부 차관	편집부
34 ◆ 알림 · 전국문화원연합회 창립40주년 기념 및 제17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편집부
35 ◆ 행사 · 전국문화원연합회 '제4회조선족음악제' 지원	하만기
38 · 동행답사기 - 중국에서 보낸 5박6일	이만철
43 ◆ 2002 유럽문화연수 참가기 · 전통문화 계승하며 '정체성' 지키는 유럽	장상호
48 ◆ 지방문화원해외교류 · '대륙의 심장' 중국 북경을 다녀와서	송기동
54 ◆ 문화인물 · 박효관(8월), 김병연(9월)	편집부
56 ◆ 인터뷰 · 문화원장출신 구청장 - 김현풍 강북구청장	강민철
58 ◆ 세시풍속 · 한가위	류장수
60 ◆ 민속 · 보릿고개를 아시나요?	허백영
64 ◆ 음악 · 2002전주세계소리축제	박후식
68 ◆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찾아내야할' 우리문화	편집부
72 ◆ 전국문화원뉴스 · 향토문화연구자 초청연찬 9월 4일부터 4회 개최	편집부
73 ◆ 신간안내 · 합천 누정록 등	편집부
78 ◆ 문화원 네트워크 · 전국에 215개 문화원이 있습니다	편집부

생활속의 태극기



박 영 배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펄럭입니다”로 시작되는 초등학교 때 즐겨 불렀던 동요가 생각난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저 앵무새처럼 흥얼거렸을 뿐 별다른 감흥은 없었던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태극기는 졸업식이나 입학식 그리고 국경일에 부동자세로 경례를 하는 대상이었고, 항상 교사(校舍) 맨 중앙에 게양돼 고고하고 근엄하게만 보였기 때문이다.

태극기에 대한 인상이라면 양손에 태극기를 움켜쥐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유관순 열사, 광복을 맞아 거리에 쏟아져 나온 인파속의 태극기물결, 서울수복 후 중앙청에 다시 올려지는 태극기가 고작이었다. 현대사에 있어서는 독재정권에 맞선 4·19와 민주화투쟁의 6·10항쟁에서 국기의 진한 의미를 새길 수 있었다.

이렇듯 감격과 슬픔의 두 얼굴을 가진 태극기는 우리 생활에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할까. 그런 태극기가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 곁에 바짝 다가섰다. 장롱 안쪽 깊숙히 박혀 있다가 기껏 국경일이나 모습을 비치곤 하던 태극기가 어느날 갑자기 옛 친구처럼 찾아와 다정히 손을 내민 것이다. 이 만남은 뜻밖이었고 ‘태극기패션’이라는 유행을 낳으면서 북악에서 한라까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갔다.

월드컵 기간중 우리 국민들은 너도나도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대한민국’이라는 내 나라가 이토록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흥에 겨운 나머지 태극기를 자르고 박아 원피스 티셔츠 탱크톱 망토 두건을 만들어 온몸을 치장하며 이 땅위에 온통 태극기패션을 연출했다. 그것도 모자라 얼굴 팔 배꼽에는 태극기문신을 붙였다. 어떤 청소년들은 태극기를 돈보이게 할 요량으로 목걸이 귀거리 팔찌 등의 장신구를 벗어 던지기도 했다.

태극기에 대한 이미지가 이처럼 아주 호의적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성조기’나 ‘유니언 잭’처럼 하나의 디자인으로 자리를 잡아 그 감격을 이어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그 동기만 다를뿐 국기패션은 전혀 새롭지 않다. 애국심고취의 일환으로 은연중 장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 소위 쌍둥이적자로 지칭되는 재정적자 무역적자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사회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져들면서 여기저기에서는 수입품을 쌓아놓

고 불을 지르는 데모가 연일 발생했다. 주로 일본의 자동차와 전자제품들이 화형식의 단골손님이었다. 급기야 의회가 나서 국산품애용의 불씨를 댕겼는데 이 운동은 행정부·업계로 빠르게 번져 나갔다. 당시 등장한 것이 성조기였다. 제조업체들이 자사제품이나 캐털로그에 성조기를 새겨넣기 시작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국기인 유니언 잭에 ‘젊음’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면서 사회의 역동성을 부추기고 이를 로고로 사용하는 많은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혁명과 개혁의 상징이었던 청·홍·백의 삼색기를 입체적으로 도안한 제품들을 내놓아 호평을 받고 있기도 하다.

우리 정부에서도 국기의 의미를 절감하고 이를 생활속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태극기관리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규정대로라면 태극기로 옷 등을 만들어 입는 것은 국가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 처벌받게 되기 때문이다. 태극기에 대한 연구에 나선 전문가들은 새삼 그 오묘한 매력에 흠뻑 빠져들고 있다. 빨강과 파랑 그리고 흰색과 검정색의 분명한 대비, 직선과 원의 조화가 현대디자인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이다. 원의 형태는 다분히 글로벌화돼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태극기는 행운을 가져다 주는 징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 예로 마라톤선수 황영조가 태극마크를 머리에 두르고 뛰었을 때는 태극의 ‘기(氣)’를 받아 예외없이 좋은 기록이 나왔다는 것이다. 외국인들도 태극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태극마크가 새겨진 액세서리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들린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월드컵이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은 우리 사회의 체면과 격식을 파괴한 것이 아닐까. 남녀노소 누구나 신분의 귀천없이 한 동아리로 어울려 강렬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여지없이 과시했다.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적이라고 분자화되어 간다고 비판하던 학자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특히 여성들이 길거리에 몰려나와 응원을 선도한 것은 눈여겨 볼 일이다.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행동의 제약과 사회진출의 제약을 받아온 여성들의 길거리 응원은 집단의 응집력에 접착제를 더한 것이어서 우리 사회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 하나는 축제의 재미를 느꼈다는 사실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신명나는 축제를 즐겼다. 어떤 문화인류학자는 우리민족은 축제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유전인자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축제라고 할만한 행사가 1천 6백여종이나 된다고 하니 세계 어느 나라도 이만하지는 못할거라는 생각이다. 한민족은 축제를 통해 한(恨)의 응어리를 풀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심신의 건강함을 유지했다고나 할까. 축제는 원래 차별과 억압, 질서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생활의 일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중국의 문헌들도 우리 민족을 평하면서 가무와 술을 좋아했다고 적고 있다. 삼국지위지동이전(三國志魏誌東夷傳)을 보면 “오월에 파종을 끝내고는 노래하고 춤추고 술을 마시면서 밤낮으로 수천명이 어울려 여러 날을 즐겼다”는 기록이 나온다.

우리는 월드컵을 통해서 민족의 동질성을 깨닫고 자아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큰 위안을 삼을만 하다. 이것은 곧 우리의 희망이기도 해 든든한 마음이다. **문**

특집

월드컵과 우리문화



2002 월드컵의 문화적 의의

얼마전 우리가 경험한 2002 한일 월드컵은 이 시대를 함께 살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더불어 함께’ 할 수도 있구나를 체험한 소중한 기회였다. 온 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하는 기쁨’을 만끽한 체험은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다. 사실 지금에 와서 다시 돌이켜 생각해 봐도 믿을 수 없는 체험이다. 그래서 언제나 이 체험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과연 무엇을 함께 했던가? 첫째로 서양식 운동중의 하나인 축구를 아시아인으로, 한국인이 처음으로 세계 4강에 진입하는 위대한 업적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남게 한 것이다. 우리들은 이번 월드컵에서 5번 출전하여 한번도 승리한 적 없었기에 한 번이라도 이기면 된다는 것이 최소한의 바람이었다. 16강에만 들어가도 월드컵 공동 개최 국의 나라로서 최대 성공이라고 할 정도의 바람밖에 없었다.

국제 무대에서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190여 국가와 수백 종의 민족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경기에서 상위권에 진입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세계인을 상대로 경쟁한다는 것은 고된 연습을 통해 스스로 갈고 닦아서 쌓은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피를 말리고 뼈를 깎는 아픔을 참고 견디며, 스스로 도 닦는 자세로 수련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법이다. 이른바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표현처럼,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아 그 가죽을 얻던가 아니면 호랑이 밥이 되어 허망한 만용으로 끝나던가를 두고 그 어느 것도 좋다는 자세로 경쟁자와 대결해야만 하는 것이다.

‘임전무퇴’ 경외심 느끼게 해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실력이다. 어떤 상대와도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세다. 화랑오계의 한 구절처럼 ‘임전무퇴’(전쟁에 나아가서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다)하는 각오로 경쟁에



강 신 표
인제대 문화인류학 교수



나서는 자세이다. 이 자세는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이기에 성스러운 모습을 띄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존경스럽게 까지 비춰지게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람자의 마음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외경심(畏敬心- 두려움과 경건한 마음)에 젖어들게 만든다.

실력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푹 떨어져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선수들과 겨루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이고 몇 년을 한결같이 연마한 실력이 있어야 한다. 승부에 운도 따르겠지만, 기본은 실력이다. 기본이 튼튼히 쌓인 기초 위에 다시 고도의 기술이 가미된 경기운영의 실력이 필요한 것이다. 더구나 혼자서 하는 경기가 아니고 팀 전체로서 서로간의 호흡이 맞아야 한다. 이것은 한 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집단 전체가 혼연일체로서 상호 부조하여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 축구는 육상이나, 마라톤, 양궁처럼 한 개인이 하는 경기가 아니다. 농구, 야구, 하키처럼 여러 개인들이 제각각 실력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여러 개인들과 어울리며 조화를 이루어 상대팀과 승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이다. 믿기지 않은 큰 일을 해낸 것이다. 지금까지 흔히 '한국인은 혼자서는 잘 하는데, 여럿이 함께 하는 것에는 사분오열 한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말을 뒤집었다. 한사람 한사람의 선수들의 개인 실력도 뛰어났고, 집단으로서의 축구팀이 조화롭게 뭉쳐서 4강까지 진입하는 대업을 이룩해 놓았다. 어쩌면 운동경기에서만은 개인경기보다는 집단 경기가 언제나 우수했다. 물론 예외도 있었다. 마라톤이나 양궁에서는 한 개인의 경기였지만, 승리하기도 했다. 이것도 우리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 관련된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때 손기정 선수와 남성용 선수가 마라톤에서 일본의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1등과 3등을 했다는 역사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양궁도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이다. 서양 양궁을 한국이 배운지 얼마 되지 않는데,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에 많은 질문을 해오고 있다. 우리에게만 양궁과 다른 국궁(한국의 전통적인 활쏘기)이 이미 우리 조상들의 생활문화 속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혼자서도 잘하고 여럿이도 잘해”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가 확인한 소중한 체험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와 달리 '혼자서도 잘 할 수 있고 여럿이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 식민지때 한국인의 열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수법에, 세뇌된 결과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한한 민족'임을 확인한 것이다.

여기서 조금 더 이 역사적 사건의 정체를 짚고 넘어가 보자. 첫째는 한·일이라는 두 나라가 함께 세계적인 무대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이다. 일본과 우리의 관계

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번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는 그 시발점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였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 선수들에 대해 보냈던 뜨거운 응원을 잊지 말자. 그것은 이제 그들과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나눌 이야기가 많아졌음을 뜻한다. 이를 잘 살려 나가야 한다.

다음은 이들 젊은 운동선수들에게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응원하였다는 것이다. 우리의 저력을 확인한 것이다. 그 저력은 곧 문화적 전통에서 기인한다. 예부터 우리 민족은 더불어 함께 즐기는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었다. 연희자와 관객이 하나되는 이러한 과정은 신명(제정신이 아니고 무언가에 쫓은 것이고, 동시에 신내림의 상황이기도 하다)으로 화합하는 습성이기도 하다.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지 않은 우리들 본연의 모습은 이번 월드컵에서도 드러난 셈이다.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며 뛰어 다니는 선수들, 그리고 그들을 보며 같이 숨쉬고, 같이 아파하는 붉은 악마의 응원단들. 이러한 화합의 과정은 선수와 응원단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다. 얽히고 설킨 그들의 하나됨의 모습은 선수들이 더 열심히 운동장을 누비며 뛰어 다니게 만들고, 모르는 옆 사람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민족의 동질감을 체험하게 하였다.

민족의 동질감 체험... 새로운 문화 창조

앞서 말한 대로 신내림의 과정처럼 하늘의 기운이 응원단과 선수들에게 내려왔던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운동장에서 혹은 공원에서, 그것도 아니면 TV를 시청하는 집안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문화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우리도 집단적 신명으로 무엇이든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더불어 함께' 체험하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문화는 끊임없이 재창조되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재발견을 통해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게된다. 새로운 문화 창조의 가능성을 우리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 배웠다. 이는 곧, 우리가 보존하고 다듬어야 할 우리네 전통의 모습을 확연히 보았고, 21세기 새 시대의 모습을 가늠해 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새로 창조해 내야할 우리네 문화를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이번 한일 월드컵의 체험은 이렇듯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속의 우리의 위상, 특히 아시아에 있어서의 우리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는 기회였다. 이제 진정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러한 체험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라는 과제가 새로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문**



포스트월드컵 문화정책의 방향

2002 한일월드컵에 출전해 한국과 더불어 4강 신화를 일궈낸 터키에 요즘 한국바람이 일고있다고 한다. 터키 프로축구팀에서 한국 국가대표 이을용 선수를 영입한다는 기사가 현지 언론에 대서특필되는가 하면 한국관광객에 대한 환대가 융숭하다는 것이다.

월드컵이 끝난직후 터키의 사설문화 단체 ADA 쿨투르 히즈메티는 한국의 무용단과 조형작가를 초청했다. 터키 문화부 협찬으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에게해 연안도시 아이발리크에서 한국을 주제로 한 제2회 ADA국제문화제를 개최한 것이다.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이 행사에 정승희와 한국예술종합학교무용단, 조각가와 언론인을 파견했다.

터키 주최측은 2002년 10월 이스탄불에서 열렸던 한국의 사물놀이 공연과 2002년 3월 월드컵 홍보를 위해 마련된 정재만무용단의 공연을 보고 감명을 받아 한국문화의 아름다움을 다시한번 감상하기 위해 한국예술단을 초청했다는 것이다.

규모는 작지만 이 행사는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돈독해진 한-터키 문화교류와 우호증진의 상징적 사례가 될만하다.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이후 동남아에는 한류바람이 다시 일고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한국의 대중문화와 음식 등이 인기를 끌고있다는 것이다.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이 2002 한일월드컵을 기념하여 마련한 ‘한국전통혼례 문화의 아름다움’전이 워싱턴에 이어 로스앤젤레스에서 순회 전시된 것도 한국 4강의 쾌거와 한국 이미지를 제고하는 문화행사의 하나이다. 한일 공동개최를 기념하여 국보급 문화재와 민속품을 교환한 전시행사도 양국간의 문화적 이해를 돕는데 큰 역할을 했다. 월드컵을 계기로 한 이같은 문화교류 행사에 힘입어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것도 성과로 꼽을만하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한국이 월드컵에서 거둔 성공의 열매를 세계에 알리기에는 미약하다. 월드컵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인했으며, 한국인의 잠재력을 발견했고, 세계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위치를 찾아냈다. ‘붉은 악마’와 ‘거리응원’으로 분출된 국민적 에너지에 우리 스스로 놀랐다. 서울 시청앞 광장을 꽃밭처럼 수놓은 선홍빛 물결은 위성을 타고 세계로 전해졌다. 역동적인 거리표정은 한국에 대한 인상을 밝게했다.



정 중 현
조선일보 논설위원

그뿐만아. 개막식 축제는 한국전통과 21세기 비전의 어울린 세련된 드라마라는 찬사를 받았다. 전통적인 오방색을 정제된 색감으로 대비시킨 전통문화에 IT강국의 이미지를 접목한 개막식은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한껏 고양시키는 역할을 했다. 88서울올림픽을 통해 한국은 우리의 문화역량을 내보였지만, 월드컵은 그때보다 더 강렬하고 역동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심은 것이다.

월드컵의 긍정적 성과중 하나는 한국이 문화발신국이 되었다는 점이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이미지와 우리문화를 해외에 발신하는데는 취약했다. 지난 반세기동안 해외에 각인된 한국의 이미지는 전쟁과 시위등 부정적인 측면이 강했다.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독창적인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찬스를 갖지 못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구면서 예전의 한국이 아닌 세계가 놀라는 한국의 이미지를 창조해냈다. 포스트월드컵의 첫 과제는 한국인의 폭발적 에너지를 어떻게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느냐가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적극적인 문화발신을 통해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스포츠 못지않은 한국의 문화예술과 관광자원을 세계화하는 일이다. 국가의 신인도를 높이고 문화예술의 독창성을 과시함으로써 한국의 상품을 세계에 팔 수 있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월드컵 정신을 살리는 길이다.

정부도 포스트월드컵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월드컵 4강 신화를 '경제 4강'으로 승화시키고 국가이미지를 꾸준히 향상시켜 나간다는 야심찬 기획이다. 문화국가 이미지 정착을 위해 문화콘텐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부산 아시안게임에도 '코리안 서포터스'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국가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월드컵 문화행사와 거리응원 문화 등을 담은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월드컵을 계기로 친근해진 국가들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확립한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지방의 세계화 및 선진시민의식 지향을 목표로 400억원을 투자해 세계적 특화단지 50곳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500만 해외 동포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가이미지 홍보침병으로 활용하고, 월드컵 개최도시별로 토론회를 열어 문화시민의식을 고취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포스트월드컵 문화운동에 나섰다. 문화연대는 세종로 문화광장 만들기, 문화교육 프로젝트, 축제프로젝트 등의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이번 월드컵에서 확인된 '놀이'에 대한 전



국민적 열정과 에너지를 사회적 자산으로 이끌어내자는 의도다. 산업자원부는 수출역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300개의 세계 일류화 제품을 발굴·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국가이미지가 향상될 지 의문이다. 정부가 '문화적인 국가이미지 향상과 문화예술의 세계화'란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할 종합문화정책을 마련해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 문화국가의 이미지를 심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국가경영에서부터 시민의식까지 문화적으로 성숙되려면 부단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는 축구에서 4강을 이뤘지만 경제는 아직 선진대열에 이르지 못했고, 사회 경쟁력도 약할뿐더러 문화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월드컵 정신을 살리는 길은 문화수신국에서 문화발신국으로 대전환하는 의지와 추진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우리의 문화예술을 세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스포츠의 박찬호 박세리 못지않게 한국이 낳은 예술인재들이 적지 않다. 비디오아티스트의 창시자 백남준을 비롯해 지휘자 정명훈, 바이얼리니스트 정경화 장영주, 첼리스트 장한나, 소프라노 조수미 신영옥 홍혜경 등 꼽자면 끝이 없다.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이들 예술가들을 포스트월드컵 문화서포터스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을까. 월드컵이 프로에서 뛰는 자국선수들이 모여 국가대표를 이루는 것처럼, 각기 전속이나 소속이 다른 한국 예술가들을 모아 국가가 문화전령으로 프로모션하자는 제안이다.

한국문화 발신은 다양한 통로가 필요하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월드컵 출전 32개국에 한국문화를 알리고 교류를 적극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세계 각 미술관과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백남준의 대표적인 비디오 작품을 수집해 개최국 수도에서 순회전시를 한다면 현지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정명훈 정경화 장영주 장한나 조수미 등을 우리가 프로모션하여 세계 각국에 선보이면 발신효과가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한다. 회화나 조각전시를 상대국 작가들과 함께 개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패키지로 엮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는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들이 출전 32개국 문화를 수신하는 방안이다. 문화란 우리것을 일방적으로 내보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호교류가 더 중요하다. 월드컵 개최도시들이 3~4개국을 맡아 그들의 문화예술을 초청하여 친근감을 높인 뒤 교류의 폭을 넓히면 양국의 우호관계가 증진되고 국가이미지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월드컵을 계기로 전세계에 한국의 상징으로 각인된 'Be the reds'를 문화상품의 고유 라벨로 삼자는 것이다. 공연예술이나 전시상품은 물론 패션·자동차·공예품 등에 부착하여 세계로 수출하면 우리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포스트월드컵 문화정책이 수립되어 월드컵 열기가 식기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월드컵 참여 열기 지역축제 정착방안

2002년 6월 전 세계 수 십억 인구의 시선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었다. 나는 한국월드컵조직위원회의 식전문화행사 기획과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자문에 참여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문화월드컵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그런데 정작 월드컵 경기가 시작되자 이러한 월드컵 문화행사들은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들이 삼삼오오 자발적으로 시작한 길거리 응원이 ‘월드컵 국민대축제’로 발전한 기적 같은 사건을 연출하고 말았다.

필자가 놀란 부분은 바로 <붉은 악마>를 필두로 한 우리 국민들의 정열적인 축제문화였다. 경기장에서,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의 광장에서 수백만 명이 “대~한민국, 짹 짹 짹”을 소리높이 외쳤다. 우리가 이겼을 때도, 아쉽게 비기거나 졌을 때도 모두가 “대~한민국”을 외쳤다. 그리고 먼 타국에서 온 선수들에게도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힘찬 응원의 함성을 보냈다. 우리는 그 함성과 함께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과 문화, 그리고 질서, 친절, 화합, 단결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 주었다.

‘대~한민국’은 빈부격차도, 성별과 지역적 차이도, 세대간의 이질감도 구애됨이 없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고, 자신감으로 가득찬 열정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번 월드컵의 여러 가지 성공 요인 중 하나였던 한국 월드컵 대표팀을 이끈 히딩크 감독의 모국이기도 한 네덜란드의 철학자 호이징가는 일찍이 그의 저서 <Homo Ludens(놀이하는 인간)>에서, “놀이는 특정한 시간 및 공간 속에서 수행되는 일상성을 벗어나 있는 것이며, 참여자의 특성은 자발적 참여와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자유로운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지난 월드컵 때 한국인들은 이러한 호이징가의 학술적 가설을 실증해 보였다.



이 원 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전국 방방곡곡서 “대~한민국, 짹 짹 짹”

그런데 문제는 축제(놀이)는 무한정 계속될 수 없고 종료와 함께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지만, ‘기억하는’ 존재인 인간은 그 감동을 되새기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2002 FIFA Korea-Japan World cup’을 통해 ‘대한민국’의 인지도도 높아진 만큼, 이제 우리는 내·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양질의 문화상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간 1000여 개가 넘는 지역축제는 그런 마당을 펼치기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축제문화의 개혁이다. 지난날 우리의 지역축제는 한결같이 일과성, 홍보성, 전시행정의 기준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요즘은 개최되는 대다수 지역축제도 아직

은 집안잔치 수준에 머물어 있고, 특히 지난 1981년 군사정부에 의해 100만평에 이르는 드넓은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된 ‘국풍(國風)’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통해 강요된 축제판의 모순과 놀이판에서 자발성의 중요성을 경험한 바 있다.

이번 월드컵 때 분출한 길거리 응원도 자발적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제대로 된 마당(명석)을 깔아주면 신명을 불태울 줄 아는 민족이다. 체면과 격식을 벗어던진 길거리 응원은 세대의 괴리를 뛰어넘어 남녀노소를 한마음으로 묶었다. 월드컵은 우리 사회의 체면과 형식, 격식도 파괴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대~한민국, 짹 짹 짹 짹” 박수를 쳤다.

오프사이드 규칙 모르는 여성도 월드컵 축제 주도

이번 월드컵 문화축제는 아마추어리즘의 승리였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축제는 세련미를 추구하는 전문적 예술행사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순박한 잔치인 만큼, 아마추어들의 잔치라는 점에서 월드컵 문화축제와 통한다. 그리고 청소년과 여성이 주축을 이룬 ‘월드컵 세대’의 특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하던 일도 명석 깔아주면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명석이 없으면 땅에 보자기라도 깔고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축구의 오프사이드 규칙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여성들 또한 이번 월드컵 문화축제의 실질적 주도자 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청소년들의 열정과 창의성, 여성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모성의 강인함과 섬세함이 어우러진 주변에 대한 배려는 수백만 명이 운집한 거리축제를 큰 사고 없이 소화해낸 힘의 원천이었다. 우리 조상들이 편가르기 민속놀이에서 인위적으로라도 여성과 미성년자로 이뤄진 편이 승리하도록 연출하여 풍요와 무사안녕을 기원하던 원리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인 것이다.

여성을 포함한 젊은이들은 자율적으로 길거리를 축제마당으로 만들고 질서를 지키며 어른들마저 끌어들었다. 그 놀이마당은 규격대로 만들고 의도적으로 동원한 축제마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젊은이와 여성들이 만든 무질서 속에서의 질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지역축제를 관이 주도한다는 고정관념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월드컵 문화축제는 시민들에게 ‘일탈’의 쾌감을 선물한 문화체험이었다.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정교한 시



시스템에 따라 생활하는 긴장된 삶을 살지만, 월드컵 문화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나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목청을 높였다. 따분한 일상과 생활의 고단함에서 벗어나는 상대한 축제판을 벌인 것이다. <베니스 카니발>이 그렇고 <리우 삼바축제>가 그렇다. 2002월드컵 문화축제도 바로 그러한 ‘시민축제’였다. 이러한 시민축제가말로 생동감이 넘치고 공동체에 일체감을 부여하며 자발적 참여를 통한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시민문화 육성하고 거리문화 활성화해야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역문화축제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자명해진다.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표출한 적극성과 열기를 어떻게 국가발전 동력으로 승화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하며 국가브랜드를 관리하는 데 힘써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실현가능성이나 효과성 검증도 되지 않은 허황된 ‘포스트 월드컵’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월드컵 성공요인을 벤치마킹해서 지역축제 하나라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학습효과를 거둬야 한다.

월드컵 문화축제가 증명해 보인 것처럼 민간자율 축제는 참으로 훌륭한 대안이다. 다만 발전적 민간자율과 방임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월드컵은 정부와 월드컵 조직위, 경찰 등 관계기관의 힘을 모아 축제를 열기 위한 공간조성, 교통소통, 안전유지와 같은 축제 인프라를 적극 제공하고 재정지원도 아끼지 않았던 점이 월드컵 성공의 큰 밑바탕이었다. 이처럼 관(官)은 축제판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관이 관리자의 역할을 방치하면 축제판은 성립되지 않는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축제관광 활성화와 관람객 수용태세의 획기적 개선도 중요한 문제다. 우리에게 광장이 부족한 만큼 1조 6000여억 원을 투입한 10개의 경기장을 축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만하다. 축제별로 기껏 수백에서 많아야 일천 명에 그치는 외래관광객 유치도 힘써야 한다. 월드컵 기간동안 외래방문객 50여만 명을 무리 없이 수용하여 관광소득을 창출한 경험은 앞으로 연간 1000만 명, 1500만 명으로 늘어날 외래관광객에 대처할 수 있는 큰 자산이다. 월드컵 4강 달성으로 촉발된 ‘한류열풍’을 활용하면 축제관광객 유치는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지역문화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발적 시민문화를 육성하고 거리문화를 활성화하며 이웃과 어울림의 축제를 만드는 등 광장에서 함께 모여 즐기면서 자생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축제문화의 창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할 교훈은 관제문화행사를 민간주도의 축제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지만, 민간주도의 지역문화축제라 하여 재정적 뒷받침이나 행정적 지원마저 포기하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축제의 성공을 위한 민간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문**

지역문화의 자생력과 경쟁력

지구촌 잔치라는 월드컵의 열기가 한반도 나아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다. 잔치는 끝나지 않았다는 듯 각계각층에서는 이번의 저력을 미래의 국력으로 연결시키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도 이른바 ‘포스트 월드컵’이란 이름으로 구체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 정책의 무게가 으레 그렇듯 ‘돈’ 즉 경제나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펼쳐지고 있고 정작 월드컵에서 보여준 민족의 저력을 장기적으로 현실화할 문화분야는 의외로 빈약해보인다. 그렇지만 늘 그랬듯 ‘돈 된다’는 분야가 반짝 떴다가 사일지도 모르지만 문화분야는 차분한 태도로 앞날을 준비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 ‘문화정책의 고갱이라는 지역 문화’(자크 랑)의 앞날을 월드컵 개최도시의 지역문화행사를 중심으로 돌아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종 수
대한매일 문화부 기자

월드컵 문화행사의 ‘화려함’과 ‘들러리’

월드컵 개최지역 문화행사는 두얼굴을 갖고 있었다. 그 하나가 ‘화려한 잔치상’. 문화관광부 집계에 따르면 월드컵 문화행사는 개막식 등 공식행사 이외에도 지역별 문화예술기관과 단체 주관으로 109건의 문화행사(중앙단위 23건, 개최 도시 83건)가 이뤄졌다. 또 10개 개최도시에 18개의 월드컵 플라자를 운영해 응원문화를 달구었고 우리의 전통·현대문화를 소개했다. 그곳에 IT체험관을 설치해 기술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돋을새김했다. 이들 행사는 단순히 집안 잔치에 그친 것이 아니다. 외국인 105만명을 비롯하여 모두 1960여만명의 관람객이 문화행사장을 찾았고 AP와 로이터 등의 통신사, CNN, 일본의 아사히 TV, 중국의 CCTV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의 취재열기도 동행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문화관광부는 이번 월드컵이 “우리 문화의 우수성 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용력 있는 한국의 문화역량을 세계에 발신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가 이미지를 한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이에 덧붙여 국가 내부적으로는 각 개최도시가 지역적 특화 이미지를 살린 문화행사를 적극 개발,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방문화 발전 역량이 한 차원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성과를 설명한다.

월드컵 기간 동안 전 국토가 잔치판이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중앙의 15개 문화예술기관·단체가 ‘조선시대 풍속전’ ‘남산골 사랑대축제’ 등 24개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10개 개최지역에선 '세계와 함께 하는 지방'이란 구호 아래 77개 문화 행사를 열었다. 특히 지역문화행사는 나름대로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수원시 경우는 '정조대왕 능행차' '화성 국제 연극제' 등 상설적으로 개최하던 대부분의 문화행사를 6월 한달 동안 몰아서 '문화 월드컵'이라는 깃발 아래 집중기획했다. 또 대구의 '약령시 인삼특별전', 대전의 무용극 '유성의 혼불'과 연극 '사육신 박팽년', 제주의 '이중섭 예술제', '자리돔축제' '해녀축제' 등 지역에 걸맞은 잔치상을 준비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과연 이번 행사들이 '문화 분권화'를 위한 자생력을 보여주었을까라는... 이는 단순히 월드컵 잔치상에 그치는게 아니라 일상적인 지역문화행사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둘. 지방-여전한 들러리(?)

월드컵이라는 큰 잔치를 통해 지역문화가 일시적으로 큰 활력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지역문화행사가 가져야 할 원칙에는 미흡한게 사실이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선 '지역문화'의 개념으로 에둘러 가보자.

'2001년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는 지역문화를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기반인 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생활환경과 생활양식을 개선해나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활동의 소산"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엔 지역문화가 그 지역에 공존하는 개인 혹은 집단이 이루어가는 인간 삶의 총체적 절정이며 이는 상호 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이 내포되었다. 당연히 이와 관련된 문화행사는 자발성·주체성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 답답해보인다.

사소하지만 세계적인 관심 끌 수 있는 것에 주목해야

먼저 행사 헤게모니를 노린 관료주의와 한탕을 염두에 둔 상업주의가 여전하다. 관 주도의 묶은 찌꺼기가 여실히 드러난 곳이 부산의 경우라 할 것이다. 5월17일 부산시와 시 주도의 관변단체(부산문화관광축제 조직위)가 월드컵 문화예술 행사를 몇몇 사람들의 일방적 결정으로 통과시키려다 예술인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아 물의를 일으켰다.

또 대다수 지역문화행사의 주체가 여전히 중앙에서 활동하는 인물이나 단체인 것도 걸림돌이다. 행사 주관 이벤트를 둘러싸고 보여준 대전지역의 갈등도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중앙의 이름있는 문화계 인사나 관련단체가 지역문화행사를 주관함으로써 주객이 뒤바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역이 들러리에 불과한 상태에서는 당장엔 세련되고 미끈하게 보일 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내 것'이라고 느낌을 주기 힘들 것이다.

이는 지역문화의 본질인 주민의 자발적 혹은 주체적 참여와도 맞물려 있다. 전시성 이벤트보다는 작지만 현지 대중과 밀착될 수 있는 잔치에 무게 중심을 두고 사소하지만 세계인의 마음을 움

직일 수 있는 것, 무엇보다 그 지역 문화의 참모습을 알리는 방법을 찾을 때 지역문화행사는 홀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객관적인 여건상 아직 지역문화계가 경쟁력을 갖추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이런 중앙 주도의 지역문화행사를 통해 지역 인사나 문화단체를 키우는 과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명실상부한 자발적 행사로 거듭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서울언론재단의 도움으로 2년 동안 ‘센스 나시오날’ (‘문화의 집’ 문화활성화 센터) 문화 발전센터’를 통합한 명칭)을 중심으로 프랑스 문화정책-지방분권화-를 연구할 기회가 있었다. 논문 주제와 관련 몇몇 지역축제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 역시 명망가 중심의 행사가 많았다. 하지만 능력있는 연출가나 극단을 초청할 때 그 지역에 1년 혹은 몇 달 동안 상주시키면서 지역주민의 정서를 작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점은 눈길을 끌었다.

프랑스는 타지 축제전문가 장기간 상주시키며 정서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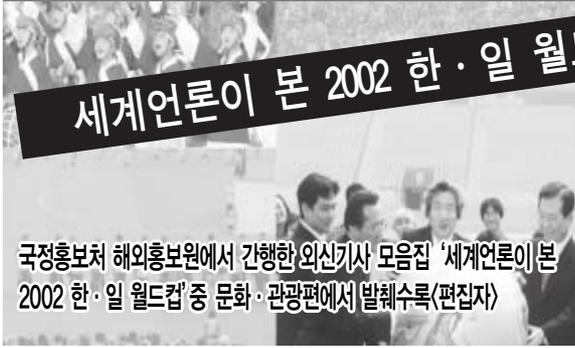
월드컵 잔치를 통해서 본 지역문화행사는 그 외양에 견주어 해결 과제가 더 많음을 보여준다. 조금은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그곳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잘 살린’ 문화행사를 만들 그날을 만들기에는 아직 우리 지역문화의 자생력은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지역의 역사나 전통을 제대로 반영한 행사가 여전히 적고 주민 개개인들이 참여해 삶의 활력을 얻는 ‘문화민주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더더욱 드문게 우리의 척박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 냉소적으로 표현하자면 월드컵에서 보여준 어떤 문화행사도 ‘대~한민국’으로 상징되는 신바람 난 응원축제 성과에는 못미친게 아닐까.

결국 월드컵이란 호기를 통해 잠재력은 확인했지만 이것을 현실적인 경쟁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정체성이 담긴 콘텐츠 개발, 전문 인력 확충 등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아울러 지역문화현장에서 술하게 제기해온 관 주도 지양, 지역 주민의 주체적인 행사참여, 지역 거주 문화활동가와 문화행정이 육성, 재정 확보 등 기본기를 다지는 문제도 남아있다.

월드컵이라는 단기적 호재로 지역문화행사가 일시적으로나마 독창성과 활력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꾸준히 세워가지 않으면 다시 변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 글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작성해본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지역문화를 지키는 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문**



세계언론이 본 2002 한·일 월드컵의 <문화·관광> 이모저모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에서 간행한 외신기사 모음집 '세계언론이 본 2002 한·일 월드컵' 중 문화·관광편에서 발췌(수록(편집자))

피곤한 여행자가 느낀 행복

미국 Washington Post, 6. 17, Liz Clarke & Steven Goff

한국인들은 따뜻하고 개방적이며 정이 많은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던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이들의 친절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다.

오전 10시, 전날 밤 지방에서 열린 월드컵을 취재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한 기사는 줄음 속에서 기자로 서울에 돌아와 호텔로 가기 위해 다시 지하철을 탔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가방을 들었다. 그녀는 복잡한 차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팔에 머리를 기대는 채 잠시 눈을 붙이려 했다.

그때 누군가 팔을 끌어당겼다. 나이가 든 한국 여성이 자신의 자리를 가리키며 기자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한국 여성은 영어를 못했지만 몸짓으로 의사를 표시했다. 사양하는 게 번거로운 것 같아 자리에 앉았다. 얼마 후 옆자리가 비어 기사는 한국 여성에게 앉기를 권했다. 그리곤 무릎 위에 백을 올려놓고 고개를 떨군 채 잠에 빠졌다.

얼마 후 그 여성의 손이 목에 닿는게 느껴졌다. 키가 작은 한국 여성이 목을 안마하고 있었다. 그 여성은 안마를 하기 좋도록 기사의 몸 각도를 바꾼 뒤 어깨와 등을 오르내리며 안마를 계속했다. 이 행복한 마사지에 대해 기자가 보답할 수 있는건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 것 뿐이었다. 그 여성은 이어 한국어로 자장가까지 부르면서 더욱 세계 마사지를 했다. 몇 정거장을 지난 후 그 여성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포옹을 하고는 차에서 내렸다.

●올림픽식 노력

수많은 스포츠 행사를 취재하지만 스포츠 기자들이 운동을 잘 하거나 체력이 좋은 건 아니다. 그러나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한국은 나름대로 그런 관념을 바꾸고 있다. 그들

은 88올림픽 때 건설한 스포츠 시설이나 수영장을 기자들에게 이용하도록 했다.

●계속되는 파티

세계의 관중들은 한국 전역에 설치된 옥외 스크린을 통해 한국팀 경기를 보는 거대한 군중을 목격했을 것이다. (최근 경기에서 223개 장소에서 280만명이 관전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 관중들은 경기가 끝난 뒤의 서울 거리(142만명이 운집했던)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보지 못했다.

한국이 포르투갈에 승리한 금요일 밤과 토요일 아침 팬들은 한밤중까지 축제를 벌였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던지 새벽 4시에 차를 타기 위해 줄을 선 방문자들은 1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시 관계자들은 한국-이탈리아 경기 때는 더 많은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화려한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미국 Los Angeles Times, 6. 6, Barbara Demick

월드컵 개최 도시중의 하나인 수원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자랑하고 있다.

수원시는 96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 확정 이후 선진문화 화장실 정착을 위해 4백만달러를 들여 화장실 개선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수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중화장실을 관광명소로 갖추게 되었으며, 관광가이드와 안내책자까지 준비되어 있다.

수원의 공중화장실은 산, 탑, 성, 축구공 등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비데가 갖추어져 있고, 음악이 흐르며 예술품들이 벽에 걸려있다. ‘화장실과 치가는 멀리 있을수록 좋다’는 한국의 속담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은 전통적으로 화장실을 중시하지 않았다.

심재덕 수원시장은 “화장실 개선사업은 일본에 대한 열등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제 수원은 화장실 문화에 있어서 선두주자다. 로마나 뉴욕, 로스앤젤레스에도 깨끗한 화장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낮게 하려한다. 우리는 세계에 화장실의 미래를 보여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첨단 화장실을 만드는 일 이외에 수원시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깨끗한 화장실 경진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규모가 큰 공중화장실 앞에서 음악회를 개최했다.

수원시장의 이러한 열정은 서울에까지 전해졌고, 서울에서도 월드컵을 계기로 지난해에 새로운 화장실을 만드는데 4백만달러를 소비했다. 또한 서울시는 화장실 문화를 위한 시민연대를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장은 지난해에 일본에 초청되어 화장실과 관련된 강연을 한 적도 있다. 올 가을에는 세계화장실기구(World Toilet Organization)의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일부 수원시민들은 수원시가 많은 돈을 화장실에 낭비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나 화장실 하청업자인 정성규씨는 좋은 화장실을 사용함으로써 기분이 좋아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한국의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살거리

캐나다 Globe & Mail, 6. 12, John Doyle

월드컵 대회 취재를 다니는 기자들 중에는 친절과 시설, 서비스면에서 어느 나라를 좋아하느냐에 따라 두 진영으로 갈라진다. 나는 물론 한국편이다.

개막식 취재로 한국을 다녀간 일본쪽 취재를 맡은 기자들은 한국쪽 취재 상황이 실망스럽다고 불평했다. 어디를 가야할지 어느 위치에서 서야할지 정확한 시간 등 취재에 필요한 노트가 불충분했다는 평가이다. 그 기자들이 개막식 이후에도 이곳 한국에 머물렀다면 상황은 달라져 한국이 일본 못지 않게 조직적으로 대회를 치러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을 것이다.

먼저 인천공항은 공간이 크고 유리 천장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오는 매우 쾌적한 공항이다. 서울시는 32개국에 참여하는 월드컵 대회 주최도시로서 곳곳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전세계 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택시 이용은 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대부분의 택시에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운전사와 손님 사이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전화로 손님의 모국어로 통역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걸어서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 또한 공중전화에서 1330 번호를 누르면 무료로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라면 일본을 떠올리지만 사실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일본 취재 후 나리타공항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한 기사는 택시 운전사의 통명스러움과 무심함 때문에 결국 비행기를 놓치는 낭패를 당했다.

한국의 호텔은 저렴한 가격(하루, 미화 120달러)에 서비스 만점이다. 호텔 종사원들은 친절하고 단정하다. 한번은 기사 메모가 들어있는 짐 가방을 공항버스에서 잊어버렸는데 호텔 직원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다.

서울은 회색빌딩 숲과 구름이 자욱한 회색의 도시라는 첫인상을 받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색깔을 볼 수 있다. 한강 다리들은 분홍색, 빨간색, 녹색 페인트로 외장을 갖추고 있고 결혼식이나 가족모임에 자주 등장하는 한복 입은 여자들의 모습은 만개한 꽃봉오리처럼 화사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음식을 자랑스러워한다. 특히 김치는 야채가 귀한 겨울을 위해 발효시키는 배추로서 한국의 식탁에 늘 등장한다. 종류도 무김치, 오이김치, 배추김치 등 다양하다. 등심구이는 바비큐 소고기로 소금과 참기름에 찍어먹는 맛이 별미이다. 채식주의자들에게는 썸밥 정식이 권할만하다.

서울은 6백년 동안 한국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였기에 전통적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짧은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꼭 가봐야 할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선릉역 주변 중요무형문화재 훈련소로 도자기 굽기, 실 짜기, 그림 등을 훈련받는 곳이다. 다른 하나는 덕수궁과 창덕궁 사이에서 벌어지는 왕실경비대 교대식으로 13세기 조선시대 왕실 경비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은 쇼핑으로 관광객들을 즐겁게 한다. 공항에서 받은 쿠폰 책자에는 다양한 쇼핑물과 특별한인상들이 소개돼 있다. 옥외 시장에서도 남녀 옷을 파는 데 질 좋은 서드한 장을 미화 8달러에 구입할 수 있었다.

맛있는 음식, 친절할 사람들, 환상적인 쇼핑 등 이런 것들을 대도시에서 누릴 수 있다니 놀랍다.

혼을 가진 도시 서울

캐나다 Montreal Gazette, 6. 8, Tanya Churchmuck

“아시아의 중심지, 역동적인 한국을 방문하세요”라는 조급은 어색한 표어가 서울 곳곳에 붙어있다. 이 표어는 비록 뉴욕이나 말레이시아와 같이 매혹적이지는 않지만 한국이, 서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은 아시아의 담백한 매력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이다.

타이의 이국적인 매력과 중국의 흥밋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국은 서방 세계 관광객들에게 외면 당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 달 전세계로부터 몰려오는 4만 여명의 관광객들에게 월드컵 개최국으로서의 확실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축구 경기장 주변의 꽃들, 영어와 한국어로 된 거리의 표지판들, 무료 통역기를 갖춘 택시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공항 중 하나인 인천공항을 갖추고 있다. 사실 서울은 이런 다소 지나칠 정도의 준비가 아니더라도 도시 자체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5천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분주한 거리에 다양한 먹거리와 쇼핑 공간을 갖추고 있고 어디서든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친절한 시민들이 있다.

처음 서울을 찾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어려움은 주소를 찾는 일이지만 대표적인 관광거리나 쇼핑 지역을 찾기는 훨씬 간단하다. 모든 지도에 주변 지하철역이 표시되어 있으며 길을 잃었을 경우라도 지도에서 목적지를 보여주면 한국인들은 항상 친절하게 방향을 가르쳐줄 것이다.

서울은 비록 수많은 대형건물들이 뻗뻗하게 들어찬 복잡한 도시지만 관광할만한 문화적 명소들이 많다. 대표적인 관광지는 서울의 고궁들이다. 비록 일본 침략기간동안 일부 고궁들이 훼손됐지만 여전히 서울 도심 곳곳에서 고궁들을 찾을 수 있다. 가장 인상적인 곳은 경복궁과 창덕궁으로 이곳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왕실 가족이 살았다고 한다.

박물관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탁월하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오랜 문화 역사를 엿볼 수 있다. 전쟁기념관은 3천년 전 내전부터 베트남전과 걸프전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의 평화유지 노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관광지는 판문점으로 북한과 국경선을 바로 하고 있는 곳으로 유일하게 방문이 허락되는 비무장지대이

다. 비록 1953년 휴전이 실시됐지만 국경선 주위의 긴장된 분위기는 생생히 전달된다. 미군 부대 주변의 이태원 시장에서는 값싼 셔츠에서 명품 디자이너 복제 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인사동은 편안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미술관, 골동품가게, 전통공예품을 파는 거리 판매대, 전통차집이 많다. 일요일 저녁에는 인사동 거리 전역에 차량이 통제돼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로 볼거리와 먹거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물론 서울에서 서양식 패스트푸드점을 찾는다는 아무 불편이 없다. 그렇다고 그곳에 들어간다면 김치와 갈비 등의 수많은 한국음식을 시도해볼 기회를 놓치는 아쉬운 일이다.

무뚝뚝한 택시운전자들도 미소로 손님맞이

독일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5. 31, 44면, A. Schnepfen

아주 오래 전에 첫 서양인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전혀 환영을 받지 못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서양인들은 침입자라는 의혹의 시선을 받았으며,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내(城內)에 정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한국은 일백여년 전에서야 고종 황제가 선교사들, 사업가들, 공사들로 하여금 특정한 구역에 토지를 획득하는 것을 허용했다. ‘은둔의 나라’ 한국은 서서히 문호를 개방했다.

2002년 여름, 서울의 모든 택시들은 유리창에 스티커를 부착하고서 외국인들을 환영하고 있으며, 고층건물들은 거대한 환영 플래카드를 내걸고 지구촌의 손님들을 맞고 있다. 주택들은 새롭게 단장을 했고, 보도블럭들은 깨끗이 청소되었으며 화단에는 새로운 꽃들이 심어졌다. 불친절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택시 운전자들도 미소로 손님들을 맞으며, 보통은 접근하기 어려운 경찰관들도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준다. 안내요원들은 여러 특수 교육과정을 통해 몰려오는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갖추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철자법을 간소하게 발음 위주로 개편하는 조치도 이루어져 제주는 Cheju에서 Jeju로 부산은 Pusan에서 Busan으로 바뀌었다.

한국이 전 세계를 맞이하고 있으며, 세계인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번 월드컵 대회에 수도권 동경이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결승전은 동경에서가 아니라 요코하마경기장에서 열린다. 반면 한국에서는 1천만 인구가 사는 수도 서울에서 5월31일(금) 개막식이 열릴 뿐 아니라 프랑스와 세네갈간의 개막전이 벌어진다. 프랑스는 자국에서 개최된 4년전의 월드컵에서 우승까지 했다. 한국인들은 자국팀이 개최국으로서의 성원에 힘입어 한 경기라도 우승을 거둬 훌륭한 인상을 남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오늘날까지 공공 장소들과 심지어 담뱃갑에도 남아 있듯이 2002년 월드컵대회는 한국인들의 의식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서울 월드컵경기장 앞의 '월드컵평화공원'에서는 이미 5월30일(목) 저녁에 2002명의 음악인이 출연한 전야제 축제가 있었다.

서울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나라 한국의 거대한 심장부에 해당하는 수도로서 대기 오염, 혼잡한 교통, 다소 단조로운 형태의 건축물 등 아시아 지역의 모든 대도시들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 한강변의 이 대도시에는 한국민의 1/4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아들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다. 제주도에서도 이번 월드컵 대회 경기가 치러지는데, 6월 8일 브라질이 월드컵에 첫 출전한 중국과 경기를 갖는다. 그러나 일단은 모든 길을 서울로 통한다. 한국의 수도 서울은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 대폭 부상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입주한 현대적인 유리 건물들과 주로 한국의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10차선 도로에도 불구하고 서울에는 과거 흔락으로서의 흔적, 붉은 벽돌집, 활기있는 상인들, 구불구불한 골목길 등의 정취도 남아 있다. 강폭이 넓은 한강이 서울을 관류하고 있으며, 한강 위에는 콘크리트 교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월드컵을 하루 앞둔 5월30일(목)에는 '평화사절단'을 태운 한강유람선 '평화호'가 1988년 올림픽 주경기장이 위치한 잠실선착장을 출발해 2002년월드컵경기장에까지 이르는 한강의 상징적 뱃길을 달렸다.

한강이 이번 지구촌 축제의 무대로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양편의 넓은 강변에서는 6월중에 매주 토요일마다 불꽃놀이가 벌어진다. 한강은 한국인들에게 동서로 흐

르는 500여킬로 미터 강물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한강은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호랑이 국가'로의 급속한 부상,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한국의 맨하탄으로 불리우며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 고층건물로의 도약을 상징하는 강이다. 이번 전야제 문화프로그램에는 본선 참가국 32개국중 11개 국가의 음악인들과 무용인들이 참가했다. 물론 공식 개막 축하공연은 5월31일(금) 저녁 개막전이 시작되기 45분전에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시작된다.

한국은 전 세계에 자국의 진정한 모습, 즉 5천년의 전통과 역사를 지닌 나라이자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하이테크의 나라로서의 모습을 소개하려고 한다. 2,300명의 예술인들이 벌이게 될 개막 축하공연의 주제는 '동방(東方)으로부터'이다. 한국의 손진척 예술감독은 이번 개막식 축제를 통해 '소통을 통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평화에의 염원은 분단국 한국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한국은 공산주의 북한과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정전상태에 있다. 정보통신은 한국이 자국의 현대성을 입증해보일 수 있는 경제분야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어린이들이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지구촌 축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 5월31일(금) 600여개의 학교가 휴교한다.

월드컵 대회가 벌어지는 4주간은 일상적인 삶이 다소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장마차들은 현대적인 산업국가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영업을 자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월드컵 대회를 맞아 공동으로 전세계의 손님을 맞지만, 5월31일(금)에는 서울이 무대의 중심에서 있다.

쓰레기 매립지가 월드컵경기장으로 변모

독일 Sächsische Zeitung, 5. 30, WM 11면, M. Rothe

한국의 수도 서울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구경기장의 하나가 전세계의 축구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 월드컵 스타디움은 과거 쓰레기매립지였던 지역에 조성된 경기장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앞에서의 광경은 과거 모스크바 레닌 묘소를 방문하는 참배객들의 행렬을 상기시켜준다. 남녀노

소를 막론하고 수천명의 한국인들이 이날 5월의 일요일을 맞아 찾은 목적지는 바로 서울월드컵스타디움이었다. 스타디움에 이르는 10차선의 도로는 몰려드는 차량들로 상당한 정체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개막전에서의 교통혼잡을 우려케하는 것이다. 경찰들이 질서유지에 적극 나서고 있었으나 교통 통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한국에서는 월드컵 대회 기간 중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가 실시된다. 즉 홀수일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의 운행을 허용하는 '차량2부제'가 그것이다.

보다 현명한 방법은 시내에서 7킬로 거리에 있는 이 구간을 지하철로 이용하는 것이다. 262개 지하철역에서 스타디움 지하철역까지 전철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 관광안내원인 신길순씨는 "이것은 세계에서 유일한 것으로 한국인들은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신길순씨는 외국인들에게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한국의 축구팬들의 새로운 성지(聖地)인 서울월드컵스타디움을 기꺼이 보여주고자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축구가 야구의 인기를 추월했다고 한다. 서울월드컵스타디움에서는 프랑스-세네갈간의 개막전 외에 조별경기 한 경기와 준결승전 한경기가 벌어진다.

난지도 구역에 있는 상암동이 과거 1천만 인구의 서울시의 쓰레기매립지였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두 개의 거대한 쓰레기매립장이 있던 곳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구경기장의 하나인 서울 월드컵스타디움이 건설되었고 주변의 생태환경을 복원시켜 '밀레니엄공원'이 조성되었다. 최고수준의 걸작품이라는 찬사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닌데, 5개의 '테마파크'로 이루어진 이 밀레니엄공원의 부지는 3,500평방킬로로 드레스덴 시면적의 11배에 이른다.

●전통과 하이테크의 만남

스타디움 자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도르트문트 경기장, 살체경기장 또는 함부르크경기장의 우수한 시설을 자랑하는 독일의 완벽주의자들도 서울월드컵스타디움의 우월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건축가들은 '전통과 하이테크의 만남'을 거론하는데, 서울월드컵스타디움은 바로 한국적인 생활 감정을 담고 있다. 용의 형상을 상기시켜주는 지붕은 평화의 통일에의 염원을 표현해주며, 경기장을 떠

받치는 기둥들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의 상징인 황포돛배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다. 스타디움은 팔각모반을 겹쳐 놓은 거대한 전통 소반(小盤)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손님들에 대한 환대와 친절을 상징하는 것이다. 근교에 위치한 환경친화적 발전소는 밤이면 스타디움을 거대한 빛의 바다로 변화시킨다. 하여튼 환경보호라는 구상이 크게 실현되어 에너지 절약을 가능케하는 재료들과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들이 사용되었다. 샤워실과 수영장에서 사용된 물들은 다시 여과장치를 거쳐 화장실과 공원의 관개에 재활용되는데, 이 공원에서는 세계 최대의 높이를 자랑하는 202미터의 월드컵 분수를 비롯한 21개의 분수도 있다.

아시아 최대의 축구전용경기장인 서울월드컵스타디움은 1억5,400만 유로의 저렴한 비용을 투입해 3년에 걸쳐 건설되었다. 경기장을 건설한 인사들은 '순전히 한국적인 건축물'이라고 자랑한다. 다만 잔디는 켄터키 블루 잔디로 미국에서 수입한 것이다. 6만5천석 규모의 관중석에는 개폐식의자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90%는 위쪽이 가려져 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경기장보다도 편하게 관중들이 다리를 펼 수 있도록 공간적 여유가 있다. 한편 관중석 가장 앞자리는 사이드라인에서 11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선수들의 숨결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이며, 가장 뒷자리에서도 선수들이 소리치는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다.

경기장내 음향 장치도 유일무이한 것이다. 328개의 디지털 스피커들이 설치되어 마치 음향 연주장에서의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250평방미터 크기의 대형모니터에는 성악가 파바로티 등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나타난다. 또한 관중석과 그라운드(105미터×68미터 크기) 사이에는 눈에 잘 띄지는 않으나 3미터 넓이의 도랑과 벽이 설치되어 흘리건들이 그라운드에서 난동을 부릴 기회가 없다.

●8분만에 스타디움 소개(疏開)가 가능

경기장 방문객들은 평온하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앞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아무도 위급한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다. 안내인 신길순씨는 "만약 위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모든 관중들은 8분만에 102개의 출구를 통해 경기장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기장에는 가족단위로 나들이를 온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한국인

들은 지구촌의 축구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 경기장을 관람하고 싶어하는 듯한다. 월드컵 경기가 시작 되면 경기장 관람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은데, 입장료만 해도 65유로에서 550유로에 이른다.

서울월드컵스타디움에 대한 감동은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풍수전문가들도 경기장의 형태와 채색 작업이 극동의 전통적 조화이론에 맞게 훌륭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풍수적인 면에서도 이제 5월 31일 프랑스와 세네갈간의 개막전 경기를 위한 완벽한 환경이 구비되어 있는 만큼 이번 월드컵의 개막전 경기는 이전 월드컵들에서와 같이 0:0 무승부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아름다운 나라, 한국

독일 B.Z am Sonntag, 6. 2, Marita Persian

안녕, 코리아!

한국(대한민국)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자 친절할 국민성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넓은 평야와 끝없는 해변 그리고 위풍당당한 산맥이 이어져있는 나라이다. 아울러 조용한 사찰들, 석탑들, 고독한 정자들이 들어서 있는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나라이다. 이외에도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무궁무진한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

방문객들은 예를 들어 현대적인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인구 1,200만의 수도 서울은 결코 잡들지 않는 활력이 넘치는 도시이다. 유럽의 방문객들은 밤늦게까지 교통경찰들이 시내의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서울에서는 차량들이 하루 24시간 활발하게 오간다.

서울은 속도감이 있는 도시이다. 사람들은 활기찬 걸음으로 지하철로 향하고, 도처에서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며, 하루 24시간 문을 여는 가게들도 많다. 또한 한국은 전자제품팬들의 천국이기도 하다. 용산 전자상가에는 2,7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최신 소프트웨어에서부터 게임보이에 이르기까지 첨단 하이테크 제품들이 판매된다. 남대문 시장도 아주 활기 있는 시장으로 어물(魚物)에서 티셔츠, 시계, 약품 등 온갖 물건들이 거래된다. 서울은 전통과 현대의 대비가 분명한 도시이다. 네온의 세계와 전

통이 공존한다. 특히 시청역을 주변으로 많은 역사적인 볼거리들이 있다. 이곳에서 도보로 30분만 걸어가면 1394년 조선조에 건축된 경복궁과 같은 과거의 문화적 유산을 즐길 수 있다. 또 시청 근교의 덕수궁도 관심을 끄는 문화유산인데, 덕수궁에는 현대미술관이 자리잡고 있다. 남산도 반드시 보아야 할 관광코스로서 남산 정상에 있는 300미터 높이의 TV송신탑에서는 서울의 전경을 즐길 수 있다.

한국인들은 자연 친화적인 국민이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자연에서 연원했고 자연으로 회귀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을 즐겨 찾는다. 남해안의 섬들에서는 야성의 모습을 간직한 해변들을 볼 수 있다. 인삼의 도시 금산도 방문할 만하다. 9월에는 이곳에서 인삼축제가 개최되는데, 인삼을 활용해서 만든 모든 제품들이 선보인다.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즉 전통 식당에 들어가거나 가정집 또는 사찰을 방문할 경우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 강남, 강북

프랑스 Le Figaro, 5. 29, Eric Lecourt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국제무역센터와 전시장은 주변 호텔, 사무실, 상가 건물과 어울려, 한국 수도 서울의 역동성을 잘 보여주는 장소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서울의 길들, 넓은 보도들... 특히 테헤란로는 파리의 라테팡스 심장부로 통하는 다섯 번째 도로의 모습과 비슷하다. 올림픽 경기장에서 강남역에 이르는, 서울의 '실리콘 벨리'에 해당되는 이 곳은 매우 전략적인 가치를 가진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은 또한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신흥상가지역이다.

15년 전만 해도, 한강 이남 지역은 볼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1988년 열린 하계올림픽 이후 서울의 강남은 그 모습을 바꾸게 된다. 오늘날 1천2백만 주민(전 인구의 1/4)이 살고 있는 한국의 수도 서울의 강남 지역은 올림픽 이후로 계속 발전해 왔다. 서울의 오렌지족 젊은이들은 강남역 주변과 특히 압구정역을 중심으로 서울의 강남에서 안락함을 느끼는 것 같다. 특히 압구정역 주변에는 식당, 디스코텍, 유명 메이커(루이 뷔통, 미소니, 구치, 베르사체)를 취급하는 상점들이 목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서울

사람들이 한껏 멋을 내고 다니는 곳이다.

폐쇄적이었던 한국이 단기간 내에 얼마나 세계화가 되었는지를 실감하려면 서울에서 이곳을 빠져려서는 안 될 것이다. 동·서양의 문화가 이 지역의 (유리철골) 고층빌딩과 아름다운 빌라들 사이에서 서로 교차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각국의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는 경향이 월드컵 개최로 인해 더욱 강해졌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반면 서울의 강남에 비해 강북 지역은 전통을 더 중시한다. 수많은 빌딩 사이로 박물관, 궁궐, 전통재래시장이 자리잡고 있고, 골동품 상점과 화랑이 밀집한 인사동과 대통령궁인 청와대가 위치해 있다. 강북과 강남을 오고가기 위해서는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약 20여 개의 다리는 밤낮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은 여러 곳에 터널을 뚫고, 강변도로, 6차선 고속도로 등을 만들고 가변차선제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인데, 지하철과 연결된 지하통로에는 각종 상가가 형성돼 있고, 이곳은 특히 유사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대피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강남, 강북 양안에서 서울 시민들은 각 지역을 중심으로 특색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 서울의 신흥 상가지역에도 노점상인들이 제일 먼저 이러한 독특한 거리 풍경을 만들어냈다. 서울에서는 공중목욕탕이 도처에서 활발히 영업중이다. 목욕탕에는 '그릇에서 김이 올라오는 모양'의 표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서구인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남탕과 여탕이 구별돼 있고, 손님들은 원할 경우 때밀이 서비스와 마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극동식 터키탕'이다. 몇 유로만 갖고도 목욕탕에서 이런 훌륭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빙글빙글 도는 이발소 표지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발소 마사지는 훨씬 더 에로틱하다고.

붉은 악마 성숙된 관전

일본 아사히, 6. 13, 조간, 8면

위성사진으로 10일의 한국을 찍었다면 국가 전체가 빨강

게 보였을 것이다. 월드컵축구대회의 대미국전, 한국에 있어서는 1차리그 돌파의 시합이었던 점과 함께 상대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응원에 특별한 기운이 들어있었다.

한국인의 대미관(對美觀)은 매우 복잡하다. 동맹국인 한편 민주화가 추진 될 수록 미국에 대한 비난도 강해진다. 지난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는 한국선수가 실격, 미국의 오노선수에게 금메달을 내주었다. "내가 오노냐"는 지금 상대를 비난하는 가장 심한 말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제를 호소, 경찰은 엄중경계태세를 펼쳤다. 허버드 주한미국대사는 "차라리 미국이 지는 편이 낫다"고 농담조로 말했다고 전해졌으며, 서울의 인터내셔널 스퀘어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오전에 수업을 끝마쳤다고 한다. 결국 무승부. 큰 혼란은 없었으며 시합이 있었던 대구에서는 시합 후 한미 응원단이 서로 겨안는 모습도 여기저기에서 보였다. '붉은 악마'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한국 응원단은 차분했다.

공동개최는 발굴해 낸 것

일본 아사히, 6. 5, 조간, 35면

한국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다. "호텔이 없다"고 말하자 안내하는 여성이 열심히 전화를 걸어 주었다. "버스 정류장은 어디인가"를 물으면 중년 남성이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다. 광주에서 겨우 찾아 낸 호텔은 1박에 5만원이라고 들었는데도 여주인은 "그만큼이나 필요 없다"로 한다.

지하철을 타면 젊은 중년 남성에게 곧 자리를 양보해 준다. 거절하려고 해도 이쪽은 한국어를 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 노인으로 보여지는 것은 애석하지만 친절함에는 머리가 숙여진다.

며칠 간의 체재로 나는 한국이 완전히 좋아졌다. 공동개최는 훌륭한 "발굴품"이었다. 지금까지의 월드컵축구대회 이상으로 쾌적한 취재가 가능할 듯 하다.

대회운영, 한국의 웃음을 본받자

도쿄, 6. 19, 석간, 3면

외국에서 온 취재진의 말을 들으면 일본의 월드컵대회

운영에 대한 평판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한국 쪽이 좋았다”는 말을 많은 일본취재진으로부터 들었다. “우선 친절해 느낌이 좋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각 경기장이나 혹은 거리에서 사람들이 대단히 친절한 것은 나도 느꼈다. 공통점은 ‘웃는 얼굴’이다. 경기장 주변에서 길을 물을 때, 미디어 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때, 한국사람들은 우선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자원봉사자는 물론 경비회사 사람들이나 경찰까지 웃는 얼굴로 대했다.

한편 일본의 경기장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운영 스태프는 직무에 충실한 탓인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는 중요한 기본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생각될 때가 있다. 어느 카메라맨은 “보도진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것도 안돼, 저것도 안돼. 그 금지사항을 위반하지 않는지 항상 감시하고 있다. 기분 나쁘다”고 불만을 말한다.

내 인상으로는 일본에서도 자원봉사자는 대부분 친절하며 느낌도 좋다. 그러나 경비스태프등의 사람들은 “관객들에게 도움이 되어야지”하는 의식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된다. 자신들이 월드컵이라는 축제의 ‘주인’이라는 인식과 이 축제를 즐기게 하자라는 의식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으로의 월드컵 축구 관광

중국 북경신보, 5. 21, 25면, 依寧

월드컵·축구가 곧 시작된다. 10일 후면 전 세계의 수많은 축구팬들이 걱정을 불태울 수 있는 한 달을 맞게 된다. 중국은 처음으로 월드컵 축구 본선에서 자국팀을 위해 환호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3만여명의 중국 축구팬들이 한국 경기장으로 가서 환호하며 관전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 : 한국에서의 첫 체험

서울은 국제화도시로, 설악산에서 발원한 한강이 서울시를 두 개로 나누고 있으며, 20여개의 교량이 강남과 강북을 잇는 구조로, 중국의 상해시와 비슷하다.

월드컵 개막전의 서울은 생각했던 것만큼 분주하지는 않았다. 총명한 한국인들은 개막식이 거행될 도시 곳곳을 오

색깃발로 장식하지는 않았다.

축구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화려한 느낌을 주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육상 트랙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축구장은 아시아에서 제일 큰 전용축구장으로, 64,677개의 좌석을 구비하고 있다.

축구장 외에도 서울에서 가볼 만한 곳은 많다. 디즈니랜드와 같은 흥분을 자아내는 롯데월드와 에버랜드가 있고, 쇼핑지로서는 남대문과 동대문이 있으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경복궁 및 청와대 등등 가볼만한 곳이 많다. 한국은 월드컵을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으며, 한국의 명승고적지에서는 이들 자원봉사자들의 중문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광주 : “예술의 고향”에서의 축구 큰 잔치

광주월드컵 경기장은 중국의 첫 번째 경기인 코스타리카와의 경기가 열리는 곳으로, 수많은 중국 축구팬들의 눈빛이 4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쏠리게 된다. 푸른잔디와 산으로 둘러싸인 축구장에 앉아 중국팀이 첫 번째로 세계무대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고, 또 만약 여기에 오랫동안 기대해오던 중국팀의 승리가 있다면 이는 얼마나 아름답고도 절묘한 순간이 되겠는가?

광주의 관광자원은 풍부한 편은 아니지만, ‘예술의 고향’이란 명성에 어울리게 조선시대에는 ‘가사문화’를 창도했으며, 많은 명인의 옛 고가가 여기에 있다. 광주는 월드컵 관련 중문 홍보물이 이들 3개 도시중 가장 많은 곳이고, 손님맞이를 좋아하는 광주는 중국 축구팬들을 위해 많은 민박시설을 마련해두고 있다.

●서귀포

제주도는 한반도 남쪽의 작은 섬으로 최근 몇 년간 중국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중국의 많은 도시들이 제주도 직항로를 개설했다. 특히 중국의 북방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는 것은 중국 해남도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가까우며, 경비도 비슷하게 든다.

제주도 서귀포경기장은 해변에 세워져 있으며, 경기장 설계가 상당히 독특한데, 지하 2층과 지상 4층으로 구분된다. 특히 지하 14m에 세워진 경기장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고향이

좋다

난계 박연 선생의 고향 '영동'

강민철 domingo@cultureplus.com

'감고을' 영동. 가을엔 영동으로 떠나보자. 오랜만에 시골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산간 오지를 배경으로 외할머니와 손주간의 애정을 담은 이정향 감독의 영화 '집으로'도 여기서 크랭크 인 됐다. 부산행 기차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탐스럽게 주황색 감들이 자락자락 열려 있는 가로수를 만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한서의 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에다 충청북도에서 가장 따뜻하고 일조량이 많아 감



말고도 포도와 호도, 사과, 배가 유명해 일명 '과일 나라'라 불린다. 특히, 6만 인구가 살고 있는 소도시인 영동은 뫼니뫼니해도 난계 박연 선생(1378~1458)의 탄생지로도 유명하다. 박연은 왕산악·우륵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손꼽힌다. 매년 9월에는 영동군 일원에서 난계 국악축제가 성황리에 펼쳐진다. 올해에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린다. 최근에는 난계 국악박물관과 함께 국악기 제작촌도 만들어져 세계적인 국악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임추가 10여일 지난 날 영동으로 내려가 문화의 텃밭을 일구고 있는 영동문화원과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을 둘러봤다.



영동문화원

문화의집에 첨단시설 구비... 시조창등 5개 문화강좌 열어 영동문화원

올해 개원 40주년을 맞은 영동문화원은 양질의 문화 정보와 대민 서비스로 지역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는 문화원중 하나다. 지난 2000년 지상2층 지하1층 규모로 신축된 원사에는 문화원과 문화의집이 함께 있어 문화원의 '콘텐츠'와 문화의집의 '시스템'이 요철(凹凸)처럼 보완되고 있다. 문화원을 방문했을 때 사무국이 들어있는 1층은 한산했지만 옆으로 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자 각 방에서는 '문화공부'가 한창이었다.

문화사랑방에는 60대 이상이 되어 보이는 몇몇 노인들이 시조창을 읊고 있었으며 또 다른 방에서는 서예반 수강생들이 지도교사의 도움아래 하얀 화선지에다 힘차게 획을 내리치고 있었다. 무용반에서는 중년 여성들이 유

연하게 몸을 놀리며 이달 말에 열리는 난계국악축제에 선보일 춤사위를 한창 연습하고 있었다. 가정집으로 치면 거실이라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룸'에는 초등학생들이 책을 고르거나 컴퓨터 게임에 푹 빠져 있었다.

영동문화원은 서예, 합창, 시조창, 국악, 무용등 문화학교 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시조창인 경우 지방문화원 가운데서는 흔치 않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노인들에게 취미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경로대학 운영과 함께 정보자료실, 열린도서실, CD·비디오 인터넷 부스를 이용한 다양한 장르의 문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영동문화원은 문화원 본연의 사업과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문화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이라는 공간을 통

인터뷰

김 석 열 영동문화원장

김원장은 소탈한 성격이면서도 문화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국고·지방비등 자금을 모아 2000년 9월에 개관한 원사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로 소감을 말했다.

“지난해 지방문화원장 해외 연수차 방문한 일본의 공민관은 솔직히 저로 하여금 부러움이 들게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부러울 게 없었는데 공연장이나 전시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객석이 2백석이면 무대에도 2백명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공연 중심의 공간'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공연장이라고 하는 공간들이 모두 '새마을교육장'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일찍 해외 문화 환경에 대한 견문을 넓힐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공연장을 짓자고 목소리를 높였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군요”

김 원장은 “문화의 혜택을 끌고 루 향유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꽃꽂이를, 꽃꽂이를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과 연관되다 보니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대학과 협력해 지역문화발전 모색할 터



김석열 영동문화원장(가운데)

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원장은 영화를 한 예로 들었다. “변듯한 영화관 하나 없어 영화 한편 볼려면 광주나 대전으로 나가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올해 초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뉴욕의 가을’ ‘아름다운 비행’ ‘AI’ ‘타이타닉’ 등 명화를 엄선해 중고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도시인들은 문화를 선별해 찾아볼 수 있으나 농촌이나 소도시는 그럴만한 기반이 되어있지 않아 일방적·일률적으로라도 문화

를 공급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에 대한 식견과 확신을 가진 담당 공무원들의 얘기가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의 분위기가 쇄신돼야 합니다. 또 문화원 하면 으레 향토사·전통문화쪽으로 흐르는게 당연시되고 있는데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문화적 욕구도 수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70~80년대 까지만 해도 사실 먹고 사는게 중요해 자신의 취미나 꿈을 한쪽으로 밀어놓는 경우가 많았었지만 지금은 문화이나 꽃꽂이등 학창시절에 못했던 것들을 나이가

들어서도 이루려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이런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희 문화원에서 열리고 있는 시조창 등 5개 강좌는 문화원이 아니면 배울데없는 소중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대중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문화원이 폭넓은 시민들의 욕구를 수용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의 발상 전환과 함께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절실합니다”

이같은 지역문화 발전의 일환으로 김원장은 “2~3년전 부터 지역 소재 대학과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원장은 “그러나 아직 서로의 역할이나 방법등 구체적인 플랜을 짜지는 못했다”며 “앞으로 대학과 논의해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차근차근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화원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변단체가 한시적인 목적이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데 반해 지방문화원은 영속적으로 우리문화를 후대에 전하는 특별법상의 단체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에 대한 중요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무용강좌 모습



서예강좌 모습



시조창강좌 모습

해 실현해 나가고 있다.

현재 영동문화의 집이 보유한 자료는 문화관련 도서 1천5백여권과 비디오 7백여편, CD 3백여개, VCD 30여개등으로 적잖다. 이용자수도 상당하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연인원 2만 6천9백56명이 다녀갔다. 한달에 연 3천~4천명이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셈이다. ‘인터넷·CD·비디오·도서부스’를 시작으로 ‘문화관람실’ ‘전시실 및 다목적실’ ‘개인연습실’ ‘문화사랑방’ ‘문화창작실’ 순으로 이용률이 높다.

이같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영동문화원은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6만 영동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기 위해 달집태우기등 매년 다채로운 정월대보름 행사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토지 발간, 학생백일장 개최, 영동향토사진전시회, 허수아비만들기 경연대회, 김수은 시비·박아룡장군 공적비 건립등 다양

인터뷰

손문주 영동군수

요즘 시군에 ‘유리문’ 바람이 불고 있다. 군수실과 부군수실 문을 모두 유리로 만드는 것.

손문주 영동군수(65) 역시 취임하자마자 문부터 새롭게 다는 변화를 시도했다. 여느 유리문과 다를 게 없지만 ‘열린 행정, 공개 행정’을 표방하는 뜻을 담고 있는 문이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환한 표정으로 맞이해주었다.

-간혹 영동 하면 강원도 영동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적잖은데 지방의 경쟁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일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기예보에서 종종 ‘영동지방을 비롯한 전국이 오후 들면서 차츰 추워지겠다’라는 식의 멘트가 많이 나와 사람들이 혼동하곤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유흥가로 이름난 서울 강남의 영동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더군요. 심지어는 6.13 지방선거에서 당신이 된 후 ‘강원도 영동군수 앞’으로된 축하 전보를 받기도 했어요.(웃음) 그러나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장으로 예전에는 상주, 무주, 군산, 옥천 사람들이 열차를 이용했던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6.25때는 무주 산천골 나무를 이곳까지 옮겨다 기차

관사버리고 '20평 전셋집' 서살림

에 실어 나르곤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영동이 농촌이 황폐하다 보니까 빛을 잃었는데이제 다시 국악의 고장으로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립된 난계국악기제작촌과 난계

놀라움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동은 감나무로도 유명하지만 포도로도 이름나 있습니다. 포도 생산량은 충북의 65%, 전국의 11%를 차지합니다. 수입도 쌀이 1백70억원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 8백20억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에 포도 사과 꽃감 등 영동의 특산품을 알리는 광고판도 붙여 홍보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텐데...

“우리 주위에는 (앞에 배석한 영동문화원 남기동 사무국장을 가리키며) 남국장처럼 10여년간 문화 분야에 종사해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계 박연선생에 대해 줄줄이 꿰는 후손이나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공무원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승진문제나 행정 특성상 보통 2년이면 보직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비해 문화예술 전문가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해 교육을 시켜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보다 이미 전문적 식견을 지닌 이런 분들을 지원해 나가는데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공무원은 문화예술인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데 게을리해선 안되겠죠”

-문화원이 지상2층 지하층으로 조금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 문화원 건물은 아쉬움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3층에 70평 정도를 더 증축해 회의실 겸 다목적룸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원 앞에 군수 관사와 부군수 관사가 있는데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군수님은 어디에 사십니까?

“따로 전세 3천만원 짜리 20평 건물을 빌어 살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인데 1층엔 저희 부부가 살고 2층에 판 사람이 살죠. 그리고 마당에 7평 가량의 조립식 건물이 있길래 창문을 하나 더 내고 도배를 하는 등 조금 손을 봐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관사를 의미있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미 군수 부군수 관사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용으로 쓰자, 신혼예비부부 교육장으로 쓰자, 문화원 사랑방으로 쓰자, 모두가 좋은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선불리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주위 분들과 상의해 좋은 활용방안을 찾을 생각입니다”



민정시찰 중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손문주 군수(오른쪽)

국악박물관에도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영동은 머잖아 세계적인 국악의 고장이 될 것입니다.”

-영동은 감으로도 유명한데...

“경부선을 타고 신탄진을 거쳐 영동에 닿을때 즈음 기차에 탔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며 ‘와, 저 감봐~’라고 탄성을 지르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도로 옆에 길게 이어진 가로수에 주황색으로 무수하게 매달린 감을 보고



월드컵응원 행사 모습

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올 여름 연 '봉숭아꽃 물들이기' 행사도 청소년들에게 잊혀져 가는 전래풍습을 되살리며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체험해 하기 위해 기획한 것.

특히 월드컵 경기가 열리던 지난 6월에는 무대 공연과 함께 태극전사들을 응원하는 행사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문화원 회원들을 이끌고 이천동 타지역 문화답사에도 종종 나서는데 등 지역문화의 중추기관으로서 제몫을 다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전북 무주, 경북 김천과 함께 지역감정으로 갈라진 국가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축제도 매년 열고 있다. 10월에 충청·전라·경상 등 3도가 접해있는 삼도봉에서 개최하는 '삼도봉 축제'가 바로 그것. 3개 문화원에서 돌아가며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일을 하고 있으

면서도 영동문화원은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잃지 않고 있었다. 분주한 사무국 업무에도 불구하고 여간사들은 친절하게 손님을 맞았고 여기에도 한 술 더 떠 남기동 사무국장은 얼굴 전체에 잔뜩 주름이 잡히는 특유의 '하회탈 웃음'을 한 채 익살기 넘치는 농까지 던져 문화원 방문자들이 제집에 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했다. 뒤늦게 도착한 김석열문화원장(54) 역시 '한 눈길' 했다. 놀랍게도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 사고(思考) 역시 솔직하고 자유스러웠다. 가끔은 '슬리퍼도 신고 온다'고 남 사무국장이 씨익 웃으며 귀띔해줬다. **문**



인터넷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탐 방

'난계국악기제작촌'

영동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일지라도 다시한번 가보지 않고 말한다면 '구닥다리'라는 소리를 들을 지 모른다. 국악의 본고장인 영동에 새로운 명소가 생겼기 때문이다. 난계 국악기 제작촌.

영동군은 왕산악·우륵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악성중 한 분인 난계 박연 선생의 음악적 업적과 예술적 혼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국악기를 보존 전승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난계 국악축제에 맞춰 박연 선생의 고향인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에 난계 국악기 제작촌을 개관했다.

우리의 전통을 살린 가야금·장고 등 관현악기와 타악기가 수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곳은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 경영수익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18개 향토지식재산의 실용화를 위한 첫 '공방'이라 할 수 있다.

마을 한 옆으로 검푸른 금강의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는 국악기 제작촌은 영동군이 총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끝에 완공된 관광 명소로 약 7백평의 부지에 한옥 건물의 현·관악기 공방과 타악기 공방이 각 1동씩 들어서 있어 방문객으로 하여금 다시한번 예향의 고장임을 느끼게

“단소·가야금·장고 직접 만들어보세요”



타악기 공방 이석제 대표가 대북을 제작하고 있다.



현·관악기 공방 조준석 대표가 가야금 속파기 작업을 하고 있다.

한다.

현재 이 곳에는 현·관악기 제작 전문업체인 남도국악사(대표 조준석)와 타악기 제작 전문업체인 민속공예사(대표 이석제)가 입주해 각종 국악기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19세때 만형이자 스승격인 조대석 씨 문하에서 국악기 제조 기술을 전수 받기 시작한 조준석씨는 지난 85년부

그러나 제작촌은 명품 브랜드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있지만 이와 함께 ‘생활속의 국악’이라는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국악을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체험의 장을 열어 점점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

1년동안 이곳을 다녀간 관광객만도 내국인 1천여명, 외국인 3백여명. 방문

터 광주에서 남도국악사를 운영해 오다 국악의 본고장인 영동에서 작업하기 위해 제작촌에 들어왔다. 그는 마한 시대 작품으로 추정되는 현악기 출토품을 복원한 경력도 갖고 있다.

타악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석제씨 역시 27세 때부터 대전 산내동에서 가죽 무두질과 목공예 기술을 익혀온 장인. 스승 서남규선생으로 부터 장고와 북만이 아닌 역사와 소리의 깊이에 대해 배웠다고 말한다. “돈을 벌기 보다는 우리 국악이 좋아 악기를 만들게 됐다”는 그는 “현대 감각에 맞는 개량악기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록을 보면 함양초등학교, 경남교육방 송연구회, 청주대, 육군소장등 나이나 직업도 다양하다. 개중에는 일본인 프 랑스인들도 종종 찾아와 새롭게 나온 국악기를 사가곤 한다. 시중가격으로 3만원 가량 되는 단소의 경우 재료비 1 만원만 내면 오랜 경류를 지닌 장인들의 지도아래 ‘DIY(Do It Yourself)제 품’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어떤 아버지의 경우 딸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가야금을 6개월에 걸쳐 만들어 가곤 했다. 벌써 5대의 가야금이 ‘DIY방식’으로 만들어져 나갔다.

제작촌은 줄이 다르거나 음이 틀린 전통국악기를 일정하게 규격화 함으로써 ‘표준 국악기’를 만들어가는 한편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량악기 도 만들어 국악기의 대중화·세계화에 기여할 목적이다.

두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조준석·이석제 대표는 “올해 한일 전통악기 비교전시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한중일 전통악기 비교전시를 개최하고 점차 아시아 전통악기 제작 전시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2010년경에는 유럽악기까지 포함한 국악기 엑스포를 개최하는게 장기 목표”라고 입을 모았다.

www.nangye-museum.or.kr

제28회 전국 난계국악경연대회 개최 요강

1. 취 지

국악의 아버지이신 난계 박연 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고 전통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매년 영동에서 열리고 있는 '난계국악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난계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신진 국악인에게 영예로운 등용의 기회를 마련해 줌은 물론 국악의 보존과 체계적 계승발전을 기여하고자 함.

2. 개최일자 및 장소

- 가. 일 시 : 2002년 9월 28일~10월 1일(4일간)
- 나. 장 소 : 난계국악당(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79번지)

3. 참가자격 및 참가비

- 가. 초 중 고등부 :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 나. 대 학 부 : 대학생으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자 ※대학원생은 일반부에 참가
- 다. 일 반 부 : 만20세이상의 남·여(대학 재학생은 제외)

※1인(팀) 1부문에 한하며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해당분야 대통령상 수상자는 제외
 ※참 가 비 : 대학부 30,000원, 일반부 50,000원
 ※국민은행 계좌번호 : 405-25-0009-156 (사)난계기념사업회

4. 경연 종목

- 가. 초 등 부 : 기악, 타악, 성악, 합주
- 나. 중 등 부 : 기악, 타악, 성악, 합주
- 다. 고 등 부 : 현악독주, 관악독주, 합주, 가곡, 판소리, 민요, 가야금병창

- 라. 대 학 부 : 현악, 관악, 합주, 가곡, 판소리, 민요, 가야금병창, 창작
- 마. 일 반 부 : 가야금, 거문고, 아쟁, 피리·대금·해금, 성악, 창작, 타악

5.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배부기간 : 2002년 8월 26일~ 9월 20일
- 접수기간 : 2002년 9월 6일 ~ 9월 24일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6. 접수 및 문의

- (사)난계기념사업회 (370-802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5-1 ☎(043) 742-2224
- 영동군청 문화공보과 (370-802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10-1 ☎(043) 740-3223

7. 시상 내역

일반부 난계대상(대통령상)에 상장 및 상금 1천만원이 주어지는 것을 비롯해 대학부 최우수상(국무총리상)에 상장 및 상금 2백만원, 고등부 최우수상(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에 상장 및 상금 50만원 등 각 부문에 소정의 상장과 상금, 부상 수여

주 최 : (사)난계기념사업회

주 관 : 영동청년회의소

후 원 :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관광공사,
 문예진흥원, 국립국악원, (사)한국국악협회,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영동군



신임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

정부는 최근 문화관광부장관에 김성재(金聖在·52) 前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김장관은 한국신학대학 및 동대학원 종교교육 석사과정 졸업후 영구에딘버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경력과 상훈·저서는 다음과 같다.

● 경력사항

- △ 한신대학교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 △ (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 △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 교육부 대학평가위원
- △ (사) 사랑의 친구들 부총재
- △ 대통령자문 새교육 공동체위원회 상임위원
-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역임
- △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한신대학교 교수
- △ 현재 문화관광부 장관

● 상 훈

-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상

● 주요저서

- △ 「의식화와 탈학교」(역)
- △ 「분단현실과 기독교민중교육」
- △ 「평화교육과 민중교육」(편저)
- △ 「전환기에 선 한국교육」(편저)
- △ 「제3세계의 고등교육」(역)
- △ 「21세기한국그리스도교생명의뿌리」(편) 등 다수



신임 박문석 문화관광부 차관

최근 정부 주요 부처 인사에서 박문석(朴文錫·55)문화관광부 종무실장이 차관으로 승진발령됐다. 박차관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온후 미국 프랭크린피어스로센터에서 지식소유권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98년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주요경력 은 다음과 같다.

- '89. 3~'90. 1 문공부 종무행정과장
- '90. 1~'93. 12 문화부 저작권과장, 예술1과장
- '94. 7~'95. 6 미국 프랭크린피어스로센터 파견
- '95. 8~'97. 2 주뉴욕한국문화원 문화관
- '97. 3~'99. 6 국립중앙도서관 지원연수부장
- '98. 3~'99. 6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 '99. 6~'01. 4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장
- '01. 4~'02. 7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 '02. 7~ 문화관광부 차관

전국문화원연합회 창립40주년기념 및 제17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개최

전국문화원연합회(회장 이수홍)에서는 창립 4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2002년 (제17회) 전국향토문화연구 시상 및 연구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문화원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행사명 : 전국문화원연합회 40주년기념 및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 일 시 : 2002년 11월 21일(목) 11:00 ~ 16: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행사내용 :
 - 〈제1부〉 창립40주년 기념행사
-경과보고/회장인사/격려사/축사/시상 등
 - 〈제2부〉 제17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시상/수상논문 발표 및 토론 등

※ 참석자들에게는 「전국문화원 연합회 창립 40주년 백서」와 「제17회 전국향토 문화연구발표회 수상집」을 증정해 드립니다.

2002. 9.

전국문화원연합회

행 사



전국문화원연합회
'제4회 조선족 음악제' 지원



하 만 기 | 전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

전국문화원연합회(회장 이수홍)가 지원하고 중국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회장 조성일)가 주최한 '제4회(2002)조선족음악제'가 7월 17일 오후 7시 연길시 예술극장에서 시상식과 수상자 공연 및 축하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고 마감됐다.

1999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행사는 연합회가 조선족 음악제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분위기를 조성하고 동포사회의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특히 6·15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성과로 조성되고 있는 남북화해 협력분위기를 해외동포사회로 널리 확산시킨다는 목적으로 추진되어온 행사이다.

이번 음악제는 민요경창부(전통민요가창자)와 대중가요경창부(예술단체 및 일반인 가창자)로 나누어 각 현·시별 예선을 거친 참가자(각부문 30명씩)들이 7월 12일 본선을 치렀다. 그결과 민요경창부에서는 명창 1명(박춘희 연변대학 예술학원 교수), 최우수상 2명(강화, 박은연), 우수상 3명(리나, 최림, 김화)등이 뽑혔으며, 대중가요경창부에서는 대상 1명(김문우 연길시 POP음악양성센터), 최우수상 4명(양춘화, 최명화, 김성남, 리광일), 우수상 6명(박해림, 김철, 리예화, 립해영, 로애란, 김유송)등이 뽑혔다.

7월 17일의 시상식은 김신애(연변방송 아나운서)씨의 사회로 서울에서 참가한 문화원관계자 35명을 비롯해 지역 TV 및 신문사 취재진과 연변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일반관중이 연길시 예술극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수상자들에게 상장이 수여된 뒤에 수상자들의 공연과 축하공연단의 축하공연이 2시간여 동안 진행되었으며, 맨 마지막으로 수상자와 참관자들의 '고향의 봄' 합창으로 마감됐다.

공연이 끝난 후 연길시내 두만강반점에서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이 베푼 '제4회(2002)조선족 음악제 축하연회'가 수상자 전원과 연변의 주요 문화예술인 및 서울측에서 참가한 일행 35명이 참석해 대화와 여흥으로 동포들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한국측 참가단은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이수홍 회장 등 4명과 동대문문화원 김영섭 원장과 권태하 사무국장 및 이사·임원등 9명, 춘천문화원 사무국장 등 강원도 문화원 사무국장 14명, 김용환 보성문화원장 및



연변일보 2002년 7월 19일 기사 내용



축하연회에서 인사하는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축하연회에서 축하하는 조성일 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 회장



참관단 일행이 무대위에서 인사하고 있는 모습



연길시 조선족예술단의 축하공연 '물동이 춤'의 공연 장면



축하연에서 인사하는 전국문화원 연합회 이수홍 회장

기타 지역문화원 사무국장 등 8명을 포함해 35명이었다.

참관단 일행은 7월 17일 연길에서의 조선음악제 참관을 마친 다음, 18일 백두산을 등정했고, 19일에는 용정시의 대성중학(운동주시인이 다닌 학교)과 도문시의 두만강 국경을, 20일에는 북경의 명13능·만리장성·용경협을 탐방했다. 또 21일 오전에는 천안문광장과 자금성을 탐방하고 오후에는 대련의 여순형무소 터를 찾았다. 여순형무소는 일제시 안중근 의사가 수형받다가 사형을 당한 형무소로서 현재 형무소 옛시설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으며 안중근 의사의 독방(감방)과 집필실등을 찾아볼 수 있었고 고문 형틀과 교형장(교수형장)도 옛모습대로 보존되어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섬뜩하게 했다. 참관단의 마지막 코스로 여순형무소를 참관한 것은 아주 의미있는 탐방으로 오랫동안 여운을 남길만한 여행이었다

동대문문화원

용정시 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와 자매 결연

동대문문화원(원장 김영섭)은 7월 19일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 문화발전추진회(회장 리준일 前 용정시부시장)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후원한 연변조선족 음악제 참관단에 합류했던 동대문문화원장을 비롯한 이사·운영위원 등 9명의 대표단은 용정시를 방문해 천국대연회장에서 양단체간의 자매결연식과 축하오찬을 가졌다.

2001년 7월 용정시 조선문화발전추진회의 초청으로 동대문문화원 이사와 공연단 등 22명이 용정시를 방문해 공연행사를 가졌던 것이 계기가 되어 상호간 문화교류를 통한 우의증진과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가자고 합의함으로써 이번의 자매결연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용정시는 인구 20만중 조선족이 60%정도로 연길시와 더불어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며, 구한말 북간도의 중심지이자 독립투사들의 근거지로서 일송정·대성중학교 옛터·3.13 독립의사 13인의 유택 등 독립항쟁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동행답사記 중국에서 보낸 5박6일

이 만 철 |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첫째날) 하늘에서 내려다본 중국의 빨간색 지붕

서울 구의동 주변 모텔에서 설악권(속초, 고성, 양양, 인제) 사무국장들과 숙박을 했다. 아침 일찍 서둘러 택시를 타고 인천 공항으로 떠났다. 이른 아침이라 교통이 막히지 않아 약 1시간쯤 되어서 인천 공항 3층 9번 출입문 입구에 내렸다. 9번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우리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

우리들은 한식 식당을 찾아 ‘소고기 우거지 국밥’ 한 그릇으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특별하지도 않은 국밥이 9천원 이었다. 비싸다는 느낌에 뒷맛이 개운하지 않았다.

환전을 마치고 있노라니 함께 동행하는 타 문화원 가족들이 하나 둘 집결하였다. 이어서 연합회 회장님, 총장님도 도착하면서 인원을 점검하고 가이드가 출국 수속을 했다.

비행기에 탑승 시간은 12시 20분 이었다. 비행기는 서서히 움직이며 활주로를 감돌더니 활주루에 들어서면서 빠른 속도와 함께 고음을 내면서 드디어 이륙해 점점 높이 솟아 올랐다. 도시와 산과 바다가 작게 보이며 점점 멀어만 보이더니 어느덧 우리들은 구름 위에 올라 잠잠한 여행 시간으로 접어들었다.

오후 4시 10분 장춘공항을 앞두고 비행기는 하강을 시작하였다. 그렇게 가보고 싶던 중국땅이 점점 가깝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듣던 말 그대로 웅장한 대륙의 이미지를 첫눈에 느끼게 하였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이 웅기종기 형성된 마을이 보이며 집들은 빨간색 지붕으로 일괄 되어있고 들과 야산에는 온통 농작물의 터전으로 이루어져 있어 과연 우리나라에 중국산 농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즉시 느끼게 하였다.

조금후 장춘공항에 도착하였는데 공항 한옆에는 군사 전투용 비행기가 진열되어 있어 심적으로 긴장이 되었다. 잠시 입국 수속 절차를 마치고 가이드의 주의사항을 듣고 난 뒤 공항 주변에서 구석구석을 구경하면서 휴식을 취하였다. 장춘(長春)은 일본제국의 잔영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일제시대때 이름은新京(新京) 이었다고 하고 만주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당시의 건물이 눈에 띈다고 한다. 해방후

(1949년) 길림성의 성도가 되었고 개혁 개방후(1980년) 부터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곳곳에 그런 흔적이 있다고 한다.

잠시후 우리 일행은 휴식을 마치고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 연결 공항으로 출발하였다. 마침 날씨가 좋아 비행기에서 밑을 내려다 보니 높은 산은 없고 낮은 산 계곡 평야와 언덕 너머로 굽이굽이 차도가 늘어져 길게 뻗어져 있었고 군데군데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온통 농작물들이 자라고 있는 전답이 엄청나게 넓은 벌을 이루고 있었다. 또다시 우루과이 농산물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다.

약 40여분 후 연결 공항에 비행기는 멈추고 우리 일행은 가이드를 따라 2개조로 나누어 2대의 버스에 승차하였다. 1조 버스에는 이수홍 연합회장님을 비롯하여 동대문문화원 원장님과 일행 등 20명이 승차하였고, 2조 버스에는 하만기 연합회 총장님과 강원도 사무국장 등 16명이 승차 하였다. 잠시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현지에서 나온 30대의 여자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자기(차홍매) 소개와 현지의 소개를 하였다. 아울러 나는(인제 사무국장) 이곳에 오기 전에 연합회 장부장으로 부터 조장의 역할을 부담받고 왔기에 마이크를 잡고 탑승하고 있는 2조 차량의 인원내에 대해 한분 한분 소개를 하고 끝나는 날까지 협조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어느덧 버스는 연결 시가지지를 지나게 되었다. 가이드는 지나는 곳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가이드 말에 따라 예전에는 이곳 연변에 조선족이 70% 까지 거주하였으나 지금은 39% 정도 살고 있다고 하며, 연결시에는 200만 시민 가운데 70%가 조선족이 살고 있으며 그간 많이 발전 되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차량이 지나는 차도에 중앙선이 별로 없고 삼거리와 사거리 등에 신호등이 별로 없는데 차량소통은 잘되고 있었고 사고 또한 그리 없다고 한다. 역시 중국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니어커를 달아 짐을 운반하는데 크게 이용하고 있다. 또한 상점마다의 간판에는 한글이 위에 써있고 밑으로 한문이 써있으며 오후 5시만 되면 대부분 문을 닫고 휴식을 취하며 불일을 본다라고 한다.

잠시후 연결에서 제일 맛있게 잘하는 냉면 집에 도착하였

다. 안내를 받으며 우리 일행은 진달래 냉면집 홀에 들어가 준비되어 있는 원탁 식탁에 6~7명씩 둘러앉았다. 잠시후 대형 유리 그릇에 냉면이 나왔는데 우리 한국에서의 냉면 양보다 3배 이상이 담겨져 나왔다. 모두들 놀래며 양이 많다고 하니 주인측에서는 먹고 더 먹으라고 권하였다. 정말로 냉면맛은 구수하고 시원한 맛으로 일품이었다. 그러나 일행 모두는 반그릇 이상씩 남기었는데 나올때 주인에게 맛은 너무 좋으나 양이 많아 남기고 간다고 미안하고 감사한 말을 하고 밖에 나와 공식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다시 버스에 승차하였다.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중국 연길시 예술극장에 도착하였다. 이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우리 일행은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예술극장 안으로 들어가 앞줄 네 번째 중앙관람석에 안내를 받아 앉았다. 무대위 현수막에는 “제4회 조선족 음악제 수상자 공연 및 축하공연” 이라고 새겨져 있으며 주최는 “연변 조선족 문화발전 추진회 연변 군중 예술관”으로 되어 있고 후원은 “한국 전국문화원연합회” 라고 적혀 있었다.

잠시후 막이 열리더니 사회자 김신애씨(연변 인민 방송국 아나운서)의 소개로 우리 일행은 모두 무대에 나와 소개와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었다. 백두산 천지가 화려하게 그려진 무대에서 기악합주와 독창 그리고 무용과 춤 또한 민요등의 공연이 펼쳐졌는데 연길시 조선 예술단의 물동이 춤은 선녀와 같은 어여쁜 연예인들이 나와 공연을 하였는데 매우 수준급이었다.

공연을 마치고 우리일행과 공연 출연자들은 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연회장으로 이동하여 롬 테이블 식탁에 현지 조선족 출연자들과 어우러져 앉았다. 동대문 원장님의 사회로 만찬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수홍 연합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어서 준비된 푸짐한 음식과 술로 연회는 시작되었다. 서로 주고받는 음식과 이야기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하였다.

얼마쯤 지나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현지 가수들의 노래 소리가 이어졌다.

‘반갑습니다’, ‘노들 강변’, ‘도라지 타령’ 등 귀에 쫓은 음악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으며 식당 종업원 아가씨들의 찬조 노래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술과 밥 시간이 깊어 가는 가운데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아마도 한민족이 한데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환편 희노애락

이 섞여진 비가 내리지 않았는가 생각 되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 회장의 추천에 의해 나는 앞에 나가 한국측의 대표로 “사랑은 아무나하니” 란 노래를 불렀다. 밤이 깊은 관계로 내일을 위하여 연회장을 나와 비교적 시설이 좋다는 대우호텔에 들러 숙박을 하면서 하루의 일정을 끝냈다.

(둘째날) 우리와 다른 문화... ‘문 없는’ 화장실

아침 일찍 호텔에서 조식을 마치고 우리일행은 1,2조로 나누어 버스에 승차한 후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백두산 관광으로 떠났다. 떠나는 길은 멀었다. 가는 길은 좁 좁은 포장도로였으며 도로 옆으로 나무 전봇대가 늘어져 있는데 전선줄은 많지 않아 60년대의 우리 나라 모습이 떠올랐다. 집들은 낡은 싸리문과 나뭇가지 울타리로 되어 있으며 다 허물어져 폐허가 되는 집에 사람이 기거하는 모습이 보였다. 가이드는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서 가끔씩 지난날 있었던 이야기와 체험담 그리고 웃음이 석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이드 생활로 공부도 많이 하였고 경륜도 많아 보이는 느낌이었다. 자기의 말로 가이드 생활 10년이라고 한 것을 보니 꽤나 이 생활에 열광기도 하였다고 느꼈다. 한곳을 지나다 터널이 나왔는데 ‘오호령 차굴’이라고 적혀있고 안에는 전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가이드는 이 터널에 예전에 다섯 마리의 호랑이가 앉아 있었다는데 연유하여 오호령 차굴(차가 다니는 굴)이라 하였고 평상시 전등불은 밝혀 주지 않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국 문화원 측에서 왔기에 불을 밝혔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백두산 장백폭포 밑에 온천탕이 있는데 그곳의 남탕은 “고추탕”이라고 되어있고 여탕은 “조개탕”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하여 승차한 전원의 웃음 보파리도 터져 나오기도 하였다.

한참후 휴게소라는 곳에 들렀다. 집 한 채의 마당에 그리 맘에 안드는 물건들이 진열되었는데 중국 상인이었다. 화장실에 소변을 보려고 하였는데 가보니 기가 막혔다. 들어가는 문도 가려져 있지 않고 칸막이가 있으나 역시 여기서 가려지지 않았는데다 나무를 들성들성 건네 놓은 위에서 불일을 보아야 하니 또한 냄새와 파리 떼들의 비위생적인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정신차리고 정조준을 해서 짧은 시간으로 끝내야 할 정도다. 그 외중에 남,여 함께 불일을 보아야 하니

말이다.

버스는 다시 백두산을 향해 달리다가 '백두산 한식센터'라는 곳에 멈춰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다. 점심을 그런대로 마치고 우리 일행은 다시 버스에 승차한 후 산비나무, 자작나무 밀림 속으로 백두산을 향해 계속 달리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더니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우리 모두의 생각은 아마도 모처럼 찾아온 백두산 천지를 못보겠구나 하고 아쉬운 생각이었다.

얼마쯤 지나가자 가이드가 이제 다왔다고 말하고는 버스가 멈추자 모두 내려서 대기하고 있던 현대차 겔로퍼에 6명씩 나누어 타라고 하였다. 잠시 후 우리를 나눠 태운 겔로퍼 차량은 천지를 향해 좁은 2차선 언덕길을 굽굽이 오르기 시작하였다. 가이드의 말대로 우리는 1인당 3천원 씩을 모아 운전기사에게 팁을 주고 정상 주차장까지 오르는데 험한 길을 굽굽이 돌면서 운전하는 기사들은 정말로 1급기사들이었다.

정상에 올라 차에서 내려보니 비가 계속 오는 것이었다. 우비를 입고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 옆으로 50여 미터 가다 보니 천지가 밑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구름이 가려 보이질 않았다. 한동안 기념사진을 찍고 쉬노라니 구름이 거치고 천지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리 일행은 참으로 운이 좋았다고 가이드는 말하면서 이곳에 와서 천지를 못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다.

다시 겔로퍼를 타고 하산을 하여 장백 폭포로 달려갔다. 비는 계속 내리는데 폭포 주차장에 하차하고는 장백 폭포로 걸어서 이동하였다. 가는 도중에 야외 온천 물가에서 익힌 계란을 천원에 3개를 사서 나누어 먹어 보았다. 장백 폭포 밑에 올라 사진과 구경을 두루 하면서 우리들은 잠깐 휴식을 취하였다.

이 천지폭포(장백폭포)의 낙차는 68m이었으며 이 물은 흘러서 송화강을 이룬다고 한다.

일행은 오던 길로 내려와 온천 탕에 들어가 온천 욕을 하고 숙박을 할 이도백화의 신달호텔로 차를 타고 내려와 저녁을 맛있게 먹으며 술과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강원도 사무국장들은 중지를 모아 식사 후 짐을 풀고 간단한 회의를 갖은 다음 노래방에 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루의 즐거운 시간을 마치고 호텔에 돌아와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셋째날) 민족시인 윤동주 시비앞에서 뉘 기러

호텔에서 아침 일찍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승차를 하고 다음 코스인 용정 대성중학교로 출발하였다. 이도백화에서 용정까지는 올때와는 달리 비포장도로로서 그 유명한 청산리 전투가 있었던 길을 택하였다. 가는 도중 가이드는 무공해 밀원으로 양봉을 하는 곳에 차를 세우고 꿀과 로얄제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안내를 받았다. 일부 일행은 꿀과 로얄제리를 구입하였으나 본인도 5만원 하는 로얄제리 한 병을 구입하였다. 잠시 후 자작나무, 피나무 등 잡나무가 우거진 도로를 따라 계속 왔다. 얼마쯤 오다 가이드는 이곳이 바로 김좌진 독립투사가 싸워왔던 청산리 전투의 열이 서려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서 많은 설명을 해주었다.

다음 정차 할곳은 북한인이 운영하는 청심환을 구입할 수 있는 휴게소인데 우리는 이곳에 도착하여 현지 북한인의 안내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35세 가량 된 남자가 들어오더니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월드컵 4장을 축하 한다"고 말하고 청심환 설명과 벽에 걸려 있는 여러 자수그림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독도는 우리땅 이란 노래를 독창하고서 청심환을 구입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일행중 일부는 구입을 하고 다시 용정으로 떠났다. 얼마 후 가이드는 다시 차량을 정차시킨 후 건너편 멀리 보이는 일송정 위치를 가리키며 설명을 해주었으며 진짜 '一松亭'은 늙어 고사가 되어 없다고 하였다. 다



민족시인 윤동주 시비 앞에서

시 승차 후 용정으로 달려 오는데 가이드는 저기 보이는 강이 혜란강이라고 알려주었다. 드디어 용정에 도착하여 우선 식당에 들어가 점심을 해결했다.

또다시 대성중학교로 이동하였다. 중학교 앞에 세워진 민족시인 윤동주의 시비가 아주 잘 단장된 채로 서있다. 카메라에 담기도 하고 시비 앞에 서서 시인의 애국 혼에 고개를 숙였다. 29세의 젊은 나이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이름모를 생체실험 주사를 맞고 죽은 애국청년 시인의 뉘

이 서려 있는 이국 땅에서 우리 모두는 뜻깊은 감회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교실 2층 안에 들어가 독립투사들의 그림과 사진 그리고 옛 글을 안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잠시 후 곰 사육장으로 안내를 받아 곰들의 사육장을 잠시 둘러 보고 사무실에 들어갔다. 안내인은 쓸개를 탔다는 소주 한잔씩을 주고는 앞에 나와 정중히 인사를 하고는 응답 제약에 대한 설명을 유창하게 한다. 몇 사람은 구입을 했다.

다음은 도문의 두만강 코스였다. 유유히 흐르는 두만강과 북한 마을(남양시)이 건너다 보인다. 두만강은 강폭이 60미터는 족히 되어 보이는데 이상한 것은 쳐다봐도 내려다보아도 강바닥이 깊은 곳도 얕은 곳도 없이 4차선 고속도로처럼 환하기만 하고 크고 작은 바위 돌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아마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을 때 모두 주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 강위에 띄워 놓은 집에 내려가 일행 3명과 함께 일인당 5천원을 주고 보트를 타고 두만교 밑으로 올라 가면서 북쪽을 바라다보니 바로 50여m 앞 육지 나무 밑에서 보초 근무를 하고 있는 인민군을 보았다. 다시돌아 내려오면서 자세히 보니 군데군데 인민군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손을 흔들어 주어도 반응이 없었다. 타계한 원로가수 김정구님의 두만강 푸른물이 공사로 인하여서 인지 흙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도문공원 비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노



만리장성 앞에서

라니 열 살쯤 되는 허름한 남자 아이가 곁에와 “북한에서 왔는데 좀 도와 달라”고 손을 내민다. 도문교는 북한과 중국을 도보로 왕래하는 교량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도문은 본래 회막골인데 독립군이 주둔하면서 도문으로 부르게 되었고, 도문의 위치는 길림성의 동부가 되고 간도소에 속하는 도시라고 한다. 조선족이 60% 한족이 40% 정도 살고 있다고 한다.

일행은 다음 북경으로 가기 위하여 연길 공항에 도착하였다. 시간이 없어 재촉하여 국내선에 탑승하였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떠나 하늘 높이 날았다. 지루함을 지쳐 모두들 잠을 자다 말다 하며 한시간이 훨씬 넘도록 가고 있는데 북경에 비가 많이 내려 착륙이 곤란하다며 예전에 없던 심양공항

으로 돌아가 착륙하였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북경으로 가야한다고 하였다. 심양공항에 내려 잠시 대기하고 있는데 탑승하라는 소식이 왔다. 다시 북경으로 비행기는 심야의 하늘을 소리없이 비행하고 있었다. 지루함을 이기며 북경 공항에 도착하니 현지 여자 가이드가 나와 안내를 하였다. 일행이 호텔 화운반점에 짐을 풀고 잠자리에 들었을때는 새벽2시가 지나서였다.

(넷째날) 신기하고 어마어마한 ‘만리장성’

부패식 아침식사를 간단히 하였다. 역시 조선족이 해주는 음식과는 달라서 대충 되는대로 해결하였다. 잠시 후 차에 승차하여 만리장성으로 떠났다. 가는 도중에 명13능의 지하 궁전을 둘러보고 만리장성으로 향했다. 소낙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주차장에 도착 후 우비를 입은 채 케이블카를 타고 만리장성에 올랐다. 모두가 신기하고 어마어마한 시설이었다. 만리장성에 올라 기념사진을 찍고 두루 걸으며 관찰하노라니 참으로 웅장하며 어떻게 산꼭대기에도 돌을 가져다 만리장성을 쌓았는지 꿈같은 생각이었다. 잠시후 주차장에 내려와 차를 타고 가 점심식사를 하였다.

다음 코스인 용경협에 도착하였다. 용경협은 이름도 이야기도 듣지 못한 곳인데 너무나 신비한 운치와 경관을 가진 관광지였다. 둘레가 50여 킬로 미터의 길고 넓은 잔잔한 푸른 호수의 양옆으로 높이깎아 세운 바위 벽성, 그리고 소나무와 잡나무가 그림같이 자라고 있고 그위 30여명씩 타고 오가며 즐기고 있는 배들이 한가로운 정경을 자아내고 즐기고 있었다. 우리 일행이 타고 가는 배에서 다함께 “대~한민국” 하고 소리를 쳐 보았다. 다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손뼉을 맞추어 “ 짹 짹 짹 짹”하고 힘차게 쳐 준다. 바로 이 사람들은 한국인들이었다. 무응답으로 가는 배들은 외국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다. 호텔 화운반점에 돌아와 저녁을 마치고 휴식 후 잠자리에 들었다.

(다섯째날) 안의사 간헐던 독방 둘러보며 ‘몽클’

아침식사를 마치고 천안문광장으로 갔다. 천안문 광장은 TV에서 보았듯 인산인해 였다. 넓은 광장에 기념탑이 있고 한편에는 모택동 그림이 보인다. 역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았다.

천안문을 거쳐 자금성 관광에 들어섰다. 웅장한 건물들을



자금성 앞에서 포즈를 취한 일행들

지날 때마다 신화적이었다. 왕이 외빈객을 맞았던곳, 병사들을 다루던곳, 왕과 왕비가 기거 하던곳, 왕의 후손들이 살며 공부를 하던곳, 연회를 하던 곳 등 한 건물 한 건물을 지날 때마다 웅장한 건물과 짜임새에 놀라움이 많았다.

후문으로 나와 버스를 타고 대련으로 가기 위하여 북경공항으로 떠났다. 비행기는 약 1시간 후 대련공항에 도착했다. 첫인상이 대련시는 깨끗하며 항구도시로써 마음에 들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안중근 의사의 수형소로 떠났다. 마침 일요일이라 여순 형무소에 근무하던 중국인 공무원들이 5시까지 도착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들은 여기까지 와서 안중근 의사의 수형소를 못보고 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이 들었다.

이윽고 시간을 지켜 버스는 도착을 했다. 가이드의 주의사항을 듣고 일행은 들어갔다. 1902년 유럽 전통 건축 양식으로 지은 2층 본관 건물입구에는 여순일야감옥구지라는 가로판이 붙어 있는데 정문 오른쪽 기둥에는 여순일야감옥구지진 열관이라는 세로 간판이 걸려 있었다. 본래의 감옥(감방이 253칸 이어서 2천~3천명을 수용 할수 있다)에 71년 진열관을 따로 지었으니까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붙인 모양이다. 2천여점의 철기, 동기, 회화, 비, 갑오전쟁자료, 노일전쟁자료, 현대역사 문물 등을 전시하고 있는 진열관은 감옥이어서 을씨년스럽기만 했다.

감옥의 옥사는 큰 대자(大)처럼 방사상이고 가운데에 간수대가 있다. 물론 간수가 올라서서 감시하는 간수대는 2단 높

이로 높았다. 좁은 감방 안에는 찌그러진 밥그릇, 물통, 번기통이 있고 감방 문 옆에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인쇄된 감규(감옥규칙)가 붙어 있었다.

감옥 안에는 검신실(신체검사실), 교회실(욕하고 때리면서 취조하는 방으로 여러 가지 구타 용기가 있었다), 교형실(목을 때 죽이는 사형

장), 암뇌(반평 정도의 지하실인데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사흘간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오면 눈이 먼다는 감방이다) 각종 작업공장(벽돌공장, 인쇄공장, 방직공장 등 15개소)들이 있었다. 높이 4~6m의 붉은 벽돌담 안의 면적은 2만8천㎡ 여서 옛날 서대문 구치소 정도 크기였다. 이 감옥은 1945년 8월에야 감옥으로서의 기능을 끝냈고 1971년 7월 수리를 마친 다음 개방했다고 한다. 지금은 애국주의 교육지로 쓰고 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5개월 동안 갇혀 있던 방은 3평 정도의 햇볕이 잘드는 독방이었다. 책상과 침대까지 있었고 국사범 대접을 했다고 한다. 안중근 의사는 이 독방에서 이등방문의 죄악 15개조, 안응철역사, 동양평화론, 인심결합론, 옥중한시, 옥중편지, 동포에게 고함, 최후의 유언 등 많은 글을 썼고 200여 폭의 유묵(간단한 글, 이 가운데 22폭은 우리 나라의 보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을 남겼다. 안중근 의사의 육신은 92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어도 그의 정신과 말씀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살아 남아 있다.

한가지 남은 과제는 그의 유언대로 그의 시신(백골)을 찾아 조국에 안장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우리 후손은 위대한 선조에게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하루의 일정을 끝내고 호텔(국제호텔)로 돌아와 식사 후 취침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인 7월22일 08시30분에 대련공항을 출발하여 10시40분에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문**

전통문화 계승하며 ‘정체성’ 지키는 유럽

스페인 틀레도 산토토게 성당

장상호 | 전국문화원연합회 총무부장

7월4일 오후1시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대한항공 KE905편으로 문화관광부 전통지역문화과 최천식 과장을 단장으로 하여 시·군 문화예술담당 공무원12명과 조치원 장영 문화원장님 등 총16명이 유럽 우수축제벤처마케팅 목적차 유럽으로 출발하였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프랑크 소시지의 주 생산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 통과여객실에서 6시간을 보낸후 터키 이스탄불행 루프트한자 비행기로 3시간 30분을 비행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하였다. 근 하루를 비행기와 의자에서 보낸 탓으로 일행은 지쳐서 파김치가 되었다.

성소피아 성당 직접 보고 ‘감명’

터키는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나라다. 6.25전쟁시 15,000여명의 군인을 UN군의 일원으로 파병 공산군과의 전투에서 3,500여명이 사상하는 등 우리로서는 크게 은혜를 받은 국가이다.

점심을 하기 위하여 한인식당에 갔는데 마침 한국의 신인가수가 뮤직비디오촬영 배경화면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터어키 노병을 담겠다고 10명을 초청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비디오 촬영중이었다. 그들은 우리일행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자 박수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

다.

한일월드컵에서 터키 선수를 일명 투르크 전사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나라는 지형적으로 유럽대륙과 아시아대륙간 동서문화의 길목에 위치해 있으며 또 지중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바닷길인 보스투스해협, 마르마라해, 자르다엘스 해협의 연안국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전쟁을 겪어왔다.

지금도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섬을 놓고 그리스와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터키는 메소포타미아라는 세계 4대 문명 발생지인 유프라테스강, 티크리스강과 히타이트, 로마, 비잔틴, 오스만 대제국이 번성했던 서양문명의 중심지로 일컬어지고 있는 곳이며, 기록에 의하면 터키인은 중국 고전에 나오는 훈족으로서 중국을 자주 침략 괴롭혀 중국사람들은 기원전 220년에 수립된 터키의 테오만부그 왕국을 흉노라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육지와 해상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관계로 자주 전쟁에 휩싸이는 운명에 처한 결과가 국민들을 용감하게 하여 오늘날 투르크 전사로 불리어 지고 있다. 이스탄불은 동양과 서양이 절묘하게 조화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신비함이 있는 곳으로 유럽과 서남아시아를 지배한 3대 강국인 로마, 비잔틴, 오스만대제국의 수도이었다.

오늘날까지도 도시 곳곳에 과거 번영의 흔적을 보존하여 생생한 역사의 장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세계 각국에 많이 알려져 있다.

세계사 시간에 말로만 듣던 비잔틴 건축의 최고 걸작인 성소피아 성당을 직접보고 큰 감명을 받았

다. 그리스도교를 처음으로 공인하고 이곳에 거하기로 정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새로운 도시의 큰 사원'으로 325년 창건했던 이곳은 우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명에 따라 532년~537년에 다시 크게 개축하였다. 그러나 이슬람교를 숭배하는 오스만 제국이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당초 그리스도교를 상징에는 각종 모자이크성화로 성당의 천장·벽을 장식하였으나 회교도가 들어서면서 그리스도교의 잔재를 없애고자 모자이크 위에 두 겹게 회칠을 한 것이다.

지금도 덧칠한 회를 벗겨내는 작업과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수많은 방문객으로 사원문턱의 대리석은 닳고 닳았다. 사원안은 그리스도교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성모마리아의 모자이크와 이슬람교 코란의 대형 상징물인 금문자가 걸려있어 양종교가 공존된 기묘한 모습이다.

또 소원을 들어준다는 기둥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엄지손가락을 문질러서 대리석 기둥이 움푹패임에 따라 더 이상 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둥을 동판으로 감싼후 엄지손가락만한 구멍을 뚫어 놓은곳에 소원을 빌기 위해 차



산토리니 섬으로 가는 경비행기 앞에서 포즈를 취한 일행들

레를 기다리는 관광객들로 붐볐다.

보스프루스 해협가에 위치한 톱가르 궁전은 당시 왕족들이 사용하던 금은 각종 보석으로 만든 식기, 장신구 등과 유럽 각국의 왕으로부터 선물받은 상드리아, 곶피, 대형유화등 값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유물들로 전시되었다.

우리나라의 왕궁 대부분은 목조 건물로 지어진 관계로 소실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나라 궁전은 대리석으로 건축한 관계로 훼손없이 보존이 잘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중국의 자금성 보다 큰 것을 보고 놀랐으며, 인근에 위치한 지하물 저장고는 대단히 경이로웠다. 주민들 식수로 공급하기 위하여 4C 로마시대에 지었다고 하는 물 저장고는 천장을 떠받치는 150여개의 대리석 기둥을 그리스의 신전에 있는 것을 옮겨왔으며 일부기둥에 조각한 여러 신들의 뛰어난 조소는 당시 예술수준을 짐작케 하였다.

교통지옥의 도시 아테네 ... '피에스타' 즐겨

지중해를 지나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그리스 땅은 사막화가 되어가는 회색빛 광경이었다. 공항에서 아테네 시내에 있는 숙소까지 자동차로 40여분 이동하였다. 지중해 바닷가에 자리한 아테네의 첫인상은 깨끗하고 조용하였으며 바닷가를 따라 도로를 건설하였고 바다에서 수영하는 주민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점심후 올림픽 스타디움, 소크라테스가 간헐던 감옥, 산티그마 광장, 무명용사의 비를 둘러보았다.

이면도로는 일방통행 표지판이 있었으며 길 양편에 일렬로 주차가 되어있었다.

차량 대부분이 소형차이었으며 거리 상점에서 파는 생활용품 대부분이 미국 등 외국에서 수입한 것 들이었다.

기후는 우리나라 한여름의 온도보다 높았으나 건조한 관계로 그늘에서는 시원하였다. 시민들의 주 교통수단으로는 무궤도차와 시내버스 그리고 지하철이며 시내거리는 뉴스에서 들은 대로 교통지옥이었다. 차량이 많은 이유는 시내교통량을 줄일려고 훌쩍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치 않고 오히려 차를 추가로 구입 1가구에 차가 2대씩 있다보니 만성 교통체증을 발생시켰다고 한다. 현지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이 나라는 주 5일제이며 근무시간은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 까지라고 한다.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피에스타라는 낮잠시간에는 모든 상점이 일시 폐점,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보는 이들로부터 감탄을 자아내는 파르테논 신전과 코린도 유적, 지중해의 섬 등에는 관광객들로 붐볐다. 유럽의 15개 국가들이 EU국가로 통합하여 공동체를 추진한 결과 국민소득이 높은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미국인들로 관광지는 인산인해였다.

8,000명이 거주하는 산토리니섬은 여름한철 관광수입으로 나머지 계절은 수입 없이 살수 있는 정도이니 이 나라의 관광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철강, 반도체, 중화학 등 기간산업 시설이 취약하고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이 높은것에 참으로 부러웠다. 조상과 이웃을 잘둔 덕을 보고있는 것이다.

저녁식사 후 밤늦게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결혼식을 마친 신랑 신부와 하객들이 정교회 입구에서 인사를 하느라고 분주한 광경이었다. 그리스의 결혼식은 일반적으로 금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필자



그리스 코린토 유적 앞

요일 밤늦게 식을 한다고 한다. 또 신부측에서 신혼집 장만을 하는데 대개는 신부의 부모가 집 마련을 하고 소유권 등기는 신부이름으로 한다고 한다. 장례식은 매장을 하며 5년이 지나면 유골을 수습후 거주지 인근 납골당에 모신다.

국회의사당 지하철역에는 지하철 공사당시 발굴된 토기, 하수도관, 시신이 안치된 대리석관묘, 생활도구 등 기원전 그리스시대의 유물들을 전시하였으며 한쪽 벽에 가로 20m 세로 5m 규모의 단면으로 유물 출토당시의 모습을 재현, 관광객들에게 도시전체가 문화재인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예약문화가 잘 정착된 '유럽'

유럽대륙은 6월부터 9월까지 바캉스 시즌이라서 항공편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렇듯이 예약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통상 휴가계획을 수년전에 세워 항공, 호텔, 차량렌탈 등을 사전 예약한다고 한다. 본인도 청소년시기에 미국인 신부·오스트리아 수사와 오랜 기간 접촉한 경험

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30년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그러다 보니 여행사에서 이번 일정수립에 고충이 많았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테네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항공편 자리가 없어 타국을 경유하는 우회편을 준비한 것이다. 새벽 3시 30분 네덜란드 암스텔담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해보니 여행객들이 대합실에 침낭을 펴고 잠을 자는 진풍경을 볼 수 있었다. 암스텔담 공항에서도 스페인 마드리드행 비행기의 단체좌석이 준비 안되어 2팀으로 나누어 출발하였다.

마드리드에서 가이드의 첫인사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2002월드컵에서 스페인대표팀을 이긴 것에 대하여 스페인 국민들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는 분위기이며 반대로 교민들의 사기는 높아지고 조국을 자랑스러워 한다고 전한다.

또 한가지 어두운 소식은 이 나라는 대서양의 천혜의 어장을 갖고 있는 관계로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전진기지가 라스팔마스에 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원양어업이 3D업종이다 보니 한국근로자들의 부족을 매우려 중국조선족



스페인 세고비아 신미안 교회 건너편에 선 문화부 김준행 주사와 필자

을 고용, 작업하는 과정에 이들이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 마드리드 지하철역과 시내 중심가에서 껌팔이 등 좌판장사로 하루하루 연명을 하고 있어 이따금씩 현지언론의 뉴스가 되고 있는데 스페인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부족을 이용해 이들 조선족이 자신의 국적이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고 주장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한다.

마드리드는 과거 무적함대를 보유하여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명성이 높았던 스페인제국 전성기에 수도로 정하여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마드리드를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누는 기준도로인 그란비아 대로의 끝쪽에 위치한 광장에는 1916년 '돈키호테'를 쓴 스페인의 대표적인 작가 세르반테스 사후 300주년을 기념하여 소설 주인공과 작가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톨레도 대사원은 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70km 떨어져 있는 성당으로 스페인 카톨릭의 총본산이다. 고딕양식으로 건축되어 화려하면서도 장엄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건물로 바티칸의 성베드로 성당과 견줄만 하다고 한다.

성당내 부속실에는 역대 주교들의 초상화에 출생 및 사망년도를 표기 게시하였으며, 또 성당완공에 혼신의 힘을 바친 주교의 유해를 제단근처에 안치하였다. 다른 제단앞 바닥 밑에 성당 건축시 사고로 사망한 이들의 영혼을 위해 시신을 매장하였다고 하는데 고대이집트에서 사체를 미이라로 만들어 보존하는 풍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500 ~ 600년전 당시 주교와 사제들이 입었던 미사에

복은 보존상태가 좋았으며 성직자들이 썼던 변발머리 형태의 검정색 실타래가 붙어있는 타원형 모자를 천장에 매달아 둔 것도 인상적이었다.

축제기간만 지역특산물 응용제품 판매

일행의 가장 큰 관심사인 해외축제 벤치마킹 대상인 마드리드를 방문 관계관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으며 약 1시간에 걸쳐 진지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다.

이 나라는 축제가 고을마다 있으며 예컨대 마늘 주생산지 지역의 축제는 마늘을 이용한 각종제품을 주민들이 상품으로 생산, 축제기간에만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특화된 지역축제가 많다고 한다. 나는 이와 같은 사례를 일본도 하고 있다는 것을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으로부터 들은바가 있다.

마드리드는 25개 구가 있으며 이들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문화행사 사업비는 시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관례적으로 신청금액을 전액 지원하지 않고 조정하여 교부한다고 한다. 또한 부유층이 많은 구보다 서민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화행사가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한다.

스페인도 우리와 같이 문화사업을 관위주로 이끌어 나간다고 하니 문화진흥에 대한 관심은 동서양이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일행은 여행 8일째 저녁 간담회를 통하여 이번 연수를 통하여 각자 느낀 귀중한 소감을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보다 앞서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 국민들의 의식도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진단해 공직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더욱 많은 노력을 하기로 다짐하였다.

지면 사정상 블루모스크, 그랜드바자르, 파르테논, 아크로폴리스, 세고비아등 관광지에 대한 방문기는 생략하였다.

끝으로 본인은 터키, 그리스, 스페인이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국민통합과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온 것에 존경심이 들었다. **문**

대륙의 심장, 중국 북경을 다녀와서

송기동 | 김천문화원 사무국장

북경에서의 첫날밤

출발일자를 4월 26일로 정해놓고 설레는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리던 어느날, 돌연 중국민항기가 진해공항인근에 추락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 4월 15일이었다.



필자

무슨 운명의 장난이었을까.

지난해 9월 14일, 일본 나나오시(七尾市) 공민관연합회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도 불과 사흘 앞둔 9월 11일 미국에서 항공기 테러가 일어나 얼마나 마음을 졸였었는가.

우여곡절 끝에 출발지를 김해에서 인천공항으로 바꾸기는 하였으나 가슴속 깊이 자리잡은 막연한 불안감은 일행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었으리라.

이번 일정에는 김길수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스무명이 동참했다.

26일 아침 7시, 문화원 앞에서 버스편으로 출발한 일행은 11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출국수속과 환전을 마친 후 오후 1시 15분 중국항공 CA 124편으로 인천공항을 이륙한 비행기는 1시간 30분정도 날아 북경공항에 사뻐히 내려앉았다.

착륙 직전 하늘에서 내려다본 중국대

륙은 바둑판같이 정리되어 끝없이 펼쳐진 대지가 인상적이었다.

북경공항에 도착해 입국수속을 마치고 나서니 우리 일행을 3박 4일동안 안내할 현지 가이드 오태화(33세)씨가 나와 있었는

데 버스기사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계속 휴대폰만 들고 우왕좌왕하다 모(某)이사님으로부터 초반부터 혼쫓아 났다.

처음 자신을 Miss라고 소개한 오태화씨는(나중에 유부녀라는 것이 들통이 나긴 했지만)조선족이면서도 북경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나온 언뜻 보기에도 당차 보이는 여성이었다.

한편, 공항에서는 극적인 친지 상봉도 이루어졌는데, 본원 정택 부원장님이 사촌동생을 공항에서 처음 만났던 것.

사연인 즉, 일제말 정 부원장님의 숙부께서 증산면 잠업지도원으로 계셨는데 하숙집 처녀와 눈이 맞아 함께 만주로 떠나버렸던 것.

이후 생사도 모른 채 지내오다 수년 전 어렵게 연락이 닿아 서신 왕래만 이루어져오다 이날 공항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북경공항 인근의 교통은 대단히 복잡했는데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중국은 노동절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에서 몰려드는 인파로 곧 북경은 교통마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첫 관광지인 천단공원으로 이동하는 차량 밖으로 펼쳐진 북경시내는 우리의 70년대 초반과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길게 이어진 자전거 행렬, 도색 안된 건물, 페인트로 쓴 간판들, 소문에 상하이(上海)같은 남쪽 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북경의 첫 인상은 웬지 삭막하고 기절어 보였다.

우리 일행이 처음 찾은 곳은 명·청시대에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천단공원이었다.

황제를 하늘에서 내린 자식 즉, 천자라고 여긴 까닭에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하늘에 제사를 크게 지내왔는데 천단공원은 현재 중국에 보존되어 있는 최대규모의 제단이라고 한다.

천단공원 관람후 중국에서 맞은 첫 번째 식당인 태가촌으로 향했다.

공원에서 식당까지 도보로 500m가량 이동했는데 퇴근시간이라 시민들의 자전거 행렬이 일대 장관이었다.

태가촌식당은 중국의 소수민족인 태가족이 그들의 독특한 민속춤을 보여주며 토속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으로 기내식으로 적당히 점심을 떼워 허기진 배를 안고 모두들 잔뜩 기대하며 식당을 찾았건만 자리가 없어 40여분간을 서서 기다려야만 했다.

가이드가 나서서 예약을 했었다며 식당측에 항의도 했건만 이들은 밀려드는 손님 받느라 예약따위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였다.



천신만고(?) 끝에 자리를 잡고 보니 모두들 배가 고파 나오는 음식을 먹느라 이들의 공연엔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실제 필자도 나중에 비디오를 보고서야 공연이 있었음을 알았다)

현지에서 처음 접해본 중국음식은 소문대로 기름기가 많고 독특한 향이 강했는데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주식으로 하면서도 중국인들이 살이 찌지 않는 것은 각종 차(茶)를 상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실제, 3박 4일동안 식당에서는 항상 차가 나왔었다)

허기진 배를 달랜 후 북경 정통기에 서커스를 관람했는데 어린 소년소녀들이 갖은 묘기를 부려대며 1시간 넘게 우리의 눈을 빼놓았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혼이 나면서 저걸 배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측은한 감이 없지 않았다.

9시가 넘어서야 숙소인 경도신원호텔에 도착했는데 최고급 오성(五星)호텔답게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

호텔에서 내려다본 북경의 야경(夜景)은 우리의 그것만은 훨씬 못했지만 군데군데 웅장하게 솟은 대형 빌딩과 잘 닦인 도로를 보며 무엇이랴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권력무상' 느끼게 하는 명13릉

다음날, 호텔식당에서 뷔페로 깨끗하게 차려진 아침식사를 들고 나서 본격적인 중국역사탐방에 들어갔다.

둘째날, 첫 번째 방문지는 명(明)나라 황제들이 무덤이 모여있는 명13릉이었다.

명13릉은 북경시내에서 서북쪽으로 40km 떨어진 창평현(昌平縣) 천수산

(天壽山)기슭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40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한다.

영락7년(1409)에 건립되기 시작해서 송정17년(1644)에 사릉(思陵)이 마지막으로 건립되기까지 200여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당시 능묘 사방 수십km가 접근 금지구역으로 정해졌으며 황제도 입구에서부터는 걸어서 입장할만치 신성시 되었다고 한다.

1956년 중국 문화재 고고학자들이 명나라 황제 만력(萬曆) 주익균의 능묘 정릉(定陵)을 발굴하다 지하궁전을 발견하였는데 대형목관(실제 크기가 소형버스만 하였다)과 금·은·진주 등 각종보석이 3,000여점이나 출토되어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한다.

주익균 황제의 지하궁전은 계단을 따라 십여미터를 내려가야 했으며 지하에는 높이 27m, 면적 1,195㎡의 5개의 방을 가진 요새를 형성하고 있었다.

바닥과 천장, 계단이 모두 흰색옥돌로 꾸며져 있었고, 황제와 황후의 옥좌가 옥돌로 제작되어 있기도 했다.

흥미로웠던 것은 당시 중국 고고학자들이 13개에 달하는 명황제의 능묘 중에서도 주익균 황제의 능을 발굴대상으로 삼은 기준이 역사서에 가장 방탕하고 사치스러웠던 황제로 기록되어 있어 그만큼 무덤도 화려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한다.

중국의 황제들은 거의 예외 없이 황제 등극과 동시에 사후를 대비한 화려한 무덤조성에 돌입했는데 어린 나이에 등극한 만력 황제도 정사는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묘 수축에만 열정을 쏟았다고 한다.

실제로 자신의 제위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이곳을 찾았는데 이를 이용하려는 아첨배들이 앞다투어 시슴의 뽕을 닦은 향나무들을 능묘 주변에 심어 환심을 사려했다고 한다. 이제 그 나무들은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 황제가 아닌 이국의 관광객들을 맞고 있다.

주익균 황제의 지하궁전은 화려함과 웅장함 못지 않게도 도굴방지도도 혼신을 기울였다고하는데 특히 고분입구를 알 수 없도록 벽돌을 겹겹으로 쌓았다고 한다. 실제로 발굴당시에 엉뚱하게 파내려간 흔적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발굴작업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돌덩이 하나가 단조가 되어 입구조차 찾을 수 없을만치 베일에 싸여 있던 지하무덤이 발굴되는 행운(?)을 맞았다고하니 황제가 알면 기가막힐노릇이다.

지하궁전을 관람하고 나오는 통로 바닥에 1956년 발굴 당시 무덤의 입구를 표시해 놓은 돌이 발견된 실제 위치에 모조돌을 박아놓았는데 수많은 관광객들이 무심히 돌을 밟고 지나치고 있었다.

권력무상이랬던가! 천하를 호령하다 죽어서도 그 영화를 누리고자 지하궁전까지 세웠던 만력 황제도 사후에는 저렇게 짓밟히는구나 싶어 한편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그의 능묘 앞에 버티고선 붉은색 대



형 비(碑)는 글자하나 새기지 못한 무자비(無字碑)로 남았고, 1966년 문화대혁명 당시 수많은 문화재들이 봉건잔재로 낙인찍혀 파괴될 때 이곳도 예외 없이 젊은 홍위병들이 들이닥쳐 곳곳이 부서지는 수모를 당했다고 한다.

부러워 해야할지 측은해 해야할지 혼돈스러운 명13릉을 뒤로하고 일행을 가장 큰 기대감으로 설레게 했던 만리장성으로 향했다.

끝 모를 '만리장성의 위용'

이동하는 중에 가이드 아가씨가 문득 질문을 던진다.

“차창 밖의 가로수에 흰색 페인트를 칠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유심히 보니 도로변 가로수 하단부가 모두 흰색 페인트를 뒤집어쓰고 있었다.

병충해 방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말이 있었으나 정답은 가로등 대응이란다.

전력사정이 여의치 않아 외곽도로에 까지 가로등을 밝힐 수 없는 이곳 정부의 고육지책이구나!

서두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북경 일대에는 산이라고는 좀처럼 볼 수가 없었다.

가이드 아가씨의 낯두리를 들으며 깜빡깜빡 졸다가 얼마를 달렸을까 갑자기 산이 불쑥 나타났다.

우라부락한 산이 보인다싶더니 저만치 산꼭대기를 타고 하얀 무언가가 꿈틀대며 내려오는 듯 하다. 말로만 듣고 사진으로만 보던 만리장성을 이렇게 첫 대면했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도보로 1천미터에 이르는 산을 올라야만 장성을 밟아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편하게 되었다고 한다.

명성에 걸맞게 만리장성은 입구에서부터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6명이 한조를 이루어 흡사 장난감같이 생긴 소형케이블카에 오르니 불과 3분도 안돼 장성에 도착했다. 일행중 모(某)이사님 내외분은 무섭다며 어린애 마냥 눈을 꼭 감고 계셨다.

만리장성은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북방 흉노족의 남하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시대 흥망을 거듭하며 저마다 앞다투어 쌓았던 제후국들의 여러 성(城)들을 10여년에 걸쳐 연결하고 증축해 오늘과 같은 장성의 위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후에도 명나라때까지 증축은 계속되어 총길이가 6,700km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북경 북방에 위치해 가장 많은 관광객들을 맞는 팔달령장성은 유감스럽게도 진시황제가 아닌 명나라때 세운 장성이라고 가이드가 살짝 귀뜸 한다.

가이드에 따르면 만리장성은 한민족이 북방민족에 대해 갖는 불안감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10여년에 걸쳐 수십만의 백성과 군병력이 동원되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인명이 죽어나갔고 그 주검들이 그대로 장성바닥에 묻혔다고 한다.

광활한 산줄기를 따라 평균높이 8.5m 너비 5.7m를 이뤄 동쪽 해안에 서부터 이곳 북경 팔달령을 거쳐 사막

과 초원에까지 씩없이 이어져 나갔다고 하니 대단한 것인지 무모한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질 않는다.

아무리 인구가 많은 나라라곤 하지 만 도대체 어디서 저 많은 돌들을 산꼭대기까지 옮겨왔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저 감탄사만 연발하다가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 용경협(龍慶峽)으로 향했다.

'용경협' 7km에 펼쳐진 등양화

용경현에서 동북쪽으로 10km떨어져있는 용경협은 북경에서 85km거리에 위치한 천연협곡인데 중국 최고의 경승지라는 계림에 견줄만하다하여 소계림으로 불려진다 한다.

우리 일행의 차량이 주차장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우리 나라의 타우너와 비슷한 소형 승합차가 돌진해 들어오는데 이곳에서는 우리말로 '쌍자' 라고 불렀다.

주차장에서 용경협까지만 전문적으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차들인데 손님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자못 치열해 어정쩡하게 올리타다가는 봉변을 당한다며 가이드가 제차 주의를 주었다.

4~5명씩 한 차량에 승차했는데 반드시 올라갈 때 타고 간 차량을 다시 타고 내려와야 한다며 중국인 기사가 자기차량번호를 쪽지에 적어줬다.

(그런데 나중에 차가 모두 똑같이보여 차량을 못찾고 우왕좌왕하는데 그 기사가 우리를 알아보고 자기차에 태웠다)

입구에 들어서니 우리를 처음 맞은 것은 저만치 산허리에 걸쳐있는 강택민 주석의 대형회화였다.

용경협은 당초 천연계곡이었는데 1980년대 초 중국정부에서 72m높이의 댐을 건설하면서 깊이 71m의 담수호가 만들어져 유람선을 띄우고 본격적인 관광지로 개발되었다고 한다.

계곡으로부터 찬바람이 사시사철 불어 나와 한여름에도 긴팔옷을 입어야 한다는 가이드의 말처럼 절로 몸이 움추러 들었다.

댐 입구에 이르니 크기를 짐작할 수도 없을만치 커다란 용이 입을 벌리고 댐벽을 휘감고 있는데 유람선을 타기 위한 에스컬레이터를 용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색적이었다.

지난 95년 중국정부와 홍콩민간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해 설치했다는 에스컬레이터의 장밖으로는 4월말인데도 댐벽에 얼음 덩어리가 매달려있었다.

호수에는 작은 유람선들이 총총 떠 있는데 수심이 너무 깊은 탓인지 물빛이 잉크를 풀어놓은 듯 검푸렇다.

호수주변에는 수백 미터가 넘는 바위절벽이 병풍처럼 서있는데 그 각도가 90°가 넘는것같아 금방이라도 호수속으로 무너져 내릴것같아 자꾸 불안했다.

우리 일행을 비롯해 30여명이 한배에 승선했는데 검푸른 물빛에 찬바람, 바위절벽에 모두들 기가 죽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연신 감탄사만 내뱉었다.

장장 7km를 뱃처럼 꼬인 계곡을 거

슬러 올라갔는데 기괴모호한 산세가 물빛과 어울어져 그야말로 한폭의 동양화를 풀어놓은 듯 했다.

40여분에 이르는 승선을 마치고 바위동굴을 따라 한참을 내려왔는데 버스에 오르면서도 정신이 멍멍했다.

역사의 현장 '천안문 광장'

제3일째의 일정은 북경중심부에 위치한 천안문과 자금성이었다.

전날 강행군 탓에 피곤했음인가 일행 모두 아침기상이 늦었다.

또, 아침에 열린 비까지 뿌려 모두들 우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동 중에 비는 그쳤다.

천안문에 도착하고 보니 정복차림의 군인들이 사방에 도열해있어 무슨 전쟁이 난 것같이 살벌했다.

게다가 가이드는 천안문이 파룬궁 수련자나 반정부인사의 시위장소로 자주 이용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공안원들이 도처에 깔려있으니 절대로 이상한 동작을 하지 말라고 잔뜩 겁을 줬다.

천안문광장은 우리의 여의도광장과 비슷한 도심공간으로 바다에 반듯한 직사각형 돌을 깔아놓아 집회때에는 두사람씩 한 개들판에 서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입법, 행정, 사법부에 해당하는 국가의 주요 기관들이 위치해 있으며 오늘날에도



국가의 주요행사와 대규모집회가 대부분 이곳에서 벌어져 세계언론의 이목(耳目)이 집중되는 중국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1989년 6월 4일, 중국인들의 민주화 열망이 불출된 천안문사태 당시 인민해방군의 탱크를 맨몸으로 막아선 한 청년의 사진이 외신을 타고 언론에 보도돼 중국의 실상을 세계에 알렸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광장을 중심으로 자금성 방향으로는 천안문이 그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버티고 섰고 대형 모택동 영정이 이곳이 천안문광장을 굽어보고 있다.

또, 그 반대편에는 5월 노동절을 맞아 신해혁명과 삼민주의의 주인공인 손문의 대형사진이 걸려있어 초창기 중국 공산당의 두 주역이 마주보는 형상을 하고 있다.

광장으로부터 지하통로를 따라 한참을 내려가니 맞은편에서 보이던 천안문이 나타났다.

천안문은 원래 명·청 두 시기 황성의 정문으로서 명나라 영락15년(1417)에 건립되어 승천문이라 불리웠는데 여러 차례 화재로 소실되어 1651년 크게 고친 후 천안문으로 개칭되었다고 한다.

천안문은 황제들이 조령을 반포하고 나라의 주요행사시에 황제가 출입하던 문이었는데 이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금수하' 라고 불리는 5개의 한백옥 석 다리를 건너야 한다.

또, 1949년 10월 1일, 모택동 주석이 천안문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선포하기도 했다.

‘마지막 황제’의 무대 자금성

천안문을 지나면서부터는 명·청시대 황궁인 자금성이 펼쳐지는데 자금성(紫禁城)은 명나라 영락 4년(1406)부터 20년까지 72만㎡의 부지에 9천여 개의 방이 있는 세계최대의 건축물이다.

황궁은 성벽과도 같은 10미터높이의 담장에 둘러싸여 있으며 50여미터 넓은 호수를 파서 외부의 접근을 막았다.

건물의 지붕과 벽면은 대개 붉은색과 노란색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것은 중국인들이 붉은색은 귀신을 쫓고 복을 가져다주며 또, 노란색은 황제를 상징한다고 믿기때문이라 한다.

전체 황궁의 구조는 국가적인 행사와 의식을 행하던 외조(外朝)와 황제가 정무를 보고 일상생활을 하던 내정(內定)으로 나뉘며 남쪽 끝인 천안문에서 북쪽 끝인 신무문까지 일직선으로 펼쳐져있다.

황제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외조 중에서도 태화전, 중화전, 본화전에는 흑시나 있을지 모를 저격수들의 은신처가 될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단 한 그루의 나무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석막하기까지 했다.



또, 담장바깥으로부터 굴을 파고 황궁 내로 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다으로부터 지하 3m까지 돌을 촘촘히 깔았다고 하니 가히 첩통보안도 이보다 더 할까?

대부분의 건물들이 3층 옥석기초위에 건립된 건물 곳곳에 황제를 상징하는 용을 새겨놓았는데 어느 건물에는 한개의 옥돌에 새겨넣은 용의 길이가 10미터는 족히 되어 보였다.

그 옛날, 조선을 비롯한 주변국의 사신들이 황제를 알현하자면 이름조차 없는 궁궐의 쪽방에서 수십일을 기다리다 고개한번 제대로 못뚫고 조아리다 나왔을 것을 생각하니 절로 부화가 치민다.

수백년전 조선의 이름 모를 노사신이 종종걸음으로 이 어딘가를 지나쳤으리라!

내정은 건청궁, 교태전, 곤녕궁으로 이루어졌는데 황제가 정무를 처리하고 거주하던 곳이며 그 양측의 동, 서 6궁은 황제의 비빈들이 거처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름을 기억할 수 없으나 한 건물에서는 청나라 어느 황제가 너무 포악해 후궁들을 마구 죽이자 이를 두려워한 몇몇 후궁들이 모의해 잠든 황제의 목을 졸랐다고 한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왕이 깨어났고 이에 격분한 황제는 관계자된 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 건물을 다시는 사용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구궁궁궐이랬던가? 9천9백칸이나 되는 궁궐속에서 얼마나 많은 암투들이 벌어졌는지 누군들 다 알까?

뒤쪽으로 들어갈수록 여성들의 공간답게 건물이 아기자기하며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었다.

자금성을 거의다 빠져나올 무렵, 가이드가 청조의 마지막황제 부의에 얽힌 얘기를 슬며시 끄집어낸다.

베르나르도베르톨루치 감독의 작품으로 아카데미 9개부문 수상에 빛나는 영화 ‘마지막 황제’의 주요 무대가 되기도 했던 자금성, 그 마지막 주인이 비운의 황제 부의(선통제)였다.

1906년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난 광서제의 뒤를 이어 4살 때 서태후에 의해 황제에 오른 부의는 즉위 3년만에 신해혁명을 당해 자금성에 갇히어 사실상 연금생활을 하게 된다.

이후 일본에 의해 만주국의 황제로 등극하고 소련군에 포로가 되는 비극적 운명을 살다간 부의 황제의 삶을 통해 세계사의 큰 흐름 속에서 몰락해 가는 왕조를 그려내고 있다.

우리는 황제의 어린 시절과 관련한 흥미 있는 사실을 목격했는데 바로 건물과 건물사이의 대문을 통해서였다.

어린 황제 부의는 자전거를 즐겨 탔는데 궁궐의 대문턱이 너무 높아 자전거 타기가 불편했다고 한다.

그래서 대문턱의 아랫부분을 자전거 바퀴가 통과할 만큼 톱으로 잘랐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그대로 잘린 채 100년의 세월을 넘어 이제 우리가 밟고 걷는다.

몰락해 가는 왕조의 운명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녔을

부의를 그려보며 자금성의 마지막 문을 나서니 북경 시내에서는 처음 보는 산이 나타난다.

인력으로 흙을 쌓아 만들었다는 경산공원이 그것인데 말 그대로 인공산이었다.

해발 1백미터 남짓한 경산공원은 수백년이 지난 지금은 나무가 울창해 어느 야산과 다를바가 없지만 실제 인력으로 흙을 날라와 산을 만들었다고 하니 믿어야할지 말아야할지!

경산공원 정상에는 큰 정자가 있는데 이곳에서 자금성의 위용이 한눈에 들어왔다.

마침 날씨가 흐려 전체 규모가 다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희뿌연 안개속에 가려있는 왕조의 대저택이 오히려 신비롭게 다가선다.

경산공원을 내려와 잠시 거리노점옆 벤치에 앉았는데 중년으로 보이는 남녀 여러쌍이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추기에 여념이 없다.

‘서태후의 별장’ 이화원과 옹화궁

이어서 청조말 60년에 걸쳐 중국을 철권 통치했다는 서태후의 별장인 이화원(梨花園)을 찾았다.

이화원은 북경에서 서북쪽으로 19km 지점에 위치해있는 청나라때의 황실 행궁으로 1764년 건립되었으나 1860년에 영국과 프랑스연합군에 의해 불타버리고 말았다.

이것을 1888년에 자희태후(서태후)가 해군경비 500만냥을 유용하여 10년 공사 끝에 재건하고 이름을 이화원으로 고쳤다고 한다.

이화원은 총부지가 290ha에 이르는 데 이중 인력을 동원해서 파낸 인공호

수가 220ha에 이르고 이때 파낸 흙을 쌓아 호수옆에 만수산(萬壽山)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화원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태후는 미관말직으로 지내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타고난 총명함과 미모로 1851년 황제 함풍제의 후궁이 되었다.

이후 함풍제가 1861년 30세로 요절하자 그의 아들 동치가 황제에 오름과 동시에 일약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해 이후 60년에 걸쳐 대륙을 호령하게 된다. 틈틈이 이화원에 들러 정무를 보고 여흥을 즐기던 인수전(人壽殿)과 덕화원(德和園)은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지나친 권력욕에 사로잡혀 중국을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한 장본인으로 나인이 찍혔으나 뛰어난 예술적 감각으로 이화원을 가꾸어 오늘날 세계의 관광객들을 불러모으고 있으니 그나마 면죄부가 될는지?



그 자신 화가이며 경극에 직접 출연했을만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던 그녀는 덕화원에서 경극을 감상하다 서유기 등을 표현한 1만4천여개의 그림이 쪽 그려져있는 긴 복도 장랑(長廊)을 따라 가며 사색하다 대리석으로 만든 화려한 배에서 곤명호수 너머로 달을 구경했을 것이다.

어딘가에서 금방이라도 서태후의 카랑카랑한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은 이 화원의 정원을 뒤로하고 수많은 인파에 묻혀 속소로 이동했다.

3박 4일 일정 중에서도 가장 바쁜 셋째날을 보낸 후 호텔에 도착하니 모두들 파김치가 되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마지막 일정임이 아쉬워서인지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마지막 방문지인 옹화궁은 청나라 5대 황제인 옹정(雍正)이 황제에 등극하기 전까지 생활하던 대저택으로 1964년 강희제 33년에 창건된 왕부였으나 건륭9년(1744)에 라마교 사원으로 개명되었다고 한다.

옹정은 강희제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우여곡절 끝에 45세라는 늦은 나이에 황제에 즉위했으나 역대 가장 완벽한 황제의 길을 걸어 그의 재위 13년은 아버지 강희제의 60년, 아들 건륭제의 60년을 합해 청나라 최대 번영기를 구가하게 만든 명군주로 평가되고 있다 한다.

이로써 3박 4일에 걸친 중국역사탐방의 전 일정을 모두 마쳤다.

장대한 중국대륙의 역사를 며칠의 짧은 일정으로 전모를 살펴볼 수는 없었으나 우리 나라 5천년 역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온 중국의 문화와 역사의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에 지역문화발전에 일단의 책임을 지고있는 문화원 임직원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번 방문에 귀한 시간을 내어 동참 해주신 본원 임원님 여러분과 사모님, 그리고 현지가이드 오태화씨, 자유여행사 정하길씨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

가곡의 명인 ‘박효관’ (雲崖 朴孝寬) : 조선 고종 때 가곡의 명인, 제자 안민영과 함께 가곡원류(歌曲源流) 편찬, 노래하는 사람의 귀감이 될 가론(歌論)을 확립, 문학과 음악발전에 크게 이바지



박효관의 출신 가계(家系)나 생애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으므로 알 수 없으나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 생각된다. 다만 안민영의 ‘금옥총부(金玉叢部)’의 ‘서문’ · ‘논오음지용유상생협률(論五音之用有相生協律)’, 안민영의 자작 시조

은 숙종 · 영조 때의 경정산가단(敬亭山歌壇)을 방불케 할 만큼 번성했다.

박효관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호: 석파(石坡), 본명: 이하응(李晙應)〉의 총애를 받아 그로부터 ‘운애’라는 호를 지어 받았다. 그의 풍류는 안민영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과 대원군과 그의 큰아들이자 고종의 형님인 우석상서(又石尙書) 이재면(李載冕) 즉 왕족과 사대부의 후원 아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매우 든든한 후원자를 얻어 그의 활동에 지장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박효관이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안민영(安玟英)이 지은 시조의 설명에 의하면 거의 90세를 산 것으로 생각된다.

작품과 이 작품에 붙어 있는 설명문, 그리고 그의 ‘가곡원류(歌曲源流)’의 발문에 의해 그의 생애(生涯)의 단편적인 모습 · 활동상황 · 인품과 음악관(音樂觀) · 시가관(詩歌觀)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는 일생을 서울의 인왕산(仁王山) 아래 필운대(弼雲臺)에 숨어서 살면서 시(詩) · 술(酒) · 노래(歌) · 거문고(琴) · 바둑(碁)을 즐기면서 살다간 당대의 명가객(名歌客)으로 분재(盆裁)에도 일가견을 가졌다.

박효관은 노인계와 승평계를 조직해 즐겼다고 한다. 벗으로 지내고 있는 여러 노인들이 있어 또한 당대에 호걸이라 일컬어졌는데 이들로 노인계를 조직해서 즐겼다. 그는 당대의 풍류재사(風流才士)로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의 문하에는 많은 풍류객들이 모였고, 호화부귀(豪華富貴)와 유일풍소(遺逸風騷)의 사람들을 모아 승평계를 조직해 오직 환오(歡娛)하고 연약하는 것을 일삼았는데 박효관이 실제로 그 맹주였다. 제자인 안민영과 함께 조선 고종 때 만든 이 모임은 조선 후기 가객(歌客)들의 동호회(同好會)로서 1864년(고종 1)부터 1907년(융희 1)까지 활동했다. 가객이란 당시에 가곡 · 가사 · 시조 등 성악곡에 능통했던 사람들을 말한다. 그 활동

그는 평생 동안 기쁨을 나타내었지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고 항상 남을 즐겁게 하는 군자의 풍도(風度)를 가졌다. 세속의 무리들과 어울려 이욕(利慾)에 얽매이지 않은 고치아운(高致雅韻)의 인품을 지녔다. 따라서 그의 인품은 남들의 추앙을 받았으며, 그를 따르는 교방(敎坊)과 구란(句欄)의 풍류재사(風流才士)나 야유사녀(遊遊士女)들도 그의 이름과 자를 부르지 않고 박선생이라 불렀다.

박효관은 가곡창(歌曲唱)의 대가 · 시조의 작가 · 풍류인(風流人) · 가곡원류의 공편자로서 문학과 음악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1876년(고종 13)에 제자 안민영(安玟英)과 함께 《가곡원류(歌曲源流)》를 편찬, 그때까지의 가곡을 30곡조로 나누어 연음표(連音標)를 붙여서 총정리하고, 또한 가인(歌人)의 귀감이 될 가론(歌論)을 확립하였다는 점이다.

가곡원류(歌曲源流)는 가곡을 부르기 위한 가사들을 모아서 펴낸 옛 시가집(詩歌集)이다. <청구영언(靑丘永言) · <해동가요(海東歌謠)와 함께 3대가집(三大歌集)의 하나로 꼽힌다. 이 책은 가객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가사집이었으므로 이본(異本)이 14종이 있는데, 다른 가집에 비해 매우 많은 편이다.

삿갓쓴 시인 ‘김병연’ (蘭臯 金炳淵) : 1807~1863, 조선후기 시인, 방랑시인 김삿갓. 짙은 해학과 풍자를 담은 시들을 비롯, 기이한 행동으로 많은 일화를 남김. 주요시집 : <김립 시집(金笠 詩集)>

그는 이름이 병연(炳淵)이고, 호는 난고(蘭臯)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삿갓을 쓰고 다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삿갓’이라고 불렀고, 어느만큼 인정을 나누는 사이에서는 성(性)인 ‘김’을 붙여 ‘김삿갓’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김삿갓’이란 뜻인 ‘김 립(金笠)’으로 주로 표기했다.

1807년(조선조 순조 7년) 3월에 한양성의 북서쪽인 경기도 양주군의 북한강이 가까운 곳에서 태어났으며, 5세 때인 1812년 12월에 서북 지방(평안도)의 청천강 북쪽 지역에서 일어난 <홍경래 난>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조정의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고 관리들의 수탈과 학정에 저항해서 일어난 이 난은, 단 10일 만에 청천강 북쪽 지역의 8개 군·현을 장악해 버릴 정도로 백성들의 큰 호응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이 때 공교롭게도 그의 할아버지인 김익순은 그 8개 군·현 가운데 하나인 선천군의 부사 겸 방어사로 있었다. 할아버지는 일단 난군에게 항복했다가 적진을 탈출했다. 그러나 항복한 뒤에 적을 위해 협력하고 탈출한 뒤에는 남의 공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대역죄를 받아,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다. 그 때 다행히 할아버지를 뺀 나머지 가족은 목숨을 구했으나, 그는 형과 함께 황해도 곡산에 있는 종의 집으로 가서 피해 살았다. 7세 때 가족이 다시 북한강변에 모여 살게 되지만 그곳에서 아버지와 동생이 죽었다. 그래서 살아남은 어머니와 형 그리고 김병연만이 강원도 영월로 숨어들어 앞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김병연은 20세 때의 봄에 영월 관아에서 실시한 백일장에 응시해서 장원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가을에 열릴 초시(생원시, 진사시)를 포기하고 곧장 한양으로 나갔다. 그는 한양에서 신분을 숨긴 채 2년간쯤 의도적으로 명문대가의 자식들을 사귀어 교유하면서 벼슬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실력이 출중한 그는 어렵지 않게 그 길을 찾게 되지만,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벼슬길은 그가 나갈 길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러운 벼슬길에 대한 욕망을 다 털어 버리고 바람처럼 구름처럼 세상을 떠도는 자유인의 길이, 그가 택한 길이였다.

그의 시는 해학과 서정, 관조적 허무와 격물정신으로 규정된다. 그의 자유혼은 시의 소재나 형식에서 규범과 탈규범을 넘나들기도 한다. 한시의 전통적 방식을 거침없이 해체해서 파격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한시를 음이 아닌 뜻으로 읽게 한다든지, 한글을 섞어서 쓰는 시들이 그런 경우가 될 것이다.

그는 1863년(철종 13년)의 봄에 57세의 나이로 전라도 동북현(전남 화순군 동북면)의 달천변에서 35년쯤의 긴 방랑시인의 삶을 마감했다.

김병연은 1천여편의 시를 쓴 것으로 여겨지지만 현재까지는 456편의 시가 찾아졌을 뿐이다. 그가 죽은 지 76년 만인 1939년에 김병연의 첫 시집인 ‘김립 시집’이 엮여졌다. **문**

삼각산 축제 서울의 대표적 문화행사로 키울 터

강민철 domingo@cultureplus.com



문화원장 출신 구청장 / 김현풍 강북구청장

-우리나라의 문화원과 상응하는 게 일본의 공민관이라 할 수 있는데…

“일본의 성장 기반은 바로 공민관이에요. 공민관은 우리나라로 치면 문화원이라 할 수 있죠. 국민들에게 꽃꽂이·차동차등의 강좌를 통해 기본소양을 길러 주고 도덕질서에 대한 중요성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을 성장시킨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문화강좌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기본소양

을 틈틈이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교육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선 안됩니다. 저는 노래교실에 나가 강단에 서면 재미있는 얘기 몇가지 딱딱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으며 귀를 쫑긋 세워 들어요.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소양이 가르쳐지는 거죠. (그는 이제 3기째에 접어든 강북문화대학도 대학생처럼 가운과 사각모를 착용해 졸업식을 치르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말고 보니까 문화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더군요. 그렇다고 돈을 쏟아붓는 것만이 투자가 아닙니다. 공연 하나를 하더라도 구민으로 하여금 ‘이게 문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죠. 술집을 드니다고 당구장을 다니고 본드 흡입하던 청소년들이 문화행사가 열리는 구청광장을 지나가다 음악소리를 듣고 다가와 재미있게 어울릴 수 있으면 문화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원장으로 계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다른 문화원장들과 (문화에 대한) 개념이 많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저와 가는 길이 달랐다는 것이죠. 저는 전통문화하는 사람으로서 일단 그것에 파묻혀 살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상들의 ‘얼’까지는 못가더라도 걸음으로 흥내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개량한복 입고 고무신 신고 막걸리 즐겨 먹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서울시 문화원장 가운데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 저 말고 또 있습니까? 전통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구두선으로만

6.13 지방선거에서 박빙의 경합 끝에 구청장으로 당선된 김현풍 강북문화원장(61).

그는 요즘 산더미같은 규정업무에 파묻혀 산다. 잠깐 민정을 시찰하고 돌아와 보면 민원인과 결재 서류들이 땀 뻘뻘 여유도 주지 않지만 불만은 없다. 오히려 이 모두가 즐겁다는 표정이다.

‘김현풍치과’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는 치과의사로 도봉문화원장·강북문화원장·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시지회장을 지낸 그는 문화원장 출신 구청장답게 생활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기자를 맞이했다.

인터뷰는 문화원 안팎의 얘기를 나누다가 공민관으로 튀었다.



외칠 게 아니라 몸소 실천해 보는 자세가 절실합니다.(그는 인터뷰 도중 단군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문화원만이라도 단기 연호를 써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북구의 문화관광상품화 전략은?

“우리 강북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세계적인 명산 ‘삼각산’이 솟아 있습니다. 삼각산에는 국립 4.19묘지를 비롯한 이준 열사, 손병희 선생, 신익희 선생, 김창숙 선생 등 수많은 애국선열 묘역이 있습니다. 또한 도선사 마애석불, 천도교 봉황각, 화계사 대웅전 등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진 강북구를 ‘삼각산’이라는 명산을 주축으로 ‘불거리’, ‘떡거리’, ‘실거리’가 있는 세계적인 문화관광단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강북구의 대표적 문화예술 축제인 ‘4.19혁명기념 소귀골 음악회’와 10월에 열리는 ‘삼각산 축제’를 다양화하고 국가차원의 행사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삼각산 축제는 목덕산·구월산과 함께 3대 명산인 삼각산에서 벌어지

는 국내의 대표적인 단군 제례 재현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신내림을 볼 수 있는 곳거리 세관이 하이라이트인데 이미 고정 관람객이 5천명에 달합니다. 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남 보성, 경북 김천, 경기 양평, 강원 고성 등 국내 4개 시군과 문화 교류를 통해 축제를 보러 오게 하는 한편 해외 자매 도시인 중국 심양시 대동구를 비롯 일본 미주 유럽 등 외국인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문화원이 몇년째 개최해오고 있는 한강축제를 강남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하는 한편 삼각산 축제를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키워 서울의 양대 축제로 육성해보자는 의견을 구청장협의회에서 공식 제기해 볼 생각입니다. 이번 축제부터는 ‘영정사 진찍어주기’도 이미지를 밝게 하기 위해 ‘장수사진찍어주기’로 명칭을 바꿔 치를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각산에 있는 순국선열 및 애국열사 묘역을 성역화하는 것을 비롯, 다른 문화유적과 연계해 후손들의 역사체험 순례지역으로 가꿈으로써 강북구만의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문화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민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문화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문화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왜 문화원이 설립되었는지등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문화원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원의 각종 프로그램이 소수의 여유계층을 위주로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적극적이고 너그러워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문화원 재정이 일정한 수준에 이를 때 까지는 구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원과 지자체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가?

“문화행사는 전문집단인 문화원에 이양해야 합니다. 아직 문화원이 도맡아 치르기가 어렵다면 시기적으로 조정해 가며 차츰차츰 이양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원도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화원이 하는 행사는 다른 기관·단체의 행사와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문화가 정치·경제·사회를 지배해야 하는데 거꾸로 정치·경제·사회에 문화가 종속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주민들로 부터 널리 존경받는 문화원장만이 이런 종속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한가위

류 장 수 | 前 우리문화 편집주간

-문화예술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지방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예술에 대한 공무원들의 생각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련 공무원들을 문화참여 프로그램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해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쌓게 하는 한편 현장에서 운영되는 문화이벤트 기획담당자들과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 문화관련 공무원들에게 선진 지방자치 단체나 세계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선진문화 탐방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여느 시군에서는 보기 드물게 강북구청은 1층 민원실 옆에 구청장실이 마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여기에다 한술 더 떠 김구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청장실 평수를 대폭 줄여 좋은 이미지를 심어놓았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치과 의사인 그에게 문화원장 때가 좋냐 지금이 좋냐고 우문(愚問)을 던져봤다. “문화원장도 좋고 구청장도 좋고...”하는 말끝에 이어진 현답(賢答)이 꽤 근사했다. “치과의사는 이를 치료하지만 구청장은 마음을 치료합니다”

음력 8월 15일. 추석·중추절·가윗날로 불리는 한가위는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우리나라 명절중 하나다. 가위의 한은 ‘크다’ ‘바르다’의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란 뜻을 담고 있다. 8월중에도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의미다. 추석이 되면 조상의 무덤에 가서 여름동안 무성하게 자란 풀을 베며 조상의 은덕을 생각한다. 추석날은 아침 일찍 종가에 모여 햇과일 햇곡식으로 제사음식을 장만해 4대조까지 차례를 지낸다. 추석은 당나라 문종때 입당 수도한 일본의 승려 원인(圓仁)이 저술한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와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있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산동지방(신라방)에 머무르고 있는 신라사람들만이 8월 15일에 독특한 명절놀이를 하였다. 그곳 늙은 승려의 말에 의하면 ‘이날이 신라가 발해와 싸워 크게 이긴 날이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는 뜻에서 명절로 정해 백성들이 온갖 음식을 만들어 가무로써 즐겼다. 이절 역시 신라사람의 절이므로 자기들 조국을 그리워하며 명절놀이를 한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삼국사기에는 “신라 유리왕 9년에 국내 6부의 부녀자들을 두편으로 갈라 7월 기망(16일)으로 부터 길쌈을 해서 8월 보름까지 하게 했다. 그런 후 그 질과 양의 성적을 심사해 승부를 결정하고 진 편에서 이긴 편을 술과 음식으로 대접했다. 이날 달 밝은 밤에 위로 는 임금과 백관 대신을 비롯해 아래로는 서라벌 수십만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녀와 부녀자들이 밤이 지새도록 ‘회소곡(會蘇曲)’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흥겹게 놀았다. 이것을 그때 말로 가배, 가위라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수확의 계절인 가을의 대표적 명절인 추석은 햇과일과 햇곡식으로 술을 빚고 떡을 만들어 배불리 먹는 몸도 마음도 기쁜 날이다. 사람들은 휘영청 밝은 대보름달을 바라보며 우리 속담에서 처럼 ‘일년 열두달 3백65일 더도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빈다.

추석놀이

① 거북놀이

이 놀이는 신라 문무왕 때부터 유래했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속설에 의하면 장수동물인 거북은 동해 용왕의 아들로 여겨져 1년에 한번씩 거북을 위함으로써 모든 잡신을 몰아내고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며 부락의 안녕을 도모한다고 한다. 거북놀이는 경기도와 충청도 등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에서도 연희된 흔적이 있다. 몇 년전부터 경기 이천 지방에서는 거북놀이가 재현돼 전승되고 있다. 거북놀이의 구성을 보면 기수 1명, 질라재비 1명, 거북이 2명, 시중 2명, 어릿광대 1명, 농악대 수행원 등과 의사 1명으로 구성된다.

② 소놀음

경기도와 황해도 일원에서 주로 놀아진 민속놀이이다. 특히 양주소놀이굿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로 지정되어 있다. 소놀음은 농경의식에서 비롯된 소의 형태를 취한 곡물령(穀物靈)에 관한 의식이다. 농사, 사업, 장사 등이 잘되거나 농지를 마련했을 때 자손이 번창하도록 비는 뜻에서 하였다. 양주소놀이굿은 환자가 생겨 약귀를 쫓겨내 달라는 우환굿과는 달리 잘 되라는 경사굿이다.

③ 강강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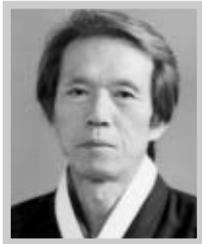
강강술래는 우리나라 여성놀이이다. 여성놀이 중에서도 가장 정서적이고 율동적인 놀이가 강강술래다. 한가위 달 밝은 밤에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손과 손을 맞잡고 뛰어노는 큰 애기들은 바로 약동하는 젊음과 생명력 그 자체다. 강강술래는 주로 남해안에 분포되어 전승되고 있다. 전라도의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경상도 영일, 의성, 북쪽으로는 황해도 연백까지 분포되어 있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5월에 씨를 다뿌리고 귀신에게 제사 지낸다. 때를 지어 노래하고 춤추며 술을 마신다. 수십명이 함께 춤을 추는데 이 춤은 10월에 농사를 끝낸 후에 다시 춘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강강술래는 임진왜란과 연관됐다고 전해진다.

이순신장군이 임란 때 명량바다에는 우리 전선이 12척밖에 없는데 왜선은 350척이나 되어 중과부적으로 왜적과 맞서기 어렵게 되자 아낙네들을 모아 군복을 입히고 수십명씩 무리를 지어 산봉우리를 돌게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왜적이 마치 수만의 대군이 산봉우리를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고 한다. 이충무공은 이 같은 의병술(擬兵術)로 왜적을 물리쳤다는 것이다. 강강술래의 놀이방법은 20, 30여명의 여자들이 손과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이루고 빙빙돌면서 그 중 목청이 구성진 사람 하나가 선창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후렴으로 '강강술래'를 합창하면서 원무(圓舞)를 추는 형식이다.

이 밖에도 추석 민속놀이에는 줄다리기, 씨름, 지신밟기 등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허백영 (의경문화원장)

지금 육십대 분은 예닐곱살 때가 될것 같다. 오륙십년전의 얘기니 케케묵은 얘기를 한다고 나무랄것도 같다. 그러나 이글은 전혀 꾸며진 얘기거나 삶을 덧붙여 쓴 글이 아닌 필자 자신이 어릴적에 보고, 듣고, 느낀바를 가감없이 적은 체험이라 할 수 있다. 해마다 운명처럼 맞이했던 보릿고개(맥령기, 춘궁기)를 실제로 겪은 분들도 너무 긴 세월을 보내면서 대부분 잊혀졌겠지만 그래도 아픈 추억의 한지락일 것이다. 그 시절을 살아온 분들은 아련한 기억이지만 “그랬지, 그랬어”라면서 웃으며 읽어 볼 것이고 오늘날 의식주는 물론 온갖 것이 넘치도록 풍족한 세상 그야말로 소비가 미덕이라면서 흥청망청의 어지러운시대에서 지라나고 있는 세대들에겐 이해가 쉽지않을 점도 있을 것이다. 다만 오늘의 이 눈부신 번영을 누리기까지 온갖 고난과 희생을 운명처럼 감수하면서 살아온 앞세대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대충 생각나는 바를 소개 하고자 한다.

보릿고개를 아시나요?

■범보다 더 무서운 입살이

일제 강점기 혹독한 식민통치와 경제적 수탈(당시 말로는 공출 또는 자진헌납이었다.) 때문에 우리 민초들의 삶은 말이 아니었다. 생활이라기 보다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할 것이다. 해마다 보릿고개(맥령기, 춘궁기)를 운명처럼 맞이하면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다. 삼시세끼 흰밥(쌀밥, 이밥)을 먹거나 상반밥(쌀과 보리를 반섞이한 밥)을 먹는다는 말은 곧 부재(부자)집을 뜻했다. 송구죽(소나무 속 껍질을 벗긴 송기로서 곡식을 조금넣어 끓인 죽), 송구개떡(송기와 쌀겨 또는 보리겨를 섞어서 찐 떡)으로 두어끼를 때우기 예사였고 무시밥(무우채를 넣은 밥), 고구매밥(고구마를 넣은 밥), 감자밥(감자를 넣은 밥)은 고급 대용식이었다. 시커먼 콩보리밥(깡보리

밥, 그시절의 보리쌀은 디딜방아로 찼은 것인데 보리껍질만 살짝 벗긴것)도 제대로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고 부녀자들은 날새기가 무섭게 씨근밥(식은밥)을 넣고 끓인 김치국밥(김치국밥) 한사발 먹고는 줄지어서 자굴산(의령의 진산으로 해발 897m)으로 향했다. 쑥과 산나물을 캐러 가야했다. 해거름때면 섬(곡식을 넣는것인데 두가마니가 약 한섬이다)만한 보통이를 이고 집으로 와서는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쫓나물을 가마솥에 넣어 삶아서 햇볕에 널어 말려야 했다. 말린나물은 밥에 섞거나 개떡을 만들 때 넣는 대용식량이었던 썸이다. 억센 껍질만 살짝벗긴 통보리와 말린 산나물을 섞거나 보드라운 당기(쌀이나 보리의 겨를 말함)와 섞어서 찐 거שב밥(나물이나 시래기를 섞어서 지은 밥)으로 배를 채웠다. 또 설아래 들밭에서 주어



짚 지붕의 오두막 집



옛시절 서민층 부녀자들의 옷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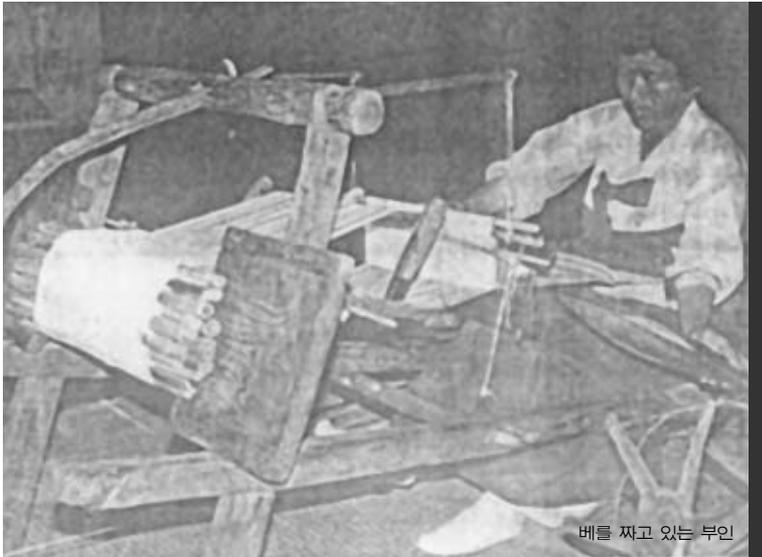


장가든 어린 신랑 모습

다가 엮어서 말린 무시(무우)나 배차(배추)시래기를 넣어서 끓인 씨레이갱죽(시래기죽), 썩과 덩기(쌀이나 보리)를 버무려서 찐 썩털털이(썩개떡)도 썩썩은 간식거리였다. 싸래기나 흰덩기(하얗고 부드러운 계)에다 꿀아재비(사카린인데 꿀보다 더 달다는 뜻으로 붙인 토박이말)를 넣고 찐 개떡도 정작 꿀맛이었고 꼬맹이들은 한덩이만 쥐어도 신이났다. 밀을 빵아 가루를 받아내고 남은 껍질로 끓인 밀저불죽(밀기울죽), 메밀을 통째로 갈아서 곡식을 조금 넣어 끓인 메물당수도 별미 음식처럼 먹었다. 그 짜분(짠) 지렁장(간장)과 된장 그리고 자주 먹는 소곰(소금)에 중독된 때문인지 누우렇게 부황기까지 얻게된 산모나 어린애들을 쉽게 볼 수 있었으니 음식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배만 채우면서 굶어서 죽지않으려는 처절한 발버둥이었다 할 것이다. 몸이 편찮은 조부모님이나 부모님께 효도를 한답시고 잡숫게 하는게 고작 쌀미음(쌀죽, 통미음)이나 흰죽에 깨소금 반찬이었다. 귀한손님이 오시거나 가족들에게 보신을 시킨답시고 큰마음을 먹어야만 토종닭(종닭)에 도라지뿌리(질경)나 뽕나무 뿌리를 넣고 아껴두었던 찹쌀을 조금넣어서 고은 닭고음은 삼계탕이나 보신탕을 같음하였다. 삼시세끼 쌀밥에 고기반찬을 먹었다는 말조차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고달프고 허기진시절 이었다.

날이 새자마자 꼬맹이들은 앞다투어 감나무 밑으로 몰린다. 감돌개(감꽃)를 줍기에 바빴는데 뚝은 감돌개를 쥔 해미에 꺾어서 한이를 말리면 달짝지근하여 군것질로는 일품이었다. 초복을 넘기게 되면 감이 은행알만한데 그것을 주워서 현양재기나 깡통에 넣고 물을 부어서 하루만 지내고 나면 뚝은 맛이 없어지게되는데 그걸 건져 먹기가 바빴다. 남의 명밭(목화밭)에 숨어 들어가서 새파랗고 몰랐한 명다래(목화열매, 익으면 목화(솜)가 생긴다)를 따먹으면 설탕과자 보다 더 달았는데 더러 밭임자에게 들켜서 혼이 나기도 했다. 메피(메뚜기), 연치(여치), 왕매미, 가재 등은 영양가 높은 간식이면서 웃어른들께는 좋은 반찬거리이자 술안주이기도 했다.

꼬맹이들의 우상이라면 역시 옛장사할배(옛장수 할아버지)였다. 동구밖에서부터 쟁그랑거리며 두드리는 가새소



베를 짜고 있는 부인



옛집수와 꼬맹이

리(가윗소리)와 킁킁한 목소리만 들어도 연신 침이 넘어가고 엄마나 할머니 치마꼬리를 붙잡고 늘어진다. 다떨어진 고무신이나 현웃가지, 쇠동가리(쇠동강이)를 가져가면 겨우 시키면 보리엿 한두가락 얻어 들게되는데 마냥 춤이라도 추고 싶도록 신이 났다. 그러다보니 아직 신어도 될 고무신짝을 일부러 찢기도 했고 돌가리바닥(시멘트바닥)에 문질러서 구멍을 내기도 했는데 더러는 야단을 맞기도 했지만 모르는 척 하면서 속이주는 할매와 엄마덕으로 바꿔먹기는 했지만 새신을 사야만 했으니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취조를 받게되고 혼줄이 나게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 시장이 반찬 괴기는 밥도둑놈

무더운 여름이 한고비를 넘기고 하늘이 덜렁 높아질때면 소 먹이러 가거나 나무하러 가는 것이 신나고 좋았다. 산에 가면 돌배(야생배, 산배), 돌복숭(산 복숭아), 깨금(깨암, 은행같은 열매), 굴밤(줄참나무 열매, 도토리와는 조금 다름), 머리(머루), 산다래, 뽕뽕(볼레나무의 열매), 까시열매(까치밥, 찢레나무의 열매)등 먹을거리가 지천이었다. 피쌀(피의 열매)이나 찢쌀(꽃나락을 찢서 껍질만 벗긴 쌀)을 잡아주는 엄마가 그렇게도 고마울수 없었다. 팔이나 돈비(동

부), 제비(좁쌀), 잔지리(기장)같은 잡곡을 섞은 새쌀밥은 반찬이 필요없을 정도로 입맛을 돋우었다. 밥상앞에 앉으면 그저 내 밥이 작다고 투정을 부리긴 했지만 반찬이 안좋다거나 괴기(고기)가 없다고 불평하지는 않았다. 시장이 반찬이고 배만 채우면 정승이 부럽지 않았던 그런 고달픈 시절이었다. 어쩌다 고기반찬이 오르는데 소금에 절인 것이라 짠맛 뿐이었다. 들밭이나 남새밭에서 공들여 가꾸고 거둔 고추, 깨, 마늘, 들깨등도 토실한 것은 장에 내다팔아 돈을 사야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갖은 양념은 생각지도 못했다. 머슴이나 품앗이 일꾼들의 설참 막걸리 안주도 소금 몇덩이와 소태같이 짠 새갈치 한토막이 고작이었다. 괴기반찬(고기반찬)이란 효성의 대명사 였고 손님밥상에는 그래도 귀한 반찬이 놓였으니 철없는 꼬맹이들은 눈독을 들이면서 침을 삼키곤 했다. 눈치 챈 엄마의 『야야, 그건 할배가 자시는 약이다』란 말을 듣고는 그런가부다고 믿었던 것이다. 제삿상에 올랐던 어물이나 살계기(살코기)도 나누어 먹지 않고 얼른 치워버리는데 그걸 햇벌에 바삭 말려두었다가 어려운 손님이 오실 때 찬수거리로 쓰기위해서 아예 높은 실경(시렁)위로 올라가고 말았다. 「괴기(고기)는 밥도둑놈이제」 「괴기냄새 많이 맡으면 부시럽(부스럼)이 많이 나는 기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참말 그 이상의 지혜가



목화로 실을 뽑고 있는 부인

담겨 있었으며 「자린고비」 「노랭이(노랑이)」 「구두쇠」 이야기의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편찮은 상노인에게 바치는 정성은 놀라울 정도로 대단했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절대적인 가치였다. 정녕 범보다 더 무서운 입살이를 위해서 그토록 소중한 족보도 내던져야 했고 부녀자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정절까지도 팔아야 했던 이야기에 입 하나를 덜기 위해서 애지중지 길러온 누이를 남의 집 수양딸로 보내야 했던 눈물겨운 사연이 허다했던 시절이었다.

머슴애가 많은 집에서는 새끼머슴(아이머슴), 반머슴(일년에 반만 머슴살이를 하는 것)살이를 시켜야했던 슬픈 얘기는 고달프기 그지없던 민초들의 한(恨)세월 바로 그것이라 할 것이다.

■ 몽당중우와 핫바지

봄부터 늦가을까지는 예외없이 삼베로 몽당중우적삼(짧막한 아랫도리 옷과 적삼(저고리))으로 지냈고 겹옷과 속옷이 따로 없었으니 겨우 살만 감춘 정도의 옷차림이었다. 소문난 부자집 어른들은 눈부시게 다듬은 모시옷을 입었다. 추석치리(추석빔, 추석치레옷)가 그렇게도 기다려졌을 뿐 아니라 무슨옷을 얻어 입을 것인지 달포전부터 손꼽아 기

다렸지만 기껏 명베(무명베)나 광목, 옥양목에 물(염색)을 드러서 만든 옷이 고작이었다. 한겨울 추위때는 쓰개(목화솜)나 거와(거왜- 솜으로 얇게 장을 지은 것)를 두둑히 속을 넣은 핫바지, 핫저고리(솜을 넣은 바지와 저고리)를 얻어 입으면 그나마 행운이라 할 수 있었고 보통은 홑옷을 두겹세겹 껴입고 추위를 견뎌야만 했다. 광목, 옥양목, 명주와 비단같은 옷감이 있기사 했지만 가난한 민초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던 것이다. 그시절엔 짐집마다 베틀, 물레, 다듬잇돌, 돌곳(삼을 나를 때 빙빙 돌리는 김쌘도구)등은 필수도구였고 삼삼기, 명작기, 베짜기를 못하는 며느리는 흉잡힐 정도가 아니라 큰 허물이자 욕이었고 시어른들의 눈에 나고 심한 구박을 받았던 것이다. 여름엔 삼삼기(삼을 가늘게 쪼개어 잇는 작업), 겨울엔 명작기(무명실을 뽑기 위해서 물레질하는 작업)와 베틀일로 동짓달 긴밤도 너무 짧았으니 눈불이자 날 샌다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팔다리, 허리, 어깨가 쭈시고 결린다는 어머니나 할머니들의 고질병은 모두 이런 심한 가사노동에서 비롯된 것이니 여자의 한은 깊어만 갔던 것이다. 세한삼동에 얼어서 시린발은 깎치보선(까치버선, 무명베버선인데 흰색, 검은색을 섞어서 만든 버선), 핫보선(솜을 얇게 넣어만든 겹버선)으로 견디었고 아래웃도리 할 것 없이 작아진 옷이 내복이었고 두겹을 껴입는 것이 보통이었으니 꼬맹이들의 손발은 얼어터져서 피가날 정도였고 바를 약도 없었다. 머리채가 제법 긴 가스나(가시내)들이 영성한 값싼 비단이나 빨간색 박사치마만 걸쳐도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제법 으스스대고 철부지 머슴애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던 그런 시절이었다. 추석과 설명절 그리고 생일날과 제삿날이 얼마나 기다려졌던지 백날도 더 남은 때부터 손을 꼽기 시작했으니 새 옷 한벌 얻어 입고 떡이며 유과등 맛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등따시고(등이 따뜻하고) 배부르면 그만이지 무슨 큰 욕심을 부리느냐면서 나무라기도 했으니 어쩔 그시절 욕심없이 살아가던 민초들의 삶의 자세이자 믿음이었고 소박한 염원이 담겨있는 말이라 할 것이다. **문**



우리소리와 지구촌소리 어울리는 '2002전주세계소리축제'

2002 전주세계소리 축제가 '소리사랑 온누리에' 를 주제로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9일 동안 소리의 고향 전주에서 국내외 공연단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2002소리축제는 기획프로그램, 초청프로그램, 부대프로그램 등 3개 분야, 9개 테마, 30개의 프로그램에 걸친 179회의 공연과 더불어 국내외 공연단·도내공연단·일반참가팀 등 총 156개팀 4,500여명이 출연하는 초대형 예술문화축제로 펼쳐졌다.

기획프로그램·초청공연·부대프로그램등 3부분으로 나누어 열린 축제는 우리 소리와 지구촌 소리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선사했다. 특히 기획프로그램은 첫째 인간의 목소리 중에서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합창', 둘째 소리축제의 건강한 세계성을 담아내는 프로그램 '미지의 소리를 찾아서', 셋째 다각적으로 판소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집중기획 판소리!' 로 풍성하게 구성됐다.

특히 이 중에서 '미지의 소리를 찾아서'는 지구촌 5대양 6대주 문화권별로 다양한 민족들이 계승 발전시켜 온 고유의 종족 음악들을 한 곳에 모아 공연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연의 소리를 내는 북극 누나부트 지방의 이누이트족 에스키모 소녀의 노래(캐나다), 2000년 세계합창올림픽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유스합창단의 토속민요(내몽고-중국), 잉카문명의 특성이 담긴 안데스 민속그룹 '시사이'(에콰도르), 원주민 특유의 의상·창법·춤을 선보이는 마오리족 원주민 합창(뉴질랜드), 여성 아카펠라 합창 '그람니스키'(벨라루스), 구비서사요 '보파'(인도) 아프리카 원주민 합창(코트디부아르), 남성 아카펠라 '라샤리 앙상블'(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최고 명예공로배우의 칭호를 받은 무감 트리오 샤르 그불불(아제르바이젠), 미지의 소리 허메이(몽골) 등 10개국의 세계종족음악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한국의 판소리와 같은 형태를 가진 4개국의 구비서사요를 비교 시연하는 '아시아 1인 구비서사요' 도 함께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와함께 '세계의 합창'은 체코 보니푸에리등 해외 유명합창단과, 뉴질랜드 마오리 원주민 합창단, 전북 판소리 연합합창단들이 참가해 화려하게 펼쳐졌다. 또한 '집중기획 판소리!'는 소리의 보고장인 전라북도를 무대로 다양한 판소리를 유감없이 선보였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유파와 계보를 이어오고 있는 명창들과 그 제자들이 꾸미는 무대 '판소리 명창名家-유파별 연창' 국내 최고의 명창들이 하루씩 번갈아가며 5일동안 판소리 다섯바탕의 진수를 선보이는 '판소리 다섯바탕의 멋', 중견 소리꾼의 무대로 차세대 명창을 발굴·보존하고자하는 '득음의 경

지-완창발표회', 신인이 소리꾼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명창 등용문', 판소리의 초기 모습을 음반을 통해 재현하는 심야 시간 특별 프로그램 '고음반 감상회' 등 신인과 중견에서부터 명창까지, 고전 다섯바탕에서 창작판소리까지, 축제기간 9일간 내내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펼쳐 전북이 판소리의 본고장임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특별초청 프로그램은 해외특별초청과 국내특별초청으로 구성됐다. 해외특별초청단체로는 중국 최고의 공연단 '돈황예술극원'의 '돈황고악(敦煌古岳)'이 나왔는데 돈황예술극원의 공연은 화려한 의상과 정교한 무대장치가 돋보였다. 한·중 수교 10주년 특별프로그램으로 문화관광부와 공동 주관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돈황고악(敦煌古岳)은 당나라시대의 음악과 의상과 춤을 완벽하게 재현해 특수무대와 함께 환상적인 공연을 선사했다.

그리고 명상음악프로그램인 인도의 '아유타(고대 인도를 뜻함)'가 공연하는 '아유타에서 불어온 바람'과 티벳의 나왕케축의 연주가 있었다. '아유타'의 공연은 신에 다가가고 신을 찬양하기 위한 음악에서 발전한 인도 고유의 명상음악으로 한국의 백인영 교수와 가야금 실내악단 '예랑'과 협연했다. 또 티벳 나왕케축은 티벳 고유의 악기로 명상음악을 신비한 뉴에이지풍으로 연주하는 월드 뮤지션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대금, 생황, 단소 등과 함께 신용문 교수의 협연이 이루어졌다.

국내특별초청은 전북의 대표작을 완성하는 앵콜초청과 전북과 창극의 역사를 소재로 한 신작초청으로 구분해 열렸다. 앵콜초청은 권삼득의 생애를 재조명한 작품인 전북도립국악원의 '비가비명창 권삼득', 최명희 원작 소설 '혼불'을 음악극으로 구성한 전주시립예술단의 '혼불', 백제가요 정음사를 테마로 정읍 지역의 독창적인 정서와 고유한 역사를 한국전통예술기법으로 창작한 정읍시립가무단의 '정읍사'가 마련됐다.

신작초청은 창극 100주년을 기념하여 조선 창극사를 조명한 창극단 협률사의 '광대의 길' 민요를 테마로 소리와 무용과 타악을 시나위 형태로 엮은 유라예술단의 '완산벌의 꿈' 등이 초청됐다.

한편 '어린이 소리축제', '청소년 소리축제', '사랑의 콘서트', '프린지 축제', '음식박람회'가 부대행사로 열렸다. 어린이 소리축제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어린이를 위한 음악동화 '심청아 나랑 놀자'를 비롯한 4개의 공연프로그램과 대형 체험프로그램인 '전래동요와 놀이마당', '음악치료' 등으로 꾸며졌으며 청소년 소리축제는 국내 유명 락밴드와 청소년이 함께 공연하는 흥겨운 한마당이 펼쳐졌다. '사랑의 콘서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무대와 객석에서 사랑의 하모니를 연출했고 프린지 축제로는 클래식·극예술·전통음악등 자유참가공연이 이어졌다. 전통음식박람회는 당초 계획 보다 조금 축소된 가운데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을 전시하고 직접 요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2002전주소리축제에는 '소리체험관', '테마소리기행' 등 각 연령층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



박후식 | 전국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

에콰도르의 원주민 그룹 '시사이'

원주민 언어인 케추아어로 '꽃이 피다'라는 뜻을 가진 '시사이(SISAY)'는 에콰도르 잉카의 후손들로 구성된 순수 원주민 그룹이다. 그들의 전통음악인 안데스 민속음악을 통해 사라져 버린 잉카문명과 조상들의 문화가 음악을 통해서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다시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인 순수 안데스 민속음악 그룹이다. 1984년에 Luis Maigua에 의해 최초로 결성된 이래 총 15명의 연주자들과 함께 7장의 앨범을 발매했다. 국내에서는 6집과 7집이 소개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매니저먼트 본거지를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998년도부터 활동하고 있다. 일본 유럽 싱가포르 등지에서 공연을 해오고 있는 시사이는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정동극장 문화충돌 및 정오의 예술무대 출연을 비롯, △1999년 가수 윤상씨 3집 'CLICHE' 앨범 수록곡 중 '바람에게' 녹음, △2000 국립극장 청소년을 위한 문화탐방 상설공연, 세종문화회관 재즈페스티벌 특별공연 △2001년 국악과 접목한 '공감21' 퓨전콘서트 전국 공연, △2002 광주비엔날레 및 지하철예술무대 출연등 다양한 행사에 출연해 오고 있다. 올해는 한국과 에콰도르가 수교를 맺은지 40주년 되는 해로 지난 3월 25일에는 에콰도르 대통령이 방한한 바 있다. 에콰도르는 2002 월드컵에 최초로 본선 진출했다. 주최측은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해 남미국가 중의 하나인 에콰도르 안데스 민속음악을 소개함으로써 문화교류를 비롯 국내에 제3세계 음악의 기반구축과 함께국악과 에콰도르 민속음악이 만나는 '문화충돌'을 기대하며 초청했다고 밝혔다.

안데스 음악은?

안데스 국가(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에 있는 원주민들의 전통음악으로 그들의 오랜 전통·풍습과 더불어 고산지대라는 환경에서 비롯된 '자연 음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잉카(Inca)문화의 중심지였던 안데스 산악지방에서는 원주민 음악(잉카족이나 아이마라족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가 서반아음악과 조화를 이루면서 독특하고도 매력적인 혼합음악이 생겨나게 되었다. 초기에는 3음계(do, fa, la)가 사용되는 케추아(Quechua)음악의 특성이 주조를 이루었으나 식민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인디오적인 영향은 점점 줄어들고 유럽음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7음계가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주요악기로는 토착민의 피리인 께나(quena)와 산의 메리리 소리를 듣고 만든 대나무관으로 이루어진 썬뽀니아(zamponia) 그리고 갑옷쥐(armadillo)의 등껍질로 만든 처랑고(charango)라는 이름의 작은 기타 그리고 아마라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타악기인 봄보(bombo)가 있다.

‘2002전주세계소리축제’



내몽고 Youth 합창단

1987년에 설립된 인너 몽골리안 청소년합창단(Inner Mongolian Youth Choir)은 후훗(Hohhot)에 소재한 다양한 예술협회 소속의 성악가들과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33명으로 구성됐다. 이 합창단원들은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무상으로 투자한다. 특히 몽고의 전통음악을 발굴하고 계승하며 발전시키는 동시에 서양의 합창음악을 접목시키는 데 힘쓴 결과 완전히 새롭고 특별하며 멋진 스타일의 몽고합창음악을 추구하게 됐다. 그 설립시기부터 이 합창단은 대성공을 거두며 세계의 주요 합창단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내몽고뿐만 아니라 중국과 세계 각지에서 여러 중요한 콘서트를 열고 있다. 1988이래 이 합창단의 연주는 지역 라디오스튜디오에서 음반으로 제작되어 60개 이상의 나라로 전파됐다. 음악 전문가들과 비평가들은 이 합창단의 예술에 “먼 초원에서 온 완성된 공연”, “중국 합창 정원의 아름다운 꽃”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또한, “그들은 밝고, 크며 멜로디가 풍부한 소리를 지녔다.”, “그들의 소리는 확실히 바람까지 퍼지고 비와 눈에 맞서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양 합창예술을 자신의 몽고 예술과 접목시켜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독특하고 개성 있는 초원 합창을 창조하였다” 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지휘자 야룽게릴(Yalungerile)

내몽고예술대학 부교수 · 중국음악협회회원 · 중국합창협회 이사장 · 내몽고합창연합회 회장대리 · 중국 청소년협회회원 · 중국 몽골리안 청소년합창단 지휘자. 정열적이고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그녀의 합창지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음악 전문가들과 동료 음악인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다. 중국 중앙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유명한 지휘자 양리양군은 그녀를 ‘좋은 소리의 조각가’로, 또한 국제 합창연맹의 회장인 로이스 살트만(H. Royce Saltman)은 그녀를 ‘표현력이 풍부한’ 합창 지휘자로 칭송했다.

내몽고에서 태어나 1975년에 내몽고예술학교를 입학해 피아노를 배운 그녀는 1979년에 중국국립대학교에서 음악 작곡과 피아노를 전공하고, 1981년에는 상하이음악원에서 마계순 교수를 사사했다. 4년간의 대학시절 동안에는 중요한 합창공연을 훈련, 지휘했고, 졸업 후에는 내몽고예술대학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다. 1986년 7월, 제4회 북 중국 음악페스티벌에서 그녀는 합창조곡의 오케스트라 곡을 성공적으로 지휘하기도 했다. 그 때 이후로, “긴 행군조곡”과 “황하코러스” 등을 비롯한 100여 번 이상의 공연을 지휘하며 경험을 축적했다.

1995년에는 중국 중앙 음악원 석사과정 동안 양 리양군 교수 지도 아래 합창지휘를 전공했다. 1996년에는 최초의 푸 첵시안 장학금을, 1998년에는 “몽고합창예술”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에는 동료들과 함께 내몽고 청소년 합창단을 창설하고 직접 지휘를 맡았다. 그녀는 호되고 정확한 훈련으로 합창단원들의 수준을 높이 끌어올렸다. 1991년에 그 합창단은 제3회 베이징 합창페스티벌에서 우승, 그녀 또한 상을 받았다. 1992년과 1993년에는 그 합창단은 제1회, 제2회 중국 국제 합창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갔고, 그 곳에서 크니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1000 인의 합창을 연주한 개막식 지휘자로 초창을 받기도 했다. 1993년에는 홍콩과 대만에서 큰 환영을 받았다.

1996년 호주의 시드니에서 열린 제4회 국제합창심포지움에서 그녀와 합창단은 큰 찬사를 받았으며, 그녀는 ‘인너 몽골리아 청소년합창단과 그 예술세계’를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찾아내야 할’ 우리문화

두레를 아십니까? ——

이제는 농사짓는 일을 거의 기계가 하고 농부는 거의 농기계를 다루는 기술자처럼 돼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관계로 옛날처럼 농사짓는데 특별히 농번기라는 것이 없어진 셈이다. 농번기에는 일손이 모자라 집집마다 일품을 내서 단체로 모내기를 하고 김매기를 했다. 이는 서로 일손을 도와 힘든 일을 서로 도우면서 하자는 취지로 마을마다 두레라는 모임이 맺어져 있었다.

두레는 품앗이하고는 다르다. 품앗이는 서로 일손을 빌려주고 다시 일손을 되돌려 받는다. 갑이 하루 가서 을의 일을 해주면 을이 갑의 일을 하루 가서 해주는 게 품앗이이다. 두레는 집집마다 일손을 내서 집단적으로 한 집의 일을 마쳐주고 돈을 받는다. 공동으로 일을 해서 벌은 돈을 모아 두었다가 농기계를 사고 마을의 골목길이나 다리 등을 고쳐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경비로 충당하고 반드시 얼마를 남겨두었다가 농사철이 끝나면 풍년을 기원하는 뜻을 살리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시름을 잊게 하는 놀이판을 벌리는 것이 두레였다.

두레는 함께 힘을 모아 서로 돕고 살자는 뜻이 배인 자발적인 모임이다. 주민 스스로 서로 돕고 살자는 정신이 곧 두레 정신이다. 이러한 두레정신은 농촌사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닐 것이다. 아무리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사회라 할지라도 서로 함께 도우며 살자는 두레정신은 여전히 필요한 주민정신이다.

품앗이를 아십니까? ——

노동력을 돈으로 사면 이를 품을 판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력을 노동력으로 갚아주면 이를 품앗이라 한다. 품앗이는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살아가는 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래 우리 사회는 이러한 정으로 맺어진 협동생활을 마을 정서로 키워 왔었다.

집을 비울 때 이웃한테 집을 봐달라고 한다. 그러면 이웃은 기꺼이 청을 들어준다. 반대로 집을 봐준 이웃이 아이를 좀 봐달라면 역시 기꺼이 아이를 돌보아 준다. 이렇게 이웃이 서로 아쉬울 때 도와서 어렵거나 성가시거나 귀찮거나 하는 자질구레한 일들을 서로 해결하려는 이웃간의 정이 곧 품앗이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이웃끼리 한 가족처럼 서로 먹거리를 나누어 먹는 데서도 품앗이 정신이 드러났다. 못 먹고 못 사는 세상일 수록 이웃끼리 먹거리를 나누어 먹었다. 서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함께 극복하자는 품앗이 정신 덕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인심(人心)이 우리네 고을 문화에 미덕(美德)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품앗이 정신은 분명 미풍(美風)이며 양속(良俗)이다. 이런 품앗이 정신이 이제는 거의 없어져 버린 셈이다. 우리 조상들이 잘 가꾸었던 미풍 양속은 세상의 변화에 아랑곳 않고 물려받아 더욱 성하게 하는 것이 곧 문화생활의 본분이다.

품앗이 정신은 이웃 사이에서만 소중했던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 한양으로 과거를 보려고 서울로 올라가던 과거꾼들이 문경 새재를 넘어서면 심신이 피로해졌다는 게다. 한 선비가 하도 힘들어 한 민가로 불쑥 들어가 물 한 사발 얻어 마시자고 했다는 게다. 이 말을 듣고 집주인이 얼른 찬 냉수를 들고 나와 나그네한테 건네주기 전에 간장을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 물을 마시게 권 했다는 게다. 먼길을 걸느라 땀을 너무 많이 흘려 몸에 소금기가 빠져 실신할 지경임을 집주인이 알아서 그렇게 냉수를 권하게 되었다는 게다.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린 나그네가 고맙다면서 인사를 하니 집주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저도 이런 지경을 당했었는데 간장 탄 냉수를 얻어 마시고서야 피로를 풀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품앗이를 갚아서 더 마음이 가벼우니 손님께 감사 할 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과거꾼은 이렇게 다짐했다는 것이다. “나도 이번에 진

고마움을 갚아야지.” 이러한 일화(逸話) 역시 품앗이 정신이다. 이런 품앗이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한다.

연싸움을 아십니까? —

싸움은 싸움인데 싸움 아닌 것이 뭐지? 연싸움이지. 내 어릴 적에는 음력 2월이 되면 이런 수수께끼를 걸곤 했다. 이런 수수께끼의 답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수수께끼를 거는 속뜻은 연을 잘 만들어 받았다는 자랑을 하고 싶어서이다. 정월 대보름이 지나면 할아버지의 즐거움이야 손자에게 잘 나는 연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 치고 연을 못 만드는 분이 없었다 해도 거짓말이 아니다.

2월이 오기 전에 할아버지로부터 나도 잘 나는 연을 선물 받곤 했다. 연을 선물 받기까지 손수 연을 만들어 주는 과정이 더 재미나고 놀라웠다. 대쪽을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저며내 여섯 개를 만들어 놓은 다음 한지(韓紙)를 직사각형으로 접어 잘 드는 칼끝으로 가운데 째를 정확하게 오려내 방구멍을 만드는 과정을 보노라면 그렇게도 할아버지가 위대해 보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할아버지한테 효도할거야 속으로 다짐하면서 훌쩍 반했었다. 할아버지도 그런 손자를 받기며 연을 만들었다.

연을 만들고 나면 묵은 얼레와 연줄을 살펴 보시고서는 손자가 이제 여덟 살이 됐으니 연싸움 할 나이가 됐구나 하시며 연줄에다 가미먹이기를 해주던 할아버지 모습이 60년이 지났으되 눈에 선하다. 연줄에다 사금파리를 밀가루 보다 더 잘게 갈아 된풀에 으깨서 연줄에 발라 연줄을 잘 말리는 일을 가미먹이기라고 했었다. 이런 가미먹이기를 할 때면 할아버지도 나만 있는 데서 비밀로 해주었었다. 연싸움 승패는 얼레질 하기와 가미먹이기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연싸움 하기 전에 연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러주기도 했었다.

음력 2월에는 바람이 많이 분다. 영등할머니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분다는 게

다. 바람을 타고 영등할머니 하늘로 올라가야 풍년이 든다고 들 했다. 영등할머니 추운 겨울 내내 이집 저집 부엌 구석에 앉아 있다가 봄을 실어오는 2월 바람이 불면 나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야 하므로 2월에는 연싸움을 해서 연을 끊어주어야 한다는 게다. 영등할머니 머나먼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풍년이 들므로 본래 농촌의 연싸움은 풍년을 바라는 마을 사람들의 소망을 한 곳으로 모아 주었다. 그래서 연싸움은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술을 샀었다. 왜냐하면 진사람의 연을 타고 영등할머니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멋진 승패인가. 이처럼 우리네 승패는 승자가 패자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패자와 더불어 함께 정 나누기를 한다. 이런 연싸움 정신을 건전한 경쟁력으로 거듭나게 했으면 한다.

좁도리를 아십니까? —

이제는 말이 부엌이지 옛날 부엌은 없어진 셈이다. 이제 부엌에는 아궁이도 없고 무쇠 솥도 없으며 물동이도 없고 갖가지 양념 단지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부엌 후미진 모서리에 숨어 있었던 좁도리 단지 이야기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되고 말았다. 좁도리 단지는 절약생활의 본보기였으므로 그 정신만은 되살려 생활문화의 한 요소로 되살렸으면 한다.

시어미가 며느리한테 부엌 살림을 넘기고서도 손대지 못했던 것이 바로 좁도리 단지였다. 좁도리 단지에는 때마다 한 줍씩 절약한 쌀이 담겨 있었다. 좁도리 단지를 얼마나 잘 간수하면서 알뜰살뜰히 살림을 잘 할 것인가를 가늠해 본 다음에야 쌀뒤주를 맡겼다는 게다. 그러기 전에는 시어미가 직접 쌀뒤주에서 알맞은 양의 쌀을 손수 퍼서 부엌에 가서 한 줍의 쌀을 좁도리 단지에 넣어놓은 다음에야 밥할 쌀을 며느리한테 건넸다는 게다. 시집온 며느리가 당장 쌀뒤주에서 쌀을 퍼다가 밥짓지 못했었다. 며느리가 식구에 따라 알맞게 밥지를 쌀의 양을 눈대중으로 익히게 한 다음에야 시어미가 며느리한테 쌀뒤주를 맡겼다. 그러다 어느 날 시어미가 뒤주에서 쌀을 퍼 오라 하면 며느리는 긴장하면서도 기뻐했다는 게다. 시어미 눈에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좁도리 단지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까닭이다.



좁도리 단지는 쌀 두서너 되가 들어갈 정도로 작다. 그러나 좁도리 단지는 부엌을 맡은 아낙한테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다. 좁도리로 모은 쌀만큼은 아무도 넘볼 수 없었던 까닭이다. 아무리 드센 시어미라도 며느리가 모은 좁도리 쌀을 간섭하면 안 되었다. 그렇다고 좁도리 쌀이 헛되게 사용되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었다. 시아버지나 남편이 장보러 갈 때면 좁도리 쌀을 비워내 건네주면서 무엇을 사다 달라고 하면 반드시 요구한 물품을 사다 주어야 했다 한다. 좁도리 쌀을 팔아서 다른 용도로 써버린 날에는 시아버지든 남편이든 출장부가 되고 만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좁도리가 벌어진 돈이란 말이었다.

좁도리 단지를 요새로 치자면 돼지저금통 같은 것일 수 있겠다. 절약할 줄 알아야 아껴 쓸 줄 알고, 아낄 줄 알아야 무엇이든 소중한 줄 알게 마련이다. 좁도리 단지라는 것은 쌀 한 톨이라도 아껴 소중한 용처(用處)가 생기면 활용한다는 절약의 본보기였던 것이다. 그때는 아쉽고 궁했던 세상이었으니까 좁도리 단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풍족한 세상에 무슨 좁조리 타령이냐고 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현명하고 건강한 생활문화가 호흡하는 사회에서는 풍족할 때일수록 절약생활이 몸에 배이도록 신경을 쓴다. 잘 사는 나라에 가보면 절약하지 않고 낭비하는 풍속이 없다. 있을 때 아껴야지 없을 때는 아끼려해도 아낄 것이 없다는 지혜를 터득하게 하려는 것이 곧 좁도리 단지라는 것이었다.

좁도리 단지는 쌀이 있을 때 쌀을 아껴서 요긴하게 쓰다는 검약(儉約) 생활에서 비롯된 양속(良俗)이다. 부엌이 서구식으로 개량되면서 아궁이도 없고 솔이 걸려 있는 부뚜막도 없어졌지만 옛날 부엌 은밀한 곳에 소중하게 두었던 좁도리 단지에 스며있던 검약의 정신만은 후손에게 물려줄 만하다. 어떤 부녀단체에선가 한 때 좁도리 운동을 펼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좁도리 운동은 한번 해보는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몸에 젖도록 해 절약생활로 이끄는 정신의 표본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

꽃놀이를 아십니까? ——

봄이 무르녹아 산천에 진달래가 피면 산골 아이들은 꽃놀이가자고 떠들면서 산자락으로 갔었다. 아이들은 따먹기

도 하면서 진달래꽃을 소쿠리에다 수북히 따서 담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어머니는 진달래 꽃잎을 곱게 개어서 작은 단지 속에다 그득하게 포개 담은 다음 소주를 붓고 창호지로 단지 주둥이를 덮어 꼭꼭 묶은 다음 두견주(杜鵑酒)를 담았다고 자랑했었다. 그런 다음 한 나달 뒤 아이들은 다시 꽃놀이가서 진달래꽃을 따오면 어머니는 진달래꽃잎에 찹쌀 가루를 살살 뿌려 들기름에 살짝 튀겨내 두견전(杜鵑煎)을 만들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이웃 어른들과 함께 두견전을 안주 삼아 두견주를 들었고 아이들은 진달래꽃 튀김을 신나게 얻어 먹었다. 이처럼 진달래꽃잎을 먹거리로 삼았던 즐거움을 진달래 꽃놀이라 했었다. 이렇게 한 가족이 봄을 즐겼다.

여름 꽃놀이는 봉숭아와 분꽃으로 했다. 올밑에 봉숭아가 지천으로 피면 처녀들은 새빨간 봉숭아 꽃잎을 수북하게 따서는 꼭꼭 찌어 으갠 다음 백반과 소금을 조금 넣고서 다시 더 찌어 그릇에 담아두었다. 그리고 나면 처녀들은 다시 분꽃이 떨어지고 남긴 열매 속을 갈라 흰 가루를 꼼꼼히 파내서 물을 섞어 반죽을 해두고서 밤을 기다렸다. 밤이 되면 일찍 처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봉숭아꽃 다진 것을 손톱 위에 얹고 봉숭아 잎을 덮어 손가락 끝을 실로 칭칭 감아둔 다음 어머니를 부르며 열 손가락을 방바닥에 대고 누워 있는 딸아이의 얼굴에 분꽃가루 반죽을 골고루 발라주고 나왔었다. 처녀는 고문 받는 것처럼 밤을 새우고 꼭두새벽에 일어나 손가락을 풀고 얼굴에 발랐던 분가루를 써이낸 다음 손톱에 봉숭아꽃 물이 잘 들었는지 열 손가락 손톱을 살폈다. 봉숭아꽃 물이 든 딸애의 손톱을 살피주면서 어머니는 올 여름 꽃놀이는 참 잘됐다고 만족해 했다. 이처럼 여름 꽃놀이는 처녀들이 즐겼다.

가을 꽃놀이는 주로 황국(黃菊)으로 했다. 황국을 떨기 채로 끊어다 찹쌀 가루를 살살 뿌려 두견전 만들듯이 들기름에 튀겨내면 국화전(菊花煎)이 되었고 소주에 국화 송이를 넣으면 국화주(菊花酒)가 됐다. 국화전으로 안주 삼아 국화주를 들면서 꽃놀이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가을 꽃놀이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 국화꽃잎을 잘 뜯어내 국화 송이 모양으로 한지(韓紙) 조각에 붙인 다음 방문 문고리 아래쪽에 발라서 한 겨울에도 문을 열 때마다 가을 황국을 보고 즐겼고, 황국 송이를 그늘에서 잘

말린 다음 할아버지 베개 속에 넣어 사랑방을 국화향기로 그득하게 하면 겨울 내내 가을 꽃놀이를 하겠다며 할아버지가 즐겼다.

이처럼 우리는 꽃놀이를 자연의 고마움을 살피면서 했다. 꽃을 꺾어다 꽃꽂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꽃이 피면 피어 있는 그대로 꽃을 즐겼고 먹어도 되는 꽃이면 꽃잎을 따서 향기를 먹고 즐길 줄 알았다. 특히 화전(花煎)과 화주(花酒)야말로 우리의 생활문화가 개발한 꽃놀이의 일품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처럼 꽃놀이는 자연에 감사하며 산다는 정신이 배어 있음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꽃놀이는 자연을 받들어 모시려는 마음 가짐이 서려 있다. 철 따라 먹거리를 주는 산천을 반가워하면서 철 따라 즐기는 놀이야말로 인간과 환경을 하나로 묶는 놀이이다. 자연을 아끼는 마음은 먼저 자연을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네 꽃놀이는 자연을 고마워하고 즐기는 깊은 뜻이 숨어 있다.

죽부인(竹婦人)을 아십니까? ——

한 여름 더위를 이겨내는데 대나무만큼 요긴한 것이 없었다. 대나무로 부채를 만들어 바람을 피워 더위를 쫓았고 온돌방 장판 바닥 위에 대자리를 깔아 눅눅한 더위를 가셨으며 평상 바닥을 대쪽으로 엮어 바닥의 냉기를 머금게 해 무더위를 쫓았다. 어디 이뿐인가. 대나무 살로 갖처럼 엮어 공기기를 먹인 한지(韓紙)를 붙여 햇볕 가리개 모자를 만들었고 대나무 살을 가늘게 깎아 토시를 만들어 땀이 옷에 묻지 않게 했으며 대나무를 얹게 저미어 죽부인을 엮어 잡자리를 서늘하게 하였다.

이제는 더우면 선풍기를 틀거나 에어컨을 틀어 더위를 쫓는다. 손으로 부채를 부쳐 바람을 일구어 더위를 쫓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는 없다. 물론 여름이면 부채를 멋으로 손에 들고 다니는 모습을 가끔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여름이면 부채라던 시절은 없어진 셈이다.

그러나 죽부인과 죽토시는 그 참 맛을 알게 되면 냉방이 되는 방안에서 더욱 더 활용되리라 확신한다. 냉방이 되는 방은 온도는 낮으나 습도가 높아 흠이불을 덮으면 눅눅한 촉감이 들어 젖은 껌떼기 같아 싫어진다. 그럴 때 침대 흠이불 아래에다 죽부인을 넣어두면 여름철 눅눅한 습기가

바람에 실려 나가 버린다. 틈을 늘리면 바람이 인다 한다. 여름에는 틈을 늘리고 겨울에는 틈을 좁히려는 것이 더위와 추위를 견뎌내는 우리네 슬기였다. 그런 슬기의 산물이 곧 죽부인이며 죽토시인 셈이다.

죽부인이란 이름이 얼마나 익살스러운가. 긴긴 겨울밤에는 아내를 껴안고 자야 따뜻하고 무더운 여름밤에는 죽부인을 껴안고 자야 시원하다는 말이 옛날에는 심심찮게 입에 올랐었다.

죽부인은 길이가 석자 정도 나간다. 마치 성근 용수 같이 대롱이 되게 엮어 솔솔 바람이 들고 나게 한 간단한 것이다. 죽부인을 끼고 자면 흠이불 아래 큼직하게 빈틈이 생긴다. 그 빈틈으로 솔솔 바람이 불고 다닌다는 게다. 솔솔 바람은 소리 없이 흘러 다닌다. 요새 말로 한다면 공기의 대류(對流) 현상인 셈이다. 죽부인은 이런 솔솔 바람을 불러들이고 밀어내 이불 아래를 시원하게 한다는 게다. 빈틈이 늘면 시원하고 빈틈이 줄면 덥다는 이치를 죽부인으로 옮겨 한 여름 무더위를 쫓았다.

여름이면 죽부인 뿐만 아니라 가을에 건어내 말아두었던 대자리를 장판바닥에 다시 깔기도 했다. 대나무를 얹게 저미어 십자수처럼 엮어서 큼직한 자리를 만들었었다. 물론 요새도 백화점에서 대를 가늘게 쪼개서 엮은 대자리를 판다. 이런 대자리는 옛날 대자리와는 다르다. 대나무를 얹은 종이처럼 저미어 십자수처럼 엮어 짠 옛날 대자리는 그 위에 사람이 누워도 빈 틈새가 여전히 열대야에 누워도 눅눅하지 않고 오히려 끈끈한 몸을 건조시켜 줄만큼 통풍(通風)이 뛰어났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천하에 둘도 없는 온돌을 우리가 발명했다. 이처럼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려고 죽부인, 대자리, 죽토시, 부채 등을 발명했던 셈이다. 온돌의 생활문화는 여전히 건재한 셈이다. 아파트는 거실이든 침실이든 바닥 밑에 온수가 흐르고 있지 않은가. 이는 우리네 온돌 문화를 변형하여 이 시대에 맞춘 것이다. 이처럼 한 여름 무더위를 냉방기기로만 쫓으려 들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생활문화로 일궈낸 죽부인, 섯자리, 죽토시의 슬기로운 뒤살려 활용했으면 한다. ☞

〈전국문화원연합회 刊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책임집필 윤재근, 삽화 고바우) 중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

2002 향토문화연구자 초청연찬 9월 4일부터 4회 개최

전국문화원연합회(회장 이수홍)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장을병)은 9월 4일부터 4회(매회 2박3일)에 걸쳐 정문연에서 2002 향토문화연구자 초청연찬(研鑽)을 공동 주최 한다.

전국의 향토문화연구자를 초청해 개최되는 이번 연찬에는 세미나 중심으로 향토문화의 수집 발굴 및 활용, 디지털화를 통한 지식정보화 구현, 향토문화연구자의 인적네트워킹 형성, 서울대 규장각등 현장견학을 통한 문서수집 및 보존마인드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개최된다.

주요 강의내용은 정부의 지방문화

육성책과 그방향, 향토문화의 활용, 고문서의 내용과 정리의 실제, 향토문화자료의 수집과 전산화, 분야별 전문교육(역사학 국문학 민속학 인류학 등), 향토지식재산의 관리와 산업화, 향토문화연구 성공사례 등. 강의는 학계의 저명학자와 정문연 교수, 현장활동가 등이 담당한다.

향토문화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문화원이나 본회에 신청할 수 있다. 숙박비 등 모든 비용은 무료.

연찬일정: 1차 9월 4~6일, 2차 9월 11~13일, 3차 9월 25~27일 4차 10월 9~11일

전국문화원연합회 산하에 2개 지회 새로이 설치

▶ 인천시지회

지회장:김동순(인천문화원장)
주소:인천시 중구 송학동 1가 11
전화:(032)761-2778~9
팩스:(032)773-2712
설치일:2002.7.31

▶ 울산시지회

지회장:이두철(울주문화원장)
주소:울산시 남구 옥동 156-3
전화:(052)229-7953
팩스:(052)229-7954
설치일:2002.7.31

성동문화원

임시총회서 원장·부원장 승인

성동문화원은 7월 4일 성동문화회관 3층대강당에서 3백8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새로이 선출된 원장·부원장을 승인했다. △원장=신동호 △부원장=윤동림·강승조·신민호·정진섭·허필수 △상근부원장(성동문화정보센터관장)=김진

부평문화원

허문명 신임 문화원장

부평문화원은 단국대 총무처장이자

부평구 축제위원장을 역임한 허문명 씨를 문화원장에 선출했다.

인천서구문화원

인천서구문화원이 최근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이 인가됐다. 초대문화원장은 정인표씨(69).

광주남구문화원

주소변경

△주소=(503-818) 광주 남구 서1동 147-1
△전화=(062)671-7356

유성문화원

유성문화원은 최근 제3대 문화원장에 한근수씨(44)를 임명했다. 사무국장에는 조병열씨(36)를 임명했다. 한편 유성문화원은 8월 1일 대전시 유성구 궁동 469-1번지로 이전했다.

전화:(042)823-3915~6
Fax:(042)823-3917

부천문화원

신임 이형재 부천문화원장

부천문화원은 송승영 위장 후임으로 이형재 前 부천문화원이사(55)를 원장에 임명했다. 이 원장은 부천 출

전국문화원 소식

생으로 부천라이온스클럽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신흥주유소와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천문화원

이천도자기 축제

△일시: 9월 6일~29일(24일간)

△장소: 이천설봉공원 엑스포단지 및 도예촌일원

△문의: (031)635-7976, 644-2280~3

횡성문화원

문화원장이 · 취임식

횡성문화원은 7월 10일 횡성신라웨딩타운 3층에서 심진황 이임문화원장과 이일영 취임문화원장의 이·취임식을 가졌다.

논산문화원

박응진 신임문화원장

논산문화원은 6월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하기수 원장 후임으로 박응진씨를 문화원장에 선출했다.

청양문화원

2002 청양문화원 하계 청소년 문화학교 수료식

2002 청양문화원 하계 청소년 문화학교 수료식이 8월 22일 오전 10시 문화원 임원, 강사, 문화학교생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양문화원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청소년 문화학교는 지난 7월 22일부터 30일 동안 종이접기교실, 한문교실, 키크기제조교실, 생활영어교실, 명화감상교실 등 5개 과목의 강좌가 이뤄졌다.

당진문화원

정제상 신임사무국장

당진문화원장은 사무국장에 정제상씨(35)를 임명했다.

군산문화원

이복웅 신임 문화원장

군산문화원은 건강상 사퇴한 제3대 김양규원장 후임에 이복웅씨를 원장에 임명했다. 이 원장은 잔여임기 3년 동안 문화원장을 맡게된다.

화순문화원

임원선임

△원장=이수철, △부원장=박운학·김숙희, △상임이사=박철식, △이사=이동하 등 12명, △감사=서상옥·한광희

진도문화원

곽재상 신임사무국장

진도문화원은 사무국장에 곽재상씨(64)를 임명했다.

문경문화원

직원 인사

문경문화원은 7월 25일 간사 정현희씨(27)를 총무계장으로 승진발령하고 김현숙씨(24)를 간사로 신규채용했다.

김천문화원

▷ 청소년 충효교실 개최

김천문화원은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청소년 2백여명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열어 충효교육과 관내 문화유적지를 답사했다.

영덕문화원

임원개선

△원장=박인환
△사무국장=김진업

마산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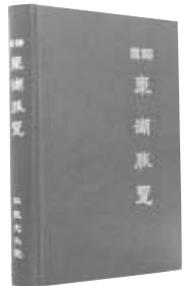
미노에 공민관 일행 맞아

마산문화원은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日本國 廣島縣 福山市 미노미(水呑)공민관 일행을 맞아 국제문화교류 행사를 가졌다. 우리나라 불교민속 범패(佛母山 靈山齋)공연을 비롯해서 전라북도 남원권과 경상북도 경주권 문화답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날의 문화답사는 한국불교 문화예술에 대한 극치와 정유재란때의 일본인의 외침(萬人塚 黃山大捷)에 대한 역사적인 반성의 계기를 갖게 했다.



합천 누정록 합천군·합천문화원

합천은 황강이 군의 중심을 흘러가는 산자수명한 고장으로서 남명조식과 같은 명현거유가 배출된 선비의 고장이기도 한다. 합천군과 합천문화원에서는 군내에 산재해 있는 누·재·정·원·당·사 등에 선현들이 지어놓은 현판이나 기문(記文)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독·번역하고 사진을 집대성하여 '합천누정록' 1345쪽을 발간했다. 편집을 보면 먼저 읍·면별, 이·동별 행정순서에 따라 배열한 뒤 이·동내에서는 다시 성씨별로 수록하는 방식을 택했다.



국역 동호승람 강릉문화원

강릉문화원에서는 1997년에 완역 '증수 임영지'를 간행한바 있었다. 그러나 '증수 임영지'는 1933년에 간행된 관찬성격의 읍지였으므로 제한된 분량, 시간적 제약등으로 인해 강릉지방의 전통과 문화, 인물 관련자료들이 충분하지 못하였던 형편이었다. '동호승람'은 '증수 임영지'가 간행된 직후(1934년과 1937년) 최백순(崔白洵)에 의해 간행된 사찬 읍지로서 다른 읍지에 수록되지 않았던 자료들이 추가된 읍지로서 그 사료적 가치가 높다. '동호승람'은 원래 4권중 2·3·4권의 3권만 남아있다.



제주사 인명사전 제주문화원

제주문화원에서는 제주도 교육계의 원로이며 향토사학자인 김찬흡(金燾洽)편저로 「제주사 인명사전(濟州史 人名事典)」을 발간했다. 제주도의 역사는 탁라(毛羅) 또는 탐라(耽羅)등으로 불리었던 고대부족국가에서부터 시작되고, 한반도의 주권국가에 예속되기는 1105년(고려숙종10년) 고려의 한 변방지역으로서 탐라군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제주사 인명사전'에는 탐라국시대의 삼을나(三乙那)로부터 19세기 말까지 생존하면서 제주도에 영향을 준 1544명을 수록했다.



남해인사록 남해문화원

남해문화원은 향토문화를 이끌어왔던 선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함으로써 후예들이 자기 선조들에 대한 숭조정신을 함양케 하고 지역사회에 희생과 봉사로 애항심을 고취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남해인사록' (588쪽)을 발간했다. 제1장 공공기관에 행정·각급회의·치안·교육·체신·기타관서·향토방위·정부투자기관·공공법인체·금융기관등을, 제2장 사회단체에는 사회 및 봉사단체·재외향우회·언론단체등을 실는 등 총 6장에 걸쳐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양주 땅이름의 역사 양주군·양주문화원

양주문화원에서는 '양주향토자료총서' 시리즈 제4집으로 '양주 땅이름의 역사' (999쪽)를 발간했다. 지난 1993년에 발간됐던 '양주지명유래집'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1999년부터 3년간 작업 끝에 발간하게 된 것이다. 이 책자는 조선왕조실록과 지리지 등 문헌자료와 족보를 비롯한 문증자료 및 금석문 등에 나타난 양주지역의 땅이름과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며, 한 땅의 이름을 놓고 다르게 증언되고 해석되고 있는 사실을 모두 수록해 책자의 자료적 가치를 높이고자 애쓴 흔적이 보인다.



삼척지방 방언 편람 삼척문화원

삼척문화원에서 삼척·동해·태백문화권의 사투리를 집대성하여 '삼척지방 방언 편람'이라는 표제에 "어데 가와?"라는 부제를 달아 발표했다. '어데가와'는 삼척 토박이 아줌마들의 정겨운 인사말이라고 한다. 이 책의 저자는 삼척출신의 지방공무원 이경진(李敬鎭)씨. 영동지방의 사투리는 신라문화권인 경상도지방의 방언과 억양이 동해안과 태백준령 내륙을 따라 북상하면서 조금씩 변형되기도 하고 고립되기도 하면서 독특하게 형성되어 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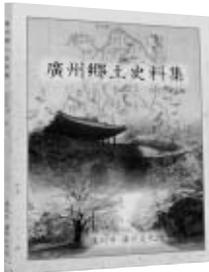
석정 이정직 유고<I~IV> 김제문화원

석정 이정직(石亭 李定稷 1841~1910)의 저서를 국역한 것. 석정은 전북 김제시에서 태어난 통유(通儒)로서 도학과 문예와 덕성을 겸비한 호남삼재(湖南三才: 海鶴 李沂·梅泉 黃玟)로 손꼽히는 인물이었다. 그의 서화는 이론과 작품이 새로운 교육적 범주에 속하여 많은 문하생을 배출했다. 그는 성리학·시문학·천리학·산학등에도 뛰어났으며, 성리학을 토대로 서구 철학사상을 섭렵하는등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철학적 체계를 갖추어 학문적 성과를 이룩했다.



문경 탄항봉수 지표조사보고서 문경문화원

문경시와 문경문화원은 충청북도 충주시와 경상북도 문경시의 경계에 위치한 유명한 봉수대 탄항(炭項) 봉수에 대한 지표조사를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 위촉해 '중원문화연구총서 제30책'으로 '문경 탄항봉수 지표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탄항봉수의 위치, 탄항봉수대의 현존상태, 봉수대 주변의 민속, 보존과 정비방안등이 사진과 그림 등으로 설명되어 있다.



광주(廣州)향토사료집 <제5집> 광주시·광주문화원

경기도 광주시와 광주문화원에서 '광주향토사료집' 제5집을 발간했다. 이 사료집에는 구한말 우리민족의 시련기와 광주, 3·1운동과 광주, 일제암흑기의 광주교육, 일제하 광주시민들의 사회생활, 8·15 광복후의 광주, 6·25 동란의 발발과 광주, 광주의 행정구역 변천사, 광주 농촌운동의 전개등이 기록되어 있다.



지조를 지킨 선비 명재 윤증 논산문화원

논산문화원에서는 2001년도에 '영원한 선비 사계 김장생'을 발간한데 이어 금년에는 '지조를 지킨 선배 명재 윤증'을 발간했다. 명재(明齋) 윤증(尹拯: 1629~1714)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 유학자이고 절개와 의리를 지킨 선비로서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고 후학양성에 노력한 선비이며 정치가였다.



청주용담동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국립청주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에서는 1998년부터 청주시 동부우회도로건설구간의 유적 및 고분군등을 조사해 여러시대에 걸친 다양한 유물을 발굴했다. 용담동 고분군은 청주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삼국통일 이후의 신라고분군으로 그 동안 미약했던 청주지역의 신라문화확산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고활자 학술회의 청주고인쇄박물관

청주고인쇄박물관개관 10주년 기념 '한국 고활자 학술회의' 자료집이 간행되었다. 목활자인쇄의 제문제, 한국금속활자인쇄술의 발전과정, 영남지방 간행 목활자본의 개관, 조선전기 금속활자 인쇄기술의 발달, 조선 후기 목활자의 재질, 활자 자보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 활자조판과 인쇄술연구등 발제논문과 종합토론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동대문의 옛이야기 동대문문화원

동대문문화원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동대문 지역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동대문의 옛이야기'를 어린이들이 보고 읽기 편하게 활자를 키우고 만화형식의 삽화도 곁들여 펼쳐냈다. '허정 유관에 얽힌 이야기'를 비롯해 '안암천, 안감내 다리에 얽힌 이야기', '동대문에 얽힌 이야기' 등 22가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화전사연구<1집> 남해문화원

남해문화원에서는 세월이 갈수록 많은 사료들이 훼손되고 일실되어 흔적마저 찾을 수 없게된 오늘날의 향토사를 발굴하기 위해 봉사정신과 애향심으로 구전에 머물던 여러 사료를 찾아 동분서주하면서 조사·연구·집필에 힘쓴 '花田史 바로알기모임' (회원 31명)의 연구성과를 엮어 「花田史研究」<1집>을 발간했다. '화전사 바로알기모임'은 1996년 11월에 결성됐다.



경남 향토사 논총 IX 경상남도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남도향토사연구협의회는 1989년 경상남도의 각 시·군의 향토사 전문가 22명이 모여 연구협의회를 결성하고 매년 회원들의 원고를 모아서 '경남향토사논총'을 발간해 오고 있다. 2001년 말 현재 회원은 총 46명이다. 이번에 발간된 11집에는 20명의 회원들의 원고가 수록되어 있다.



대록삼강실록 천안문화원

천안문화원에서는 '향토문화자료19'로 '대록삼강실록(大麓三綱實錄)'을 출간했다. '대록삼강실록'은 1903년(고종황제 광무 7년 계묘) 당시 목천향교 유사인 조철등 8명이 쓴 조선 중기 임진란 이후 당시까지의 목천의 충신·효자·열부·효부로 알려진 62명에 대한 기록이다. 책의 편제는 번역문을 앞에 싣고, 뒤편에는 광무계묘본의 영인본을 싣고 있다.



태양의 나라 고령군·고령문화원

고령군과 고령문화원에서는 이색적으로 이고장 출신 문형렬의 장편소설 대가야 이야기 「태양의 나라」를 출간했다. 작가의 서문에 의하면 이 소설을 쓰면서 내내 의지하였던 질문은 “대가야의 역사는 사라져 버렸는데, 그 가야금은 어찌하여 1500년 가까운 세월을 건너서 우리 민족의 귀에 들리게 되었는지”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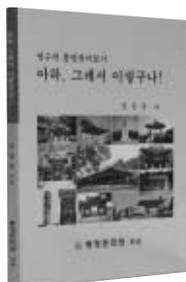
해설이 있는 고전문학 외국어 낭송시집 인천연수문화원

연수문화원이 주최했던 '해설이 있는 고전문학 외국어 시낭송회'는 지난 6월 12일 인천의 대표적 전통건축양식인 원인재에서 2002 월드컵을 기념해 개최했던 지역문화축제의 한마당이였다. 이 자리에서 영어(7편)·불어(10편)·중국어(8편)·일본어(5편)로 낭송되었던 시를 모은 시집이 책자로 발간됐다.



3.1 운동과 안성의 4월 독립항쟁 안성문화원

지난 4월 1일 안성시가 주최하고 안성문화원이 주관했던 '3.1운동 83주년/안성 3.1운동기념관 개관경축' 학술회의 자료집 '3.1운동과 안성의 4.1독립항쟁'이 출간됐다. 제1주제 3.1 운동의 배경과 전개, 제2주제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제3주제 안성 4.1독립항쟁의 특성과 의의 등 발제문과 토론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아하, 그래서 이렇구나! 통영문화원

통영문화원에서는 정갑섭씨가 엮은 「아하, 그래서 이렇구나!」라는 제목의 통영문화유산과 역사를 재미있고 알기쉽게 설명한 책을 발간했다. 사진과 그림을 곁들인 설명문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형식으로 엮어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는데 알맞은 책이다. 학교의 향토사 교재로도 적격이라 하겠다.

지방문화원은 전국에 215개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지회(02-518-1294)
- 종로문화원(02-731-0628)
- 중구문화원(02-775-3001)
- 용산문화원(02-703-0052)
- 성동문화원(02-2290-7714)
- 광진문화원(02-447-9364)
- 동대문문화원(02-2241-9300)
- 중랑문화원(02-492-0066~7)
- 성북문화원(02-765-1611)
- 강북문화원(02-984-8086~7)
- 도봉문화원(02-905-4026)
- 노원문화원(02-938-1244)
- 은평문화원(02-383-9300~2)
- 마포문화원(02-312-1100)
- 양천문화원(02-651-5300)
- 강서문화원(02-3661-8233)
- 동작문화원(02-822-8500)
- 관악문화원(02-885-5975)
- 강남문화원(02-518-1295)
- 송파문화원(02-414-0354)
- 강동문화원(02-476-6681)
- 금천문화원(02-896-8553)
- 영등포문화원(02-846-0155)
- 서대문문화원(02-3217-1592~3)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지회(051-555-1441)
- 동래문화원(051-555-1441)
- 북구낙동문화원(051-301-2710)
- 강서문화원(051-972-6369)
- 연제문화원(051-759-3113)
- 기장문화원(051-724-2224)

- 사상문화원(051-316-9111)
- 금정문화원(051-581-9071~2)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지회(053-744-7950)
- 중구문화원(053-255-5123)
- 달성문화원(053-611-0010)
- 남구문화원(053-652-4450)
- 북구문화원(053-326-2555)
- 서구문화원(053-563-9066)
- 달서구문화원(053-553-4800)
- 동구팔공문화원(053-984-8774)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지회(032-761-2778)
- 인천문화원(032-761-2778)
- 인천서구문화원(032-582-4341)
- 부평문화원(032-505-9001)
- 강화문화원(032-932-0011)
- 연수문화원(032-821-6229)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지회(062-527-7701)
- 동구문화원(062-225-5815)
- 서구문화원(062-652-4148)
- 남구문화원(062-361-7256)
- 북구문화원(062-527-7701)
- 광산문화원(062-941-3377)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지회(042-627-7517)
- 동구문화원(042-274-2135)
- 중구문화원(042-256-3684)
- 서구문화원(042-488-5474)
- 유성문화원(042-862-6969)
- 대덕문화원(042-627-7517)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지회(052-229-7953)
- 울산동구문화원(052-234-2202)
- 울산남구문화원(052-266-3786~7)
- 울주문화원(052-279-0527)
- 울산중구문화원(052-244-2007~8)

경기도

- 경기도지회(031-239-1020)
- 수원문화원(031-244-2161~3)
- 성남문화원(031-781-1020)
- 의정부문화원(031-872-5678)
- 안양문화원(031-449-4451)
- 부천문화원(031-651-3739)
- 광명문화원(031-618-5800)
- 평택문화원(031-655-2184)
- 동두천문화원(031-865-2923)
- 안산문화원(031-480-9823~5)
- 고양문화원(031-963-0600)
- 과천문화원(031-504-6513)
- 구리문화원(031-557-6383)
- 남양주문화원(031-592-0667)
- 오산문화원(031-375-7755)
- 시흥문화원(031-315-6465)
- 군포문화원(031-397-0195)
- 하남문화원(031-795-1020)
- 용인문화원(031-335-2033)
- 파주문화원(031-941-2425)
- 이천문화원(031-635-2316)
- 안성문화원(031-673-2625)
- 김포문화원(031-984-6550)
- 양주문화원(031-840-6467)
- 여주문화원(031-883-3450)

- 화성문화원(031-353-6330)
- 광주문화원(031-764-0686)
- 연천문화원(031-834-2350)
- 포천문화원(031-532-5055)
- 가평문화원(031-582-2016)
- 양평문화원(031-771-3866)
- 의왕문화원(031-456-4994)

강원도

- 강원도지회(033-255-5105)
- 춘천문화원(033-254-5105)
- 원주문화원(033-764-3794)
- 강릉문화원(033-648-3014)
- 동해문화원(033-531-3298)
- 태백문화원(033-553-3161)
- 속초문화원(033-632-1231)
- 삼척문화원(033-573-2882)
- 홍천문화원(033-434-2080)
- 횡성문화원(033-343-2271)
- 영월문화원(033-373-3434)
- 평창문화원(033-332-3546)
- 정선문화원(033-563-5471)
- 철원문화원(033-452-6235)
- 화천문화원(033-442-2607)
- 양구문화원(033-481-2681)
- 인제문화원(033-461-6678)
- 고성군문화원(033-681-2922)
- 양양문화원(033-461-6678)

충청북도

- 충청북도지회(043-733-5588)
- 청주문화원(043-256-3624)
- 충주문화원(043-847-3906)
- 제천문화원(043-646-3646)

‘지역문화’가 궁금하면 노크하십시오

- 청원문화원(043-257-2858)
- 보은문화원(043-544-2314)
- 옥천문화원(043-733-5588)
- 영동문화원(043-742-2215)
- 진천문화원(043-533-2744)
- 괴산문화원(043-832-3588)
- 음성문화원(043-872-4084)
- 단양문화원(043-423-0701)
- 증평문화원(043-836-3400)

충청남도

- 충청남도지회(041-667-0417)
- 천안문화원(041-575-3004)
- 공주문화원(041-852-9005)
- 서산문화원(041-669-5050)
- 논산문화원(041-732-2395)
- 금산문화원(041-754-2724)
- 부여문화원(041-835-3318)
- 서천문화원(041-953-0123)
- 청양문화원(041-943-4774)
- 홍성문화원(041-632-3613)
- 예산문화원(041-335-2441)
- 태안문화원(041-674-2192)
- 당진문화원(041-354-2367)
- 대천문화원(041-934-3061)
- 온양문화원(041-545-2222)
- 조치원문화원(041-865-2411)
- 아우내문화원(041-564-1022)
- 성환문화원(041-581-2101)

전라북도

- 전라북도지회(063-287-5509)
- 전주문화원(063-288-7500)

- 군산문화원(063-451-2138)
- 익산문화원(063-835-0120)
- 정읍문화원(063-532-8723)
- 남원문화원(063-633-1582)
- 김제문화원(063-547-4659)
- 완주문화원(063-263-4335)
- 진안문화원(063-433-1674)
- 무주문화원(063-324-1300)
- 장수문화원(063-351-5349)
- 임실문화원(063-642-2211)
- 순창문화원(063-653-2069)
- 고창문화원(063-564-2340)
- 부안문화원(063-583-2101)

전라남도

- 전라남도지회(062-223-0019)
- 목포문화원(061-244-0044)
- 여수시문화원(061-682-5388)
- 순천문화원(061-723-4563)
- 나주문화원(061-332-5115)
- 광양문화원(061-763-0496)
- 담양문화원(061-383-6066)
- 곡성문화원(061-362-0890)
- 구례문화원(061-782-8802)
- 고흥문화원(061-835-5245)
- 보성문화원(061-852-2629)
- 화순문화원(061-374-3333)
- 장흥문화원(061-863-6362)
- 강진문화원(061-433-7373)
- 해남문화원(061-533-5345)
- 영암문화원(061-473-2632)
- 무안문화원(061-452-8648)

- 함평문화원(061-322-0505)
- 영광문화원(061-351-3255)
- 장성문화원(061-392-1796)
- 완도문화원(061-552-4834)
- 진도문화원(061-542-1108)
- 신안문화원(061-242-8131)

경상북도

- 경상북도지회(054-556-5234)
- 포항문화원(054-242-4711)
- 경주문화원(054-743-7182)
- 김천문화원(054-434-4336)
- 안동문화원(054-859-0825)
- 구미문화원(054-482-5422)
- 영주문화원(054-631-3300)
- 영천문화원(054-334-3030)
- 상주문화원(054-535-2339)
- 문경문화원(054-555-2571)
- 경산문화원(054-815-0593)
- 군위문화원(054-383-2003)
- 의성문화원(054-834-5048)
- 청송문화원(054-873-2527)
- 영양문화원(054-682-1378)
- 영덕문화원(054-734-2456)
- 청도문화원(054-371-2514)
- 고령문화원(054-954-2347)
- 성주문화원(054-933-0700 ~ 1)
- 칠곡문화원(054-974-0450)
- 예천문화원(054-654-3833)
- 봉화문화원(054-673-2350)
- 울진문화원(054-783-2270)
- 울릉문화원(054-791-0245)

경상남도

- 경상남도지회(055-2293-1186)
- 창원문화원(055-284-8870)
- 마산문화원(055-243-5222)
- 진주문화원(055-746-5001)
- 진해문화원(055-544-8880)
- 통영문화원(055-645-7755)
- 사천문화원(055-833-3163)
- 김해문화원(055-336-2646)
- 밀양문화원(055-352-3010)
- 거제문화원(055-681-2603)
- 양산문화원(055-386-0890)
- 의령문화원(055-573-2034)
- 함안문화원(055-583-2290)
- 창녕문화원(055-533-3777)
- 고성문화원(055-672-3805)
- 남해문화원(055-864-6969)
- 하동문화원(055-884-3929)
- 산청문화원(055-973-0977)
- 함양문화원(055-963-2646)
- 거창문화원(055-942-6166)
- 합천문화원(055-931-2401)

제주도

- 제주도지회(064-722-0203)
- 제주문화원(064-722-0203)
- 서귀포문화원(064-733-3789)

월간 ‘우리문화’

구독 · 광고문의
T. (02) 704-2311

알림

본회 편집실에는 전국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사료나 향토지를 비치하고 있어 수시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史料 및 情報資料 提供

전국 시·군지, 향토사 자료등 각종자료 3천여권이 비치되어 있는 본회에 訪問하면 됩니다.

◎ (향토지) 각종 圖書 復刊相談

지방에서 발행할 각종 책자의 편집 및 출간을 위해 자료, 견본 등을 제공하고 편간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해드립니다.

◎ 海外 刊行物 交流

해외에서 발행되는 여러 간행물을 통해 우리의 文化遺産에 대한 올바른 評價와 자료의 수집을 위해 “海外刊行物交流事業”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關係者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이나 關係자료 또는 정보의 교류추진을 알선해 드립니다.

편집후기

모처럼 아침햇살 같이 빛나는 뉴스가 있더군요. 어느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툭툭 털어 몽땅 사회에 기부했더군요. 액수도 자그마치 〇〇억원에 달했습니다. 아들·딸들의 반대가 크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니더군요. 오히려 그들 역시 ‘열성 지지자’ 들이었습니다. 홍진(紅塵)의 이익에 눈 먼 범부로 할아버지만이 아닌 그런 선행에 뜻을 함께한 가족 모두에게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돈돈돈’ 하는 세상에서 쿵하니 뒤통수를 때리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나눔’의 법칙을 잊고 삽니다. 한 하늘을 이불처럼 덮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사는 사람들로서는 어쩌면 ‘나눔’이라는게 ‘시혜’가 아니라 ‘당위’인데도 말입니다. 더욱이 나눔이란 쪼갬수록 행복이 더 커지는 신비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감돕니다. 청명한 하늘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나눔’ 한가지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올가을에는... (敗)

정기구독안내

<우리문화>는 5천여년 간 숨쉬어 온 民族文化를 아름답게 꽃 피워보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自矜心을 기르고자 합니다. 이 책은 특히 海外에서 한민족의 自矜心을 갖고 곳곳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구독료(권당 3,000원)

국내 : 1년(6회) 정기구독료 18,000원 (우송료 본회 부담)

海外 : 1년(6회) 정기구독료 18,000+우송료

(※문화원 회원은 1권당 2,000원)

● 송금방법

송금은 농협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십시오. • 온라인번호 농협 032- 01- 013084 문화원연합회

● 보낼곳

121- 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 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편집실



난계 박연선생의 예술혼이 깃든 영동에서 우리의 악기를 만들어 갑니다

국악



현 · 관악기 공방



타악기 공방



전시장

영동군은!! 우리나라 3대 악성의 한 분이신 난계 박연 선생의 고향 영동을 빛내기 위해 국내 대표적인 국악기 제작 업체와 협약을 통해 난계국악기제작촌을 설립,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를 개발·생산함으로써 그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난계국악기제작촌의 현·관악기 공방과 타악기 공방에서는 일반인들도 오랜 경륜을 지닌 장인들로부터 지도를 받으며 국악기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국악기를 빛는 색다른 즐거움을 느껴 보십시오.



난계국악기제작촌

(우) 370-852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521-1
TEL : 043-742-7288~9 www.nangye-museum.or.kr